

연구보고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용연구 II: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문경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현숙(건국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편은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일정 기간 외국에서 조기유학 한 후 귀국한 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다.
- 귀국청소년이 경험한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 정체성을 조명해 봄으로써 조기유학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 귀국청소년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귀국청소년이 국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귀국청소년의 국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귀국청소년의 가족관계, 수업 적응, 심리적인 부적응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귀국청소년의 사회적·문화적·국가적 정체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 귀국청소년의 국내 적응은 조기유학을 다녀온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 조기유학을 다녀온 귀국청소년이 적응의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부모가 희생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긍정적인 발달 양상을 보였다.

-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관계 속에서의 외로움을 경험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심리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지원 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귀국청소년은 조기유학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외국 체류 경험이 반드시 위험한 것 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제언

- 귀국청소년의 외국 수학 경험을 국내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조기유학에 대한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조기유학과 관련된 자료를 사교육기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영어습득을 이유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국내 영어 교육의 방향을 수정하고 영어 학습 관련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귀국학급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귀국청소년의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귀국학급을 확대하고, 한국의 교육제도에 적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과 교육과정 상의 문제를 감안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조기유학 후 진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기유학의 경험이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 자산이 되도록 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 내용	5
1) 조기유학/귀국 동기와 조기유학과 관련된 요인 탐구	5
2) 귀국청소년의 가족생활	6
3) 귀국청소년의 학교적응	6
4)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적 사고방식, 이문화 수용도	7
5)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	7
6) 귀국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7
3. 연구 방법	8
1) 문헌연구	8
2) 설문조사	9
3) 전문가 자문	9
II. 문헌 연구	11
1. 귀국청소년에 대한 정의	13
2. 귀국청소년 현황	14
3. 귀국청소년의 적응	19
1) 부모-자녀 관계	19
2) 학교생활	21
3) 한국적 자긍심, 한국적 사고방식, 이문화 경험	25
4) 심리적인 부적응	27
III. 연구방법 및 결과분석	29
1. 조사 개요	31
1) 조사 대상	31

2) 설문지 구성	34
3) 분석 방법	36
2. 결과 분석	37
1) 기본사항에 대한 분석	37
2) 부모-자녀 관계	73
3) 학교 생활	87
4)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적 사고방식, 이문화 수용도	129
5) 심리정서 발달	136
6) 기타 사항	151
IV. 결론 및 정책제언	171
1. 결론	173
2. 정책제언	182
V. 참고문헌	189
부 록	195

표 목차

<표 II-1> 연도별 학교급별 귀국 현황(2001-2008년도)	15
<표 II-2> 연도별·국가별 귀국 현황	16
<표 II-3> 2008학년도 체류기간별 귀국 현황	17
<표 II-4> 2008학년도 국가별 귀국 현황	18
<표 II-5> 귀국학생 특별학급 현황	23
<표 III-1> 귀국 청소년 표본 추출	32
<표 III-2> 귀국(일반)청소년 분포-학교급별	33
<표 III-3> 귀국(일반)청소년 분포 - 학교소재지별	34
<표 III-4> 조사 항목	36
<표 III-5> 유학 국가(귀국청소년)	38
<표 III-6> 부모 직업(귀국청소년)	38
<표 III-7> 부모 직업(일반청소년)	39
<표 III-8> 아버지 직업	40
<표 III-9> 어머니 직업	40
<표 III-10> 현재 동거인	41
<표 III-11> 아버지 학력	42
<표 III-12> 어머니 학력	43
<표 III-13> 가정 경제수준	44
<표 III-14>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45
<표 III-15> 출국시기와 귀국시기	46
<표 III-16> 학교급에 따른 출국시기	46
<표 III-17> 조기유학 기간	47
<표 III-18> 조기유학 기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48
<표 III-19> 조기유학 기간에 대한 변량분석(아버지 학력)	48
<표 III-20> 조기유학 기간에 대한 변량분석(어머니 학력)	49
<표 III-21> 조기유학 기간에 대한 변량분석(아버지 직업)	49
<표 III-22> 조기유학 기간에 대한 변량분석(어머니 직업)	49

<표 III-23> 학교급에 따른 유학국가	50
<표 III-24> 아버지 학력과 유학국가	51
<표 III-25> 어머니 학력과 유학국가	52
<표 III-26> 아버지 직업과 유학국가	53
<표 III-27> 어머니 직업과 유학국가	54
<표 III-28> 가정경제수준과 유학국가	55
<표 III-29> 출국시기와 유학국가	56
<표 III-30> 유학기간과 유학국가	57
<표 III-31> 유학의향	58
<표 III-32> 유학의향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59
<표 III-33> 유학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60
<표 III-34> 유학동기	61
<표 III-35> 출국시기와 유학동기	62
<표 III-36> 유학기간과 유학동기	64
<표 III-37> 유학국가와 유학동기	65
<표 III-38> 유학 중 거처	66
<표 III-39> 유학 중 동거인	67
<표 III-40> 귀국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67
<표 III-41> 귀국의향	68
<표 III-42> 귀국의향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69
<표 III-43> 귀국동기	70
<표 III-44> 아버지와의 관계 변화- 유학 전·중·후 비교	74
<표 III-45> 아버지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74
<표 III-46> 어머니와의 관계 변화- 유학 전·중·후 비교	75
<표 III-47> 어머니와의 관계변화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76
<표 III-48> 형제자매와의 관계 변화- 유학 전·중·후 비교	76
<표 III-49> 형제자매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변량분석 (학교급, 성별)	77
<표 III-50> 아버지(어머니)와의 관계-요인분석	79
<표 III-51> 희생적 아버지	80

<표 III-52> 희생적 아버지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80
<표 III-53> 아버지-자녀동일시	81
<표 III-54> 아버지-자녀동일시에 대한 변량분석 (학교급, 유학여부)	82
<표 III-55> 희생적 어머니	83
<표 III-56> 희생적 어머니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83
<표 III-57> 어머니-자녀동일시	84
<표 III-58> 어머니-자녀동일시에 대한 변량분석 (학교급, 유학여부)	85
<표 III-59> 국어흥미도	88
<표 III-60> 국어흥미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88
<표 III-61> 수학흥미도	89
<표 III-62> 수학흥미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89
<표 III-63> 사회흥미도	90
<표 III-64> 사회흥미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91
<표 III-65> 영어흥미도	92
<표 III-66> 영어흥미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92
<표 III-67> 영어흥미도(성별)	93
<표 III-68> 영어흥미도에 대한 변량분석(성별, 유학여부)	94
<표 III-69> 과학흥미도	95
<표 III-70> 과학흥미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95
<표 III-71> 국어이해도	96
<표 III-72> 국어이해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97
<표 III-73> 수학이해도	98
<표 III-74> 수학이해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98
<표 III-75> 사회이해도	99
<표 III-76> 사회이해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100
<표 III-77> 영어이해도	101
<표 III-78> 영어이해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101
<표 III-79> 과학이해도	102

<표 III-80> 과학이해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103
<표 III-81> 귀국청소년의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104
<표 III-82> 과목별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의 상관관계 (귀국청소년)	107
<표 III-83> 성별에 따른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에 대한 t검증 (귀국청소년)	108
<표 III-84> 유학여부에 따른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에 대한 t검증	109
<표 III-85> 유학나간 시기에 따른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에 대한 변량분석	110
<표 III-86> 유학기간, 귀국 후 국내 거주기간, 수업흥미도, 수업이해도 간의 상관관계	114
<표 III-87> 유학국가에 따른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 대한 변량분석	114
<표 III-88> 한국어교재 사용여부에 따른 수업 흥미도와 수업 이해도에 대한 t검증(귀국청소년)	117
<표 III-89> 사교육 여부에 따른 수업 흥미도와 수업 이해도에 대한 t검증(귀국청소년)	118
<표 III-90> 유학의향, 귀국의향, 수업흥미도, 수업이해도의 간의 상관관계	119
<표 III-91> 사교육 여부	119
<표 III-92> 사교육 유형	120
<표 III-93> 유학여부에 따른 사교육과목	121
<표 III-94> 학교급에 따른 사교육과목	122
<표 III-95> 학업 스트레스	123
<표 III-96>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124
<표 III-97> 친구관계	125
<표 III-98> 친구관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125
<표 III-99> 교사관계	126

<표 III-100> 교사관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127
<표 III-101>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130
<표 III-102>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변량분석 (학교급, 유학여부)	130
<표 III-103> 한국적 사고방식	131
<표 III-104> 한국적 사고방식에 대한 변량분석 (학교급, 유학여부)	132
<표 III-105> 이문화 태도	133
<표 III-106> 이문화 태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133
<표 III-107> 귀국청소년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적 사고방식, 이문화 태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134
<표 III-108> 심리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37
<표 III-109> 열등감	137
<표 III-110> 열등감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138
<표 III-111> 불안	139
<표 III-112> 불안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139
<표 III-113> 우울	140
<표 III-114> 우울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141
<표 III-115> 자아존중감	142
<표 III-116>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142
<표 III-117> 문제행동	143
<표 III-118> 문제행동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143
<표 III-119>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발달에 대한 변량분석 (학교급)	144
<표 III-120>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발달에 대한 변량분석 (유학나간 시기)	146
<표 III-121> 유학기간과 심리정서 발달 변인 간의 상관관계	147
<표 III-122>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정서 발달 변인 간의 상관관계 (귀국청소년)	148
<표 III-123> 친구관계, 교사관계, 심리정서 발달 변인 간의	

상관관계(귀국청소년)	148
<표 III-124> 심리정서 발달 변인, 수업 흥미도, 수업 이해도 간의 상관관계(귀국청소년)	149
<표 III-125> 유학 중 한국어 교재 학습	151
<표 III-126> 유학 중 한국어 교재 학습과목	152
<표 III-127> 귀국청소년의 향후 진학 희망 학교(초등학생)	154
<표 III-128> 유학기간에 따른 향후 진학 계획(초등학생)	154
<표 III-129> 향후 계획	155
<표 III-130> 학교급에 따른 향후 계획	157
<표 III-131> 성별에 따른 향후 계획	160
<표 III-132> 향후 유학을 가려는 이유	161
<표 III-133> 유학으로 인한 변화(귀국청소년)	162
<표 III-134> 조기유학 만족도	163
<표 III-135> 조기유학 만족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163
<표 III-136>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164
<표 III-137>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에 대한 변량분석 (학교급, 성별)	165
<표 III-138> 유학추천 의사	166
<표 III-139> 유학추천 의사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166
<표 III-140> 유학 기간, 유학 후 국내거주기간, 유학만족도,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유학추천의사 간의 상관관계	167
<표 III-141> 유학국가에 따른 유학만족도,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유학추천의사에 대한 변량분석	168
<표 III-142> 유학의향, 귀국의향, 유학만족도,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유학추천의사 간의 상관관계	168

그림 목차

[그림 I-1] 2차년도 연구 계획 및 내용	8
[그림 II-1] 연도별 학교급별 귀국현황	15
[그림 II-2] 연도별 국가별 귀국현황	16
[그림 II-3] 2008학년도 체류기간별 귀국현황	17
[그림 II-4] 2008학년도 국가별 귀국현황	18
[그림 III-1] 아버지 학력	42
[그림 III-2] 어머니 학력	43
[그림 III-3] 가정경제수준	45
[그림 III-4] 아버지 학력과 유학국가	51
[그림 III-5] 어머니 학력과 유학국가	52
[그림 III-6] 아버지 직업과 유학국가	53
[그림 III-7] 어머니 직업과 유학국가	54
[그림 III-8] 가정경제수준과 유학국가	55
[그림 III-9] 출국시기와 유학국가	56
[그림 III-10] 유학기간과 유학국가	57
[그림 III-11] 유학의향	59
[그림 III-12] 귀국의향	69
[그림 III-13] 아버지와와의 관계	75
[그림 III-14] 형제자매와의 관계	77
[그림 III-15]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변화 종합	78
[그림 III-16] 희생적 아버지	81
[그림 III-17] 아버지-자녀동일시	82
[그림 III-18] 희생적 어머니	84
[그림 III-19] 어머니-자녀동일시	85
[그림 III-20] 귀국청소년 부모자녀관계	86
[그림 III-21] 수학흥미도	90
[그림 III-22] 사회흥미도	91
[그림 III-23] 영어흥미도	93

[그림 III-24]	영어흥미도	94
[그림 III-25]	과학흥미도	96
[그림 III-26]	국어이해도	97
[그림 III-27]	수학이해도	99
[그림 III-28]	사회이해도	100
[그림 III-29]	영어이해도	102
[그림 III-30]	과학이해도	103
[그림 III-31]	수업흥미도	106
[그림 III-32]	수업이해도	106
[그림 III-33]	수업흥미도	113
[그림 III-34]	수업이해도	113
[그림 III-35]	학업스트레스	124
[그림 III-36]	친구관계	126
[그림 III-37]	교사관계	127
[그림 III-38]	자긍심	131
[그림 III-39]	한국적 사고	132
[그림 III-40]	귀국청소년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적 사고방식, 이문화태도	135
[그림 III-41]	열등감	138
[그림 III-42]	불안	140
[그림 III-43]	우울	141
[그림 III-44]	심리정서발달	145
[그림 III-45]	유학 중 한국어교재학습	152
[그림 III-46]	유학 중 한국어교재 학습과목	153
[그림 III-47]	향후계획	156
[그림 III-48]	초등학교 향후계획	158
[그림 III-49]	중학교 향후계획	158
[그림 III-50]	고등학교 향후계획	159
[그림 III-51]	조기유학 만족도	164
[그림 III-52]	다시유학가고 싶은 의사	165
[그림 III-53]	유학추천의사	167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조기유학 청소년은 귀국청소년의 증가라는 현상을 불러왔다. 일정기간 외국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진행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귀국청소년은 조기유학생의 급증과 맞물리며 그 수를 더해가고 있다. 2008년 현재 귀국청소년은 22,263명이며 그 중에서 초등학생이 13,845명으로 약 62%에 해당하고 있다. 2008년도 까지 집계된 귀국청소년이 10만 명을 넘고 있고,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규 교육과정에 투입되면서, 귀국청소년의 적응 문제 또한 교육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조삼섭, 2006).

성장의 속도가 빠른 청소년기에 외국의 문화와 교육을 경험 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조기유학 나 가 있는 동안에는 현지의 교육시스템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했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가 성장하고 경험했던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삶의 터전을 옮겨 다니는 것과 관련된 적응 상의 문제는 지혜롭게 극복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부적응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가족이 합치면서 나타나는 변화나 친구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이질감은 청소년의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과 교육환경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며, 언어가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던 방식이 귀국 후에는 오히려 적응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강란혜, 2001; 김상희, 2001; 김창호, 2002; 박규리 외, 2008) 주로 그들이 경험한 부적응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귀국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에서의 부적응,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부적응, 교우관계에서의 부적응, 가정에서의 부적응(조삼섭 외,

2006)등 한국학생이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다루고 있다. 귀국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복귀문화충격(reverse culture-shock, Abe & Wiseman, 1983, 강란혜, 2001에서 재인용)은 처음 외국에 나가서 겪는 문화충격보다 더 큰 심리적·사회적 적응 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귀국청소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소화해내고 극복한다면 개인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조기유학을 다녀왔던 국가의 제도적인 측면이나 생활방식을 한국의 그것과 단순 비교하면서 부적응의 문제를 경험한다면 조기유학은 청소년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귀국청소년의 국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2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에 귀국자녀반 개설을 시작하였고(김창호, 2002), 2010년 현재 18개의 학교에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귀국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매해 귀국하는 학생이 2만 명을 넘어서는 현 시점에서는 (2007년 20,277명; 2008년 22,263명) 귀국 후 아무런 적응기간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공교육 현장으로 들어가는 청소년이 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귀국아동의 92.5%가 기회가 되면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결과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나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현지에 살면서 경험했던 어려움에 더하여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경험하는 문제는 귀국청소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정 기간 외국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귀국청소년은 이중으로 적응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조기유학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귀국청소년도 증가하고 있고, 귀국 후 적응에 실패하고 다시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도 종종 보고되고 있는 상황은 귀국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기에 앞서 이들에 대한 기초 자료의 획득과 분석은 더 이상 게을리 할 수 없는 연구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귀국 후에 한국에서 새롭게 적응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귀국청소년이 한국의 현행 교육시스템에 잘 적응해 나가고 교사 및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가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청소년 지원 정책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귀국청소년이 어떤 부분에 적응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귀국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적응의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해보고, 귀국청소년의 적응을 촉진 혹은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냄으로써 귀국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귀국청소년이 조기유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귀국을 선택한 이유, 조기유학과 귀국을 결정하는데 관련된 제반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다. 두 번째는 조기유학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와 귀국청소년의 가족 관계 양상에 대한 분석이다. 세 번째는 귀국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분석이고, 네 번째는 조기유학 경험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이문화에 대한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각 연구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기술되어 있다.

1) 조기유학/귀국 동기와 조기유학과 관련된 요인 탐구

귀국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분석에 앞서 조기유학을 선택한 동기와 귀국하게 된 동기, 조기유학 국가, 조기유학 기간, 조기유학에 대한 결정과 귀국할 것에 대한 결정 등 조기유학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다른 변인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2) 귀국청소년의 가족 생활

조기유학으로 인해 가족 관계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학 전·중·후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와의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귀국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을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조기유학은 부모의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부모와 함께 외국에 살던 부모와 떨어져 외국에 살던, 혹은 형제자매와 떨어져 살던 함께 살던, 청소년 자녀의 조기유학은 가족 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가족 관계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3) 귀국청소년의 학교적응

귀국청소년의 학교 생활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귀국청소년이 학교친구 및 담임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귀국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중요한 변수는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와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한국의 수업진행 방식은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비록 조기유학을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후에 다시 한국의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업 진행 방식은 교과목에 대한 흥미 및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수업진행 방식이 다른 외국에서 학교생활을 한 후 한국의 학교 수업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때, 학습 결손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여 귀국청소년이 어떤 과목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과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귀국청소년의 학교 적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귀국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지수도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4)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적 사고방식, 이문화 수용도

정체성이라는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에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에서의 생활이 한국인을 더 한국인답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한국인으로서의 색채를 흐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귀국청소년의 조기유학 경험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조기유학 하는 동안 서양식 사고방식에 익숙해지면서 한국식 사고방식이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반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적 사고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이문화에 대한 수용도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도 살펴보았다.

5)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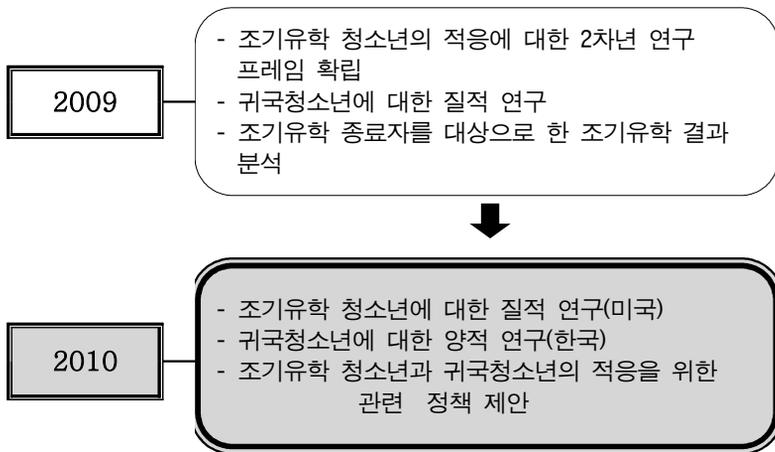
귀국청소년이 한국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거나, 교과내용을 따라갈 수 없을 때,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친구관계나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열등감이나 불안, 우울, 자기존중감 등과 같은 정신건강 변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발달 양상을 살펴보았다.

6) 귀국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위에 열거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귀국청소년이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며, 조기유학의 경험이 개인과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조기유학 청소년에 대한 2차년도 연구의 마지막 연도에 해당한다. 1차년도인 2009년에는 귀국청소년과 조기유학을 종료한 성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년도인 2010년에는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조기유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의 내용은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1] 2차년도 연구 계획 및 내용

1) 문헌연구

귀국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책보고서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의 내용을 위하여 귀국청소년의 국내 적응과 관련된 문헌을 최대한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학위논문과 학술지 발표 원고, 인터넷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귀국청소년의 적응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였다.

2) 설문조사

귀국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은, 1차 연도에 실시한 귀국청소년 대상 면담조사 결과와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주요 변인을 포함시켰다. 귀국청소년의 적응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는 먼저 귀국청소년의 인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여기에 더하여 조기유학을 선택한 동기와 귀국하게 된 동기, 조기유학 후 달라진 점, 조기유학 만족도, 귀국 후 진로계획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귀국 후에 학교에서 경험하는 적응 상의 문제에 대한 설문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설문, 친구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관한 측면과 관련하여 심리적 부적응과 행동 상의 문제를 질문하고, 조기유학 경험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한국적 사고방식,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설문 내용에 포함시켰다.

3) 전문가 자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연구보고서에서 다루어야 될지에 대한 정책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과 관련하여 발달전문가 및 방법론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설문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설문 내용을 분석하는 프레임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문헌 연구

1. 귀국청소년에 대한 정의
2. 귀국청소년 현황
3. 귀국청소년의 적응

II. 문헌 연구

1. 귀국청소년에 대한 정의

귀국청소년은 귀국학생(윤미라, 2006; 이운선, 2002), 귀국아동(권효숙, 2003), 귀국자녀(강관혜, 이장영, 2005; 권선미, 1997), 해외귀국청소년(고유미, 2006; 김혜순, 2009; 이종승, 2008; 전동일, 2003; 정재욱, 주은선, 2003) 등 다양한 어구로 표현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외국에서 일정기간 체류한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한 청소년을 지칭하고 있다. 이장영(1997)은 “부모가 한국인이거나 부모 중 한 쪽이 한국인인 경우 자녀가 한국인으로서의 의식이 뚜렷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연령으로 외국에 가서 1년 이상을 학교에 다니다가 귀국해서 한국의 주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아이들”로 정의하고 있고, 이종승(2008)은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다가 귀국하여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중·고등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권선미(1997)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에 체류했다가 귀국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자녀”를 귀국자녀 또는 해외귀국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이종승(2008)과 권선미(1997)의 정의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한 후 귀국한 경우를 지칭하고 있지만, 체류만 했지 반드시 현지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했어야 한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전동일(2003)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에서 최소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체류국의 교육기관에서 언어, 문화의 경험을 쌓은 14세에서 19세까지의 중·고등학생”을 해외귀국청소년이라 정의함으로써, 외국의 교육기간에서 수학했어야 함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수학했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해외에서 체류한 후 귀국한 경우보다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후 귀국하여 한국의 교육제도 안으로 다시 복귀한 경우를 귀국청소년으로 보고자 한다. 귀국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외국 학교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귀국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자 한다: “외국에 체류하면서 현지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식으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귀국 후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청소년.”

2. 귀국청소년 현황

조기유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귀국청소년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조기유학생과 마찬가지로 귀국청소년의 경우도 초등학생이 많이 귀국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1]). 2008년 현재 귀국청소년 22,263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13,845명으로 절반을 넘고 있다. 초등학생이 조기유학을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귀국하는 사례수도 많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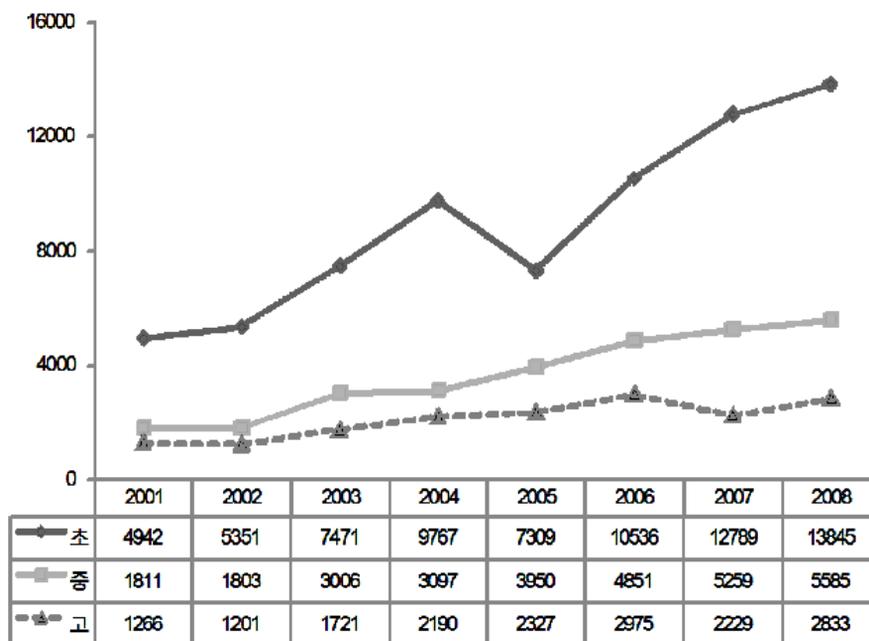
국가별 귀국통계를 살펴보면 영어권(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경우가 전체 귀국청소년의 약54%를 차지한다(<표 II-2>). 2008학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체류기간별 귀국현황을 살펴보면, 2년 미만 동안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경우가 70.0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5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하는 경우는 6.72%인 것을 알 수 있다(<표 II-3>). 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수록 귀국하는 경우는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조기유학을 떠날 때 단기간을 목표로 두고 떠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체류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I-1> 연도별 학교급별 귀국 현황(2001-2008년도)

(단위 : 명)

학년도	귀국학생 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1	4,942	1,811	1,266	8,019
2002	5,351	1,803	1,201	8,355
2003	7,471	3,006	1,721	12,198
2004	9,767	3,097	2,190	14,693
2005	7,309	3,950	2,327	13,586
2006	10,536	4,851	2,975	18,362
2007	12,789	5,259	2,229	20,277
2008	13,845	5,585	2,833	22,26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9), 교육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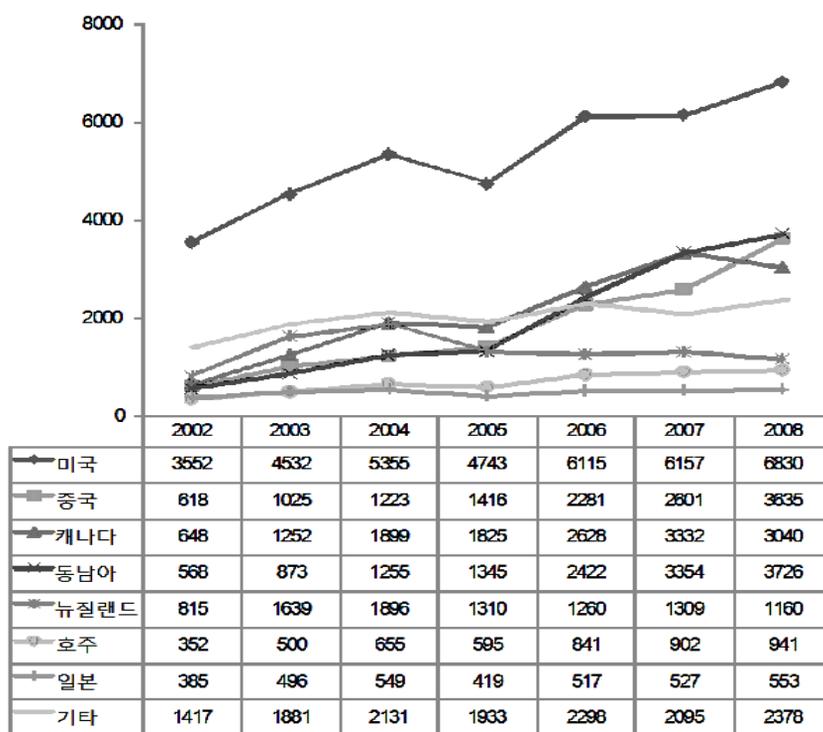
[그림 II-1] 연도별 학교급별 귀국현황

<표 II-2> 연도별·국가별 귀국 현황

(단위 : 명)

학년도	미국	중국	캐나다	동남아	뉴질랜드	호주	일본	기타	합계
2002	3,552	618	648	568	815	352	385	1,417	8,355
2003	4,532	1,025	1,252	873	1,639	500	496	1,881	12,198
2004	5,355	1,223	1,899	1,255	1,896	655	549	2,131	14,963
2005	4,743	1,416	1,825	1,345	1,310	595	419	1,933	13,586
2006	6,115	2,281	2,628	2,422	1,260	841	517	2,298	18,362
2007	6,157	2,601	3,332	3,354	1,309	902	527	2,095	20,277
2008	6,830	3,635	3,040	3,726	1,160	941	553	2,378	22,26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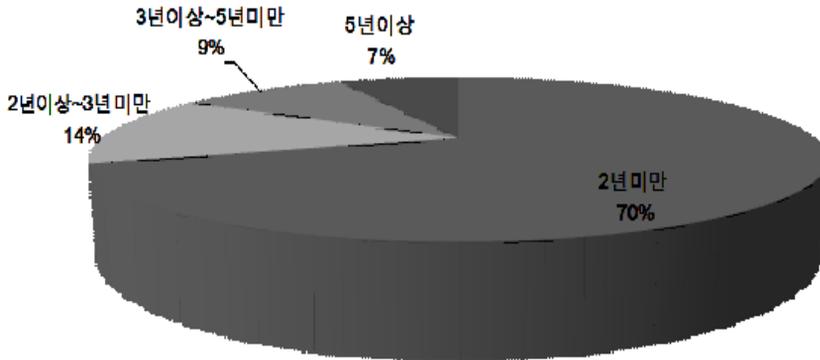


[그림 II-2] 연도별 국가별 귀국현황

<표 II-3> 2008학년도 체류기간별 귀국 현황

구 분	계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인원(명)	22,263	15,591	3,060	2,116	1,496
백분율(%)	100.00	70.03	13.74	9.50	6.7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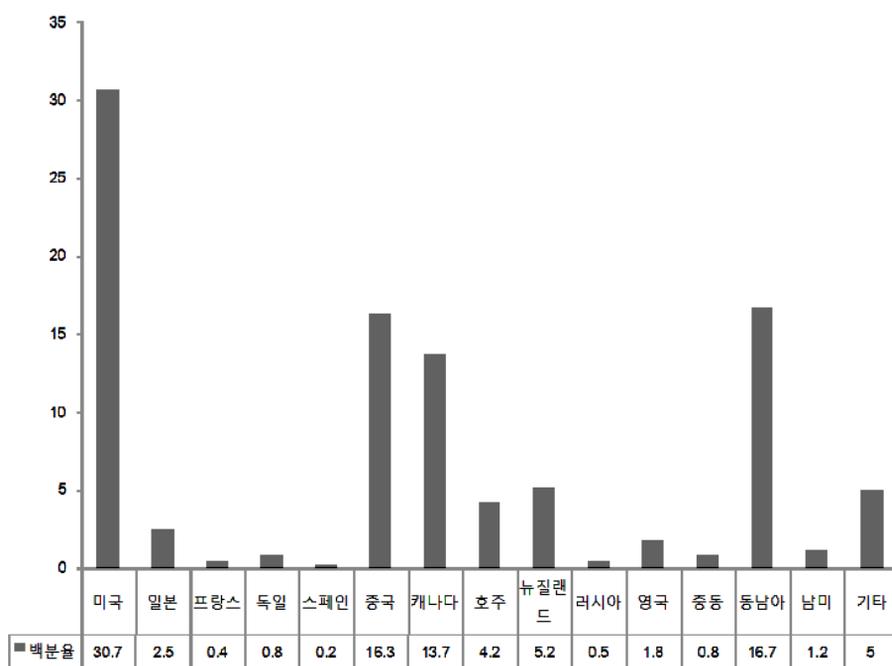


[그림 II-3] 2008학년도 체류기간별 귀국현황

<표 II-4> 2008학년도 국가별 귀국 현황

구 분	계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중국	캐나다
인원(명)	22,263	6,830	553	91	179	43	3,635	3,040
백분율(%)	100.0	30.7	2.5	0.4	0.8	0.2	16.3	13.7
구 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중동	동남아	남미	기타
인원(명)	941	1,160	113	396	167	3,726	265	1,124
백분율(%)	4.2	5.2	0.5	1.8	0.8	16.7	1.2	5.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DB.



[그림 II-4] 2008학년도 국가별 귀국현황

3. 귀국청소년의 적응

1) 부모-자녀 관계

학령기는 부모-자녀 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부모와 나누는 대화의 질과 부모로부터 느끼는 정서적 지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밑거름이 된다. 한국의 독특한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 교육에 대한 신념과 관련이 된다. 부모민족지이론(parental ethnotheories)은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와 아동이 속한 문화가 공유하고 있는 신념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고 부모-자녀 관계의 모델이 문화에서 유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Harkness & Super, 2006).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해는 문화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부모민족지이론은, 한국의 독특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가족중심적인 문화는, 부모와 자녀가 일심동체라는 의식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최상진, 2000), 자녀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고, 자녀의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이 된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은 자녀의 성공을 부모의 성공으로 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귀국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자녀가 조기유학이라는 여정을 선택하도록 독려한 부모들은 철저한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불편을 무릅쓰고 자녀를 위한 장기분거 형태라는 생활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전에 해외에 유학을 나간 자녀들은 서양식 사고체계를 학습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김영희 외, 2005). 더군다나 청소년기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가치관의 혼동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냉철한 사고를 근거로 한 판단이 미숙한 시기이므로, 자신이 외국에서 보고 배운 것, 살면서 느끼는 것이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녀들은 이미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의 문화와 가치를 몸에 익혔지만, 인생의 성장기를 한국에서 보낸 부모들은 한국적 가치관

으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게 된다.

귀국청소년이 외국에서 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동화되어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똑같은 사고방식과 문제해결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김현주, 2007). 조기유학 시 부모가 자녀와 동행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같이 적응의 문제를 경험해 보았고, 자녀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왔는지를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으나, 자녀만 조기유학을 보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재회한 경우는 그동안 서로 변해버린 사고방식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서구의 사회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데 비해, 한국은 아직도 부모가 권위 있는 존재이고 연장자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유교사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자녀 사이에는 가치관의 갈등을 경험하게 될 소지가 있다(곽영호, 1998).

귀국청소년과 부모 사이의 독특한 관계 양상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는 생각과, 이것을 보상받고자하는 무의식적인 자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의 결과 사이에서 나타나는 메카니즘이 작용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가족의 많은 부분을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오히려 압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윤미라, 2006) 이것이 귀국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하여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는 것과, 그 희생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학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은 청소년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귀국청소년이 한국의 학업 상황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많기 때문에, 귀국청소년이 부모가 원하는 수준으로 공부를 잘 하지 못할 때 부모는 귀국이라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기도 한다. 부모가 자기를 위해 희생했다는 일종의 강박관념(박영숙 외, 2002)이 있는 상태에서, 귀국청소년이 만약 자신의 부적응의 문제를 부모의 선택으로 원하지 않던 조기유학을 하게 되었

기 때문이라고 귀인 시킨다면 귀국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는 더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귀국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가 일반청소년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귀국청소년의 가족 상황을 살펴볼게 될 것이다.

2) 학교생활

귀국청소년이 경험하는 적응의 문제 중에 학업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복자(1998)의 조사에 따르면 귀국학생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부(40.9%), 학교적응(17.4%), 문화차이 (14.2%), 한국인의 행동(9.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생은 이미 한국에서 재학하던 시절에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기는 했지만, 귀국하여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는 또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귀국청소년의 가장 큰 학업 부적응의 이유는 한국어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최만희, 1993). 조기유학으로 현지의 언어는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한동안 한국어에 대한 노출이 적은 관계로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어에 대한 낮은 이해력은 국어교과 뿐만이 아니라 수학과 사회, 과학 교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의 저하는 학업수행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귀국청소년이 일정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의 학습상황에 재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귀국학급의 경우(<표Ⅱ-5>), 초등학교 15개교 34학급, 중학교 3개교 3학급으로 귀국청소년의 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고등학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강란혜와 이장영(2005)에 따르면 귀국청소년의 약 5.8%만이 국내의 귀국자녀반에서 적응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으므로, 나머지 대다수의 귀국청소년은 완충기간이 없이 바로 일반학급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외국의 학교와 진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교과를 따라

가는 것이 어렵고, 잦은 시험으로 인해 심적 스트레스(정재욱, 주은선, 2003)를 겪는 과정은 귀국청소년의 적응을 방해하게 된다. 한국은 시험성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특목고나 자사고, 일류대학과 같은 소위 좋은 학교라고 일컬어지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교육상황은 귀국청소년의 부적응과 연결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귀국청소년이 경험하는 또 다른 문제는 영어교육과 관련이 된다. 효율적으로 영어를 익히기 위하여 조기유학을 갔다 온 귀국청소년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못하는 과목이 영어라는 연구결과(최양호, 최명숙, 1985)는 뜻밖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교과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영어 수업은 귀국청소년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국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결국 귀국청소년은 자신이 습득한 영어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귀국학생의 증가는 일반 학급의 영어 실력 격차를 벌려놓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의 영어 수업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학업의 문제와 함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도 귀국청소년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귀국청소년이 교사 및 친구에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청소년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가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조기유학생은 국내학생들이 갖지 못한 해외경험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국내 학생들은 그들을 어정쩡한 한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교사나 또래집단의 편치 않은 시각으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이윤선, 2003). 귀국 후 적응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친구’라는 연구결과(정재욱, 주은선, 2003)는 귀국청소년의 적응에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리고 있다. 조기유학생이 현지에서는 학교 측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친구를 붙여주었기 때문에 적응과정에 도움을 받았는데(정재욱, 주은선, 2003), 귀국해서는 이러한 도우미 친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일반 청소년과 교우관

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표 11-5> 귀국학생 특별학급 현황

구분	시·도	학교 명	학급 수	학생 수(명)
초등	서울	서울고대부속초	3	29
		당현초	2	17
		목원초	2	20
		서울사대부설초	6	56
		신천초	3	28
	부산	낙동초	1	7
		양정초	1	6
		와석초	1	7
		금양초	1	11
		광남초	3	23
	대전	대덕초	3	73
		전민초	2	35
		안양 호원초	2	36
	경기	부천 상도초	2	32
		고양 금계초	2	38
합계	15교	34	418	
중등	서울	덕수중	1	14
		언주중	1	13
	대전	대덕중	1	10
	합계	3교	3	37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2007). **조기유학바로알기**.

귀국청소년이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일반 청소년들이 귀국청소년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전동일, 2003).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선진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질투심과, 학교 수업시간 특히 영어시간에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으로 영어문장을 읽거나 같은 귀국청소년들끼리 영어로 대화 할 때 느끼는 상대적 열등감은, 일반청소년으로 하여금 귀국청소년에 대한 시선을 곱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귀국청소년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놀이도 같이 하며 마음속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진솔한 친구를 원하게 된다(정재옥, 주은선, 2003). 조기유학 시 경험했던 외국에서의 외로움을 자신의 모국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면,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인한 정서적인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귀국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또 한 사람은 교사이다. 한국의 교육상황에 낯설어할 때 적극적으로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의 따뜻한 배려는 귀국청소년의 적응의 속도를 가속화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에서(정재옥, 주은선, 2003), 귀국청소년이 바라는 교사는 두드러진 관심과 배려보다는 자신에게 친근하게 잘 대해주는 교사, 권위적인 교사보다는 친절하고 자신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주는 교사를 바라고 있음이 나타났다. 외국에서 조기유학 하던 시절에 자신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던 친절한 교사상을 한국에서도 기대하는 것이다. 비록 같은 학년의 친구들은 자신을 놀리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사만큼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귀국청소년이 외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교사의 거부반응은, 이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폭넓은 이해와 인내심이 필요하게 된다.

귀국청소년을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귀국청소년의 국어이해의 부족이 53.9%, 적응력 부족이 18.7%, 교우관계 부적응이 15.8%로 나타남으로써(최양호, 최명숙, 1985), 귀국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언어의 문제가 교사와 관계를 순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언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교사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없게 되고, 자신이 지닌 문제상황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의 문제는 깊어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귀국청소년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학교 수업 현장에서의 교과내용 이해도와 흥미도, 교사와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 모습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3) 한국적 자긍심, 한국적 사고방식, 이문화 경험

청소년기에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현지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자신의 걸 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안에 담긴 내용은 이미 많이 변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미 획득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한국의 방식과 부딪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귀국청소년은 역문화충격에 빠지게 된다. 즉 귀국청소년은 두 번의 혼란기를 경험하게 된다(박경애, 이호준, 김택호, 1995).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이 주류문화에 속하지 않는 주변인이라는 경험을 두 번 하게 되는 것은 민감한 청소년기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군다나 귀국한 후에는 예전의 친구와 가족 친지들은 변한 것이 없는데 자신만 바뀌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사고해야 되는지 혼동을 경험하게 된다. 귀국한 후에는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외부의 압력을 받게 되고, 서투른 한국말에 대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야 자신이 현지국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의식하게 되는 가치관의 혼동은 일탈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윤미라, 2006). 역문화충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류 그룹에서 벗겨나 있다는 의식은 열등감, 사회적 고립감,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상태(김현주, 2007)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귀국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 충격은 한국의 학교 문화가 자신들이 경

힘했던 외국의 학교문화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이윤선(2002)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욕과 교사의 잦은 처벌,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한 친구와 교사의 부정적인 반응, 예의 없는 친구의 행동 등 외국에서 경험했던 학교문화와 질적으로 다른 환경이 귀국청소년에게는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

귀국청소년의 해외 체류 경험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의 개성과 독특함을 인정하는 서구의 개인주의와, 집단 규범을 지키고 질서와 위계를 강조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가치체계보다는 선진국의 가치체계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속한 민족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기도 한다(김현주, 2007). 한국의 문화와 가치체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이 경험한 서구의 가치관이 되면서 한국의 문화는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외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이 한국인임을 더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연구도 있다. 캐나다의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명혜(2006)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한국 가족들은 한국에서 살 때보다 더 한국적으로 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주류사회로 깊숙이 들어가려는 노력 보다는 한인 커뮤니티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로 변한다’는 말처럼, 조기유학생이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한국인임을 더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외국에서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은 그 영향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청소년의 삶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유학의 경험이 청소년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한국적 사고방식,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능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심리적인 부적응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귀국청소년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은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심한 좌절감과 부적응 현상으로 발전하게 된다(이종승, 2008). 외국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돌아온 후 귀국청소년은 국외에서 체득한 문화와 생활양식이 오히려 한국에서는 적응의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언어상의 문제, 일반아동의 폐쇄적인 태도, 기본 생활문화의 차이 등으로 따돌림과 놀림의 대상이 되어 심리적인 부적응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경우(권선미, 1997) 일정 기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도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에는 귀국청소년이 해외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강란혜(2001)는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한 92.5%의 귀국청소년이 기회가 되면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귀국청소년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정신건강 상의 문제에 대한 진단은 미비한 상태이다. 부모의 과도한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 부모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산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따라가기 벅찬 교과 진도, 친구들로부터 소외된다는 느낌, 교사의 세심한 배려 부족에 대한 불만 등과 같이 귀국청소년이 당면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이들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 2008년도까지 누적 귀국청소년 인구가 10만 명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해본다면(<표Ⅱ-2>), 귀국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귀국청소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심리적인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소화해낼 수 있는 완충 기제의 활성화,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 타인의 생각을 포용하는 능력,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등과 같은 심리적인 자산을 획득하는 것은 청소년기를 넘어 건강한 성인기를 보낼 수 있는 자원이 된다. 이러한 취지아래 본 연구는 귀국청소년의 적응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보고, 귀국청소년의 발달결과가 본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게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2. 결과 분석

III. 연구방법 및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의 발달 양상이 다르고, 조기유학을 경험한 시기도 다르며, 귀국 후 경험한 맥락이 다를 것을 가정하여, 표집에 학교급별을 고려하였다. 귀국청소년에 대한 비교집단으로서 일반청소년에 대한 표집도 실시하였고, 귀국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비율로 초·중·고등학생을 표집 하였다. 귀국청소년 표집은 귀국청소년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 표본을 추출하였다¹⁾. 귀국청소년의 경우 일반 학급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눈덩이 표집의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2008년 현재 귀국청소년은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표 II-1>), 초등학생이 62%(13,845명), 중학생이 25%(5,585명), 고등학생이 13%(2,833명)이다. 이러한 비율을 고려하면 표본의 비율도 6:3:1의 비율이 맞겠지만, 초등학교보다는 중등학교 때가 적응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중등학생 표본을 더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중등단계는 교과목의 수도 많고, 대학 수능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초등학생보다는 학업관련 적응의 문제를 더 깊고 넓게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표집 비율을 1:1:1로 결정하고 각 집단에 100명씩의 표본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1) 2008년 현재 시도별 귀국 청소년 현황(한국교육개발원, 2009)에 따르면 총 인원 22,263명 중에, 서울(8,874명, 39.9%), 경기(7,103명, 31.9%) 이 2 지역에 약 72%의 귀국 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귀국 청소년 표본 추출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귀국청소년
표집틀	•없음
표본수(계획)	•귀국청소년 300명(초등학생 100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00명)
표집방법	•귀국학급, 국제학교, 특목고 등에 재학하고 있는 귀국청소년과 서울/경기 지역의 일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

조사 대상자의 학년별, 성별 분포는 <표 III-2>에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생은 6학년에서 대부분 표집 되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 표집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르게 표집 되었다. 남녀의 비율은,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이 약간 많게 표집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귀국청소년을 학교소재지 별로 살펴보면(<표 III-3>)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와 성남시 소재의 학교가 그 다음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대부분(귀국청소년 100명 중 77명, 일반청소년 102명 중 81명)이 서울지역의 학교에서 표본이 추출되었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양과 성남에서 대부분(귀국청소년 104명 중 98명, 일반청소년 116명 중 109명)의 표본이 추출되었다.

<표 III-2> 귀국/일반 청소년 분포-학교급별

단위: 명

		남 자		여 자		전 체	
		귀국	일반	귀국	일반	귀국	일반
초등학교	2학년	2	1	1	2	3	3
	3학년	1	3	4	2	5	5
	4학년	8	3	2	9	10	12
	5학년	3	4	9	7	12	11
	6학년	45	34	25	37	70	71
	합계	59	45	41	57	100	102
중학교	1학년	17	17	3	4	20	21
	2학년	27	23	12	24	39	47
	3학년	31	36	16	25	47	61
	합계	75	79	31	53	106	129
고등학교	1학년	17	14	18	4	35	18
	2학년	17	23	24	37	41	60
	3학년	13	29	15	9	28	38
	합계	47	66	57	50	104	116
전 체		181	187	129	160	310	347

<표 III-3> 귀국/일반 청소년 분포 - 학교소재지별

단위: 명

		학교소재지							
		서울		고양		성남		전체	
		귀국	일반	귀국	일반	귀국	일반	귀국	일반
초등 학교	1학년	0	0	0	0	0	0	0	0
	2학년	3	3	0	0	0	0	3	3
	3학년	5	5	0	0	0	0	5	5
	4학년	10	12	0	0	0	0	10	12
	5학년	12	11	0	0	0	0	12	11
	6학년	47	50	23	21	0	0	70	71
	합계	77	81	23	21	0	0	100	102
중학교	1학년	16	19	3	0	1	2	20	21
	2학년	31	33	4	0	4	14	39	47
	3학년	36	44	10	16	1	1	47	61
	합계	83	96	17	16	6	17	106	129
고등 학교	1학년	2	4	16	4	17	10	35	18
	2학년	4	3	10	34	27	23	41	60
	3학년	0	0	8	4	20	34	28	38
	합계	6	7	34	42	64	67	104	116
전 체		166	184	74	79	70	84	310	347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귀국청소년의 적응을 다양한 맥락에서 조사하기 위하여 귀국청소년 개인에 관한 질문과 가족 관계, 학교에서의 생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설문 내용 중 조기유학과 관련된 설문은 일반청소년 용 설문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설문지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첫 번째 부분은 귀국청소년에 관한 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조기유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 조기유학을 간 시기와 귀국한 시기, 조기유학 국가의 종류, 조기유학과 귀국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 유학 중 같이 기거한 사람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두 번째 부분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다. 조기유학을 전후하여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와의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질문과, 청소년이 바라보는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지의 세 번째 부분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학교수업에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수업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학교 교과목으로는 국어, 수학, 사회, 영어, 과학의 다섯 가지 과목을 사용하였다. 귀국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교과내용에 대한 흥미와 이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귀국청소년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학교생활의 주목적인 교과 내용 습득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체 학교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교육 현황도 학교생활 부분에 포함시켜 질문하였는데, 귀국청소년이 주로 받고 있는 사교육의 유형과 사교육 과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학업 관련 스트레스, 학교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도 추가하였다.

설문지의 네 번째 부분은 조기유학의 경험이 청소년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얼마나 느끼는지, 한국적 사고방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다른 인종(문화)에 대한 수용도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지의 다섯 번째 부분은 심리정서발달에 관련된 부분이다. 청소년기에 주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인 열등감이나 불안, 우울에 관한 문항과 긍정적인 정서인 자아존중감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켰다. 외현적인 문제행동에 관한 문항도 추가함으로써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인 여섯 번째 부분은 귀국청소년의 진로 계획과 조기유학으로 인해 생겨난 개인적 변화, 조기유학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4> 조사 항목

대상	설문 범주	조사 항목
귀국 청소년	인구학적 변인	성, 이름, 학년, 조기유학 동기, 귀국 동기, 조기유학 시기, 조기유학 기간, 조기유학 국가, 조기유학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귀국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등
	부모와의 관계	조기유학 전·중·후의 가족관계 변화, 부모-자녀 관계 등
	학교생활	교과목 흥미도, 교과목 이해도, 사교육 유형, 학업스트레스,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문화/민족 정체성	민족적 자긍심, 한국적 사고방식, 다른 문화 수용력 등
	심리정서발달	열등감, 불안, 우울,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등
	기타	향후 진로 계획, 조기유학으로 인한 개인적 변화, 조기유학 만족도 등

3) 분석 방법

결과분석은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포함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주로 분석하였다.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것에 더하여, 귀국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결측치는 missing처리를 하였고, 평균 간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변량분석을 사용한 경우는 사후검증으로 Tukey의 HSD(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s)를 사용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할 때 사례수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등분산성 가정이 위배되었으므로 Brown-Forsythe 보정을 실시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 역시 등분산성 가정이 위배된 것을 보정하여 Games-Howell 방법을 적용하였다.

빈도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각 cell의 사례수가 5 이하인 것이 있을 경우에는 χ^2 분석을 생략하였다.

2. 결과 분석

1) 기본 사항에 대한 분석

(1) 조기유학 국가

귀국청소년이 유학을 갔다온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38.89%로 가장 많고, 캐나다가 15.48%, 동남아 국가 13.23%, 중국 1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III-5>).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북아메리카 지역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영어권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남아 국가와 중국의 경우도 국제학교와 같은 곳에 재학하다가 귀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유학 국가의 선택이 영어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직업

부모의 직업은 추후 분석을 위하여 범주화하였다. <표 III-6>과 <표 III-7>에 제시된 원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직의 범주에는 전문직, 교사, 목사를 포함시켰고, 회사원의 범주에는 공무원과 일반회사원을 포함시켰으며, 개인사업은 개인사업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직업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귀국청소년의 63.5%가 전업주부였고, 일반청소년의 62.8%가 전업주부였으며, 나머지 직업은 범주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크게 전업주부와 직장엄마 두 부류로 분류하였다. 범주화된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의 경우,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회사원(53.9%, 53.3%)이 가장 많았고, 전문직과 개인사업은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어머니의 직업은 2:1의 비율로 전업주부가 많으나, 직장엄마도 3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5> 유학 국가(귀국청소년)

단위: 명

유학국가	빈도(%)
미국	119(38.39)
뉴질랜드	15(4.84)
캐나다	48(15.48)
중국	35(11.29)
호주	14(4.52)
영국	11(3.55)
동남아 국가	41(13.23)
남미 국가	5(1.61)
일본	8(2.58)
독일	6(1.94)
프랑스	2(0.65)
체코	1(0.32)
터키	1(0.32)
중동 국가	2(0.65)
중앙아시아	1(0.32)
아프리카	1(0.32)
합계	310

<표 III-6> 부모 직업(귀국청소년)

단위: 명(%)

직업	아버지	어머니
전문직	76(24.5)	38(12.3)
공무원	23(7.4)	10(3.2)
일반 회사원	143(46.1)	20(6.5)
교사(초/중/고)	3(1.0)	17(5.5)

개인사업	54(17.4)	15(4.8)
주부	3(1.0)	197(63.5)
학원강사	1(.3)	7(2.3)
프리랜서	1(.3)	2(.6)
목사	2(.6)	0(0)
통역사	0(0)	1(.3)
농부	1(.3)	0(0)
개인투자자	1(.3)	0(0)
무직	1(.3)	0(0)
무응답	1(.3)	3(.9)
합 계	310(100)	310(1000)

<표 III-7> 부모 직업(일반청소년)

직업	단위: 명(%)	
	아버지	어머니
전문직	67(19.4)	25(7.2)
공무원	45(13.0)	20(5.8)
일반 회사원	139(40.2)	33(9.5)
교사(초/중/고)	3(.9)	27(7.8)
개인사업	85(24.6)	20(5.8)
주부	1(.3)	218(62.8)
학원강사	1(.3)	3(.9)
목사	2(.6)	0(0)
사회복지사	0	1(.3)
무직	3(.9)	0(0)

무응답	0(0)	0(0)
합 계	346(100)	346

<표 III-8> 아버지 직업

단위: 명

유학여부	아버지 직업				합계	
	전문직	회사원	개인사업	기타		
귀국청소년	81 (26.3)	166 (53.9)	54 (17.5)	7 (2.3)	308 (100)	$\chi^2=6.76(ns)$
일반청소년	71 (20.6)	184 (53.3)	85 (24.6)	5 (1.4)	345 (100)	
합계	152 (23.3)	350 (53.6)	139 (21.3)	12 (1.8)	653 (100)	

<표 III-9> 어머니 직업

단위: 명

유학여부	어머니 직업		합계	
	전업주부	직장엄마		
귀국청소년	197 (64.0)	111 (36.0)	308 (100)	$\chi^2=.10(ns)$
일반청소년	218 (62.8)	129 (37.2)	347 (100)	
합계	415 (63.4)	240 (36.6)	655 (100)	

(3) 현재 동거인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약 40~50% 정도, 조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는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0>).

(4) 부모의 학력

부모의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과 전문대졸, 대졸이상으로 분류하려고 하였으나, 중졸이하가 거의 없고, 대학원졸이 많아 대졸과 대학원졸을 구분하였고, 전문대졸도 따로 분류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의 경우,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대졸과 대학원졸이 대부분이고, 일반청소년보다 귀국청소년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귀국청소년: 89.5%, 일반청소년 80.9%). 고졸이하의 학력은 귀국청소년보다 일반청소년의 부모가 약 3배 정도 많았다.

<표 III-10> 현재 동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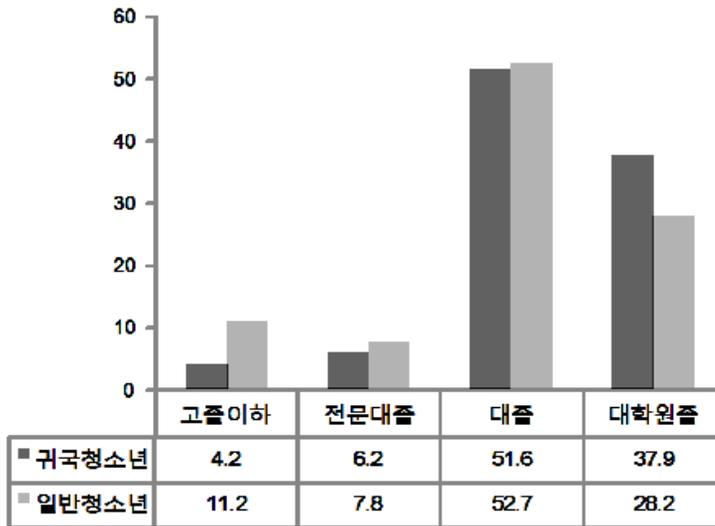
단위: 명

학교급	유학여부	현재 동거인(%)						합계
		아버지	어머니	언니 (누나,오빠,형)	동생	할아버지 와/혹은 할머니	기타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99 (99.0)	98 (98.0)	45 (45.0)	39 (39.0)	15 (15.0)	2 (2.0)	100
	일반청소년	101 (99.0)	101 (99.0)	50 (49.0)	44 (43.1)	5 (4.9)	2 (2.0)	102
	합계	200	199	95	83	20	4	202
중학교	귀국청소년	100 (94.3)	105 (99.1)	43 (40.6)	57 (53.8)	4 (3.8)	0 (.0)	106
	일반청소년	129 (100)	129 (100)	69 (53.5)	52 (40.3)	11 (8.5)	3 (2.3)	129
	합계	229	234	112	109	15	3	235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1 (97.1)	102 (98.1)	34 (32.7)	56 (53.8)	5 (4.8)	0 (.0)	104
	일반청소년	114 (98.3)	115 (99.1)	42 (36.2)	63 (54.3)	10 (8.6)	3 (2.6)	116
	합계	215	217	76	119	15	3	220
합계	귀국청소년	300 (96.8)	305 (98.4)	122 (39.4)	152 (49.0)	24 (7.7)	2 (.6)	310
	일반청소년	344 (99.1)	345 (99.4)	161 (46.4)	159 (45.8)	26 (7.5)	8 (2.3)	347
	합계	644	650	283	311	50	10	657

<표 III-11> 아버지 학력

단위: 명

유학여부	아버지 학력				합계	$\chi^2=15.22$ ($p=.002$)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귀국청소년	13 (4.2)	19 (6.2)	158 (51.6)	116 (37.9)	306 (100)	
일반청소년	39 (11.2)	27 (7.8)	183 (52.7)	98 (28.2)	347 (100)	
합계	52 (8.0)	46 (7.0)	341 (52.2)	214 (32.8)	65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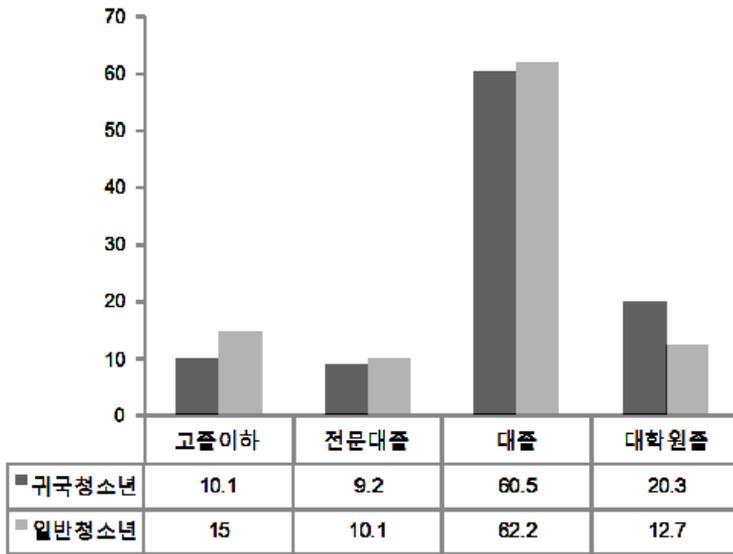
[그림 III-1] 아버지 학력

어머니의 학력도 아버지의 학력과 같은 범주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는데, 대졸과 대학원졸의 비율이 높기는 했지만, 대학원졸의 비율은 아버지의 경우보다 낮았다. 아버지학력의 경우는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율이 비슷했지만, 어머니 학력의 경우, 귀국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어머니 학력

단위: 명

유학여부	어머니 학력				합계	$\chi^2=9.01$ ($p=.029$)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귀국청소년	31 (10.1)	28 (9.2)	185 (60.5)	62 (20.3)	306 (100)	
일반청소년	52 (15.0)	35 (10.1)	216 (62.2)	44 (12.7)	347 (100)	
합계	83 (12.7)	63 (9.6)	401 (61.4)	106 (16.2)	653 (100)	



[그림 III-2] 어머니 학력

(5) 가정의 경제수준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정의 경제 수준을 비교해보면,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급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조기유학은 가정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귀국청소년의 가정이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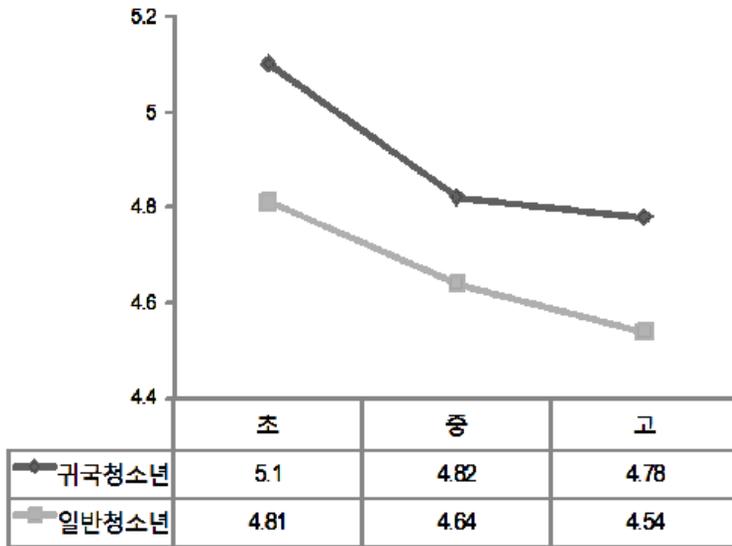
청소년보다 더 유복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설문지는 청소년이 작성한 것이므로, 더 정확한 설명은, 일반청소년보다 귀국청소년이 자신의 가정 경제의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가정형편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귀국청소년은 자신의 가정형편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표 III-13> 가정 경제수준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5.10(1.02)	
	일반청소년	102	4.81(.88)	
	합계	202	4.96(.96)	a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4.82(.77)	
	일반청소년	129	4.64(.80)	
	합계	235	4.72(.79)	b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4.78(.99)	
	일반청소년	116	4.54(.79)	
	합계	220	4.65(.89)	b
합계	귀국청소년	310	4.90(.94)	
	일반청소년	347	4.66(.82)	
	합계	657	4.77(.89)	

<표 III-14>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9.96	2	4.98	6.56	.00
유학여부	8.86	1	8.86	11.66	.00
학교급*유학여부	.32	2	.16	.21	.81
오차	494.35	651	.76		



[그림 III-3] 가정경제수준

(6) 출국시기와 귀국시기

귀국청소년이 조기유학을 갖다 온 시기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학을 떠난 경우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귀국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을 갖다오는 시기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다는 것은 전국을 상대로 한 자료에서도 밝혀진 것인데, 본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초등학생이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생각

과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조기유학을 나가게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학교 적응에 문제가 생긴다는 학부모의 신념이 초등학교 시기를 조기유학의 적기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때 귀국하는 경우도 34.2%에 달하고 있어 그 수가 적은 것은 아니다.

학교급에 따른 출국시기를 살펴보더라도(<표 III-16>), 현재 중학생인 학생 중에 초등학교 때 출국했던 비율이 93.4%, 현재 고등학생인 학생 중에 초등학교 때 출국했던 비율은 65.4%로 나타남으로써 조기유학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5> 출국시기와 귀국시기

단위: 명		
	출국시기(%)	귀국시기(%)
영유아기	17(5.5)	
초등 저학년	143(46.1)	48(15.5)
초등 고학년	115(37.1)	156(50.3)
중	29(9.4)	75(24.2)
고	6(1.9)	31(10.0)
합계	310(100.0)	310(100.0)

<표 III-16> 학교급에 따른 출국시기

학교급	출국시기					합계
	영유아기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	고	
초등학교	9(9.0)	70(70.0)	21(21.0)	0(0)	0(0)	100(100)
중학교	3(2.8)	39(36.8)	60(56.6)	4(3.8)	0(0)	106(100)
고등학교	5(4.8)	34(32.7)	34(32.7)	25(24.0)	6(5.8)	104(100)
합계	17(5.5)	143(46.1)	115(37.1)	29(9.4)	6(1.9)	310(100)

(7) 조기유학 기간

조기유학 기간은 출국시기와 귀국시기를 학기별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설문조사 형식을 감안하여, 두 학기 간의 차이를 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조기유학 기간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급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초등학생(27.22개월)보다 중학생(30.59개월)이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약 2-3년 동안 유학한 후 귀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7> 조기유학기간

학교급	성별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남자	58	28.22(16.69)	a
	여자	39	25.72(16.32)	
	합계	97	27.22(16.50)	
중학교	남자	74	36.57(21.57)	b
	여자	31	32.87(17.42)	
	합계	105	35.48(20.42)	
고등학교	남자	43	34.12(25.01)	a, b
	여자	55	27.84(19.55)	
	합계	98	30.59(22.21)	
합계	남자	175	33.20(21.23)	
	여자	125	28.42(18.13)	
	합계	300	31.21(20.10)	

<표 III-18> 조기유학기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2712.90	2	1356.45	3.44	.03
성별	1197.76	1	1197.76	3.04	.82
학교급*성별	176.84	2	88.42	.22	.80
오차	115951.58	294	394.39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조기유학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있었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인 경우가 조기유학 기간이 가장 길었고, 대학원 졸업인 경우가 가장 짧았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조기유학 기간의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아버지의 직업인 전문직인 경우가 유학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회사원, 개인사업, 기타의 경우는 전문직보다 약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의 경우, 직장엄마보다는 전업주부의 경우가 약 8개월 정도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경제 수준도 유학기간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r = .09$ 로서, 가정의 경제 수준과 유학기간의 길고 짧음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표 III-19> 조기유학 기간에 대한 변량분석(아버지 학력)

	N	M(SD)	F	Sig.
고졸이하	13	29.23(26.23)		
전문대졸	18	40.67(21.89)		
대졸	155	32.52(19.38)	1.77	.17
대학원졸	110	28.52(19.89)		
합계	296	31.39(20.18)		

<표 III-20> 조기유학 기간에 대한 변량분석(어머니 학력)

	N	M(SD)	Brown-Forsythe	Sig.	Games-Howell
고졸이하	30	27.80(19.71)			a, b
전문대졸	27	37.22(21.15)			b
대졸	179	33.40(19.86)	4.23	.01	a, b
대학원졸	60	24.23(19.22)			a
합계	296	31.32(20.17)			

<표 III-21> 조기유학 기간에 대한 변량분석(아버지 직업)

	N	M(SD)	Brown-Forsythe	Sig.	Games-Howell
전문직	78	24.78(18.16)			a
회사원	160	35.66(20.48)			b
개인사업	53	28.38(18.83)	5.82	.00	b
기타	7	25.71(22.13)			b
합계	298	31.29(20.14)			

<표 III-22> 조기유학 기간에 대한 변량분석(어머니 직업)

	N	M(SD)	t	Sig.
전업주부	192	33.73(19.73)		
직장엄마	106	26.28(19.95)	3.10	.00
합계	298	31.08(20.09)		

(8) 유학 국가

유학국가의 분포는 <표 III-2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바탕으로 유학국가를 범주화하였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로, 중국, 일본, 동남아, 중앙아시아는 ‘아시아’로, 나머지 국가는 ‘기타’로 범주화하였다. 유학국가로 주로 선택하는 국가는 북미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미국과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갖다오는 경우가 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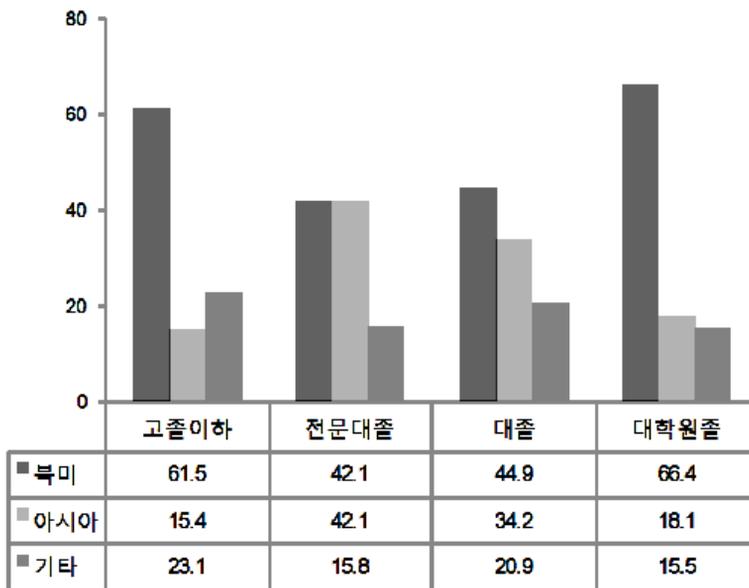
유학국가의 선택은 부모의 학력과 관련이 있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졸의 경우는 북미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고, 대졸인 경우는 북미, 아시아, 기타 지역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이하와 전문대 졸업의 경우도 수치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졸 1명, 전문대 졸 16명으로 그 수가 적어 경향성을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어머니의 학력과 유학국가와의 관계도 아버지의 학력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에 대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북미지역을 선호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3> 학교급에 따른 유학국가

학교급	유학국가			합계	$\chi^2=8.90$ ($p=.064$)
	북미	아시아	기타		
초등학교	65(65.0)	20(20.0)	15(15.0)	100(100)	
중학교	51(48.1)	36(34.0)	19(17.9)	106(100)	
고등학교	51(49.0)	29(27.9)	24(23.1)	104(100)	
합계	167(53.9)	85(27.4)	58(18.7)	310(100)	

<표 III-24> 아버지 학력과 유학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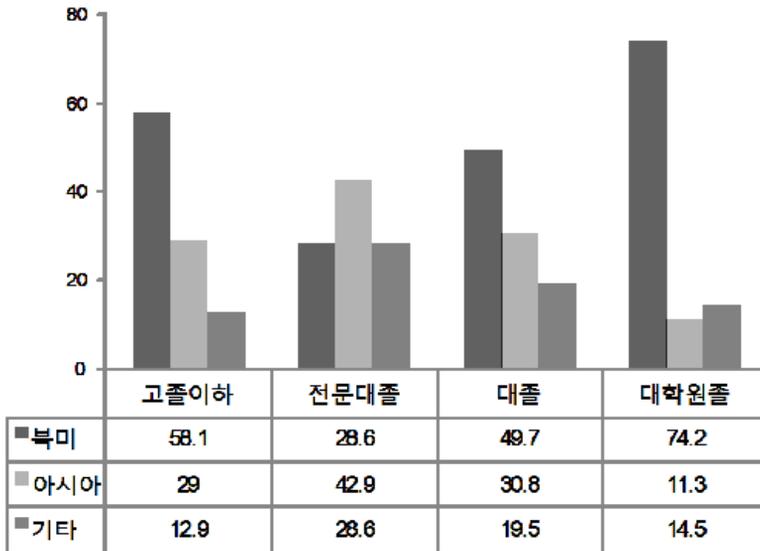
아버지 학력	유학국가(%)			합계
	북미	아시아	기타	
고졸이하	8(61.5)	2(15.4)	3(23.1)	13(100)
전문대졸	8(42.1)	8(42.1)	3(15.8)	19(100)
대졸	71(44.9)	54(34.2)	33(20.9)	158(100)
대학원졸	77(66.4)	21(18.1)	18(15.5)	116(100)
합계	164(53.6)	85(27.8)	57(18.6)	306(100)



[그림 III-4] 아버지 학력과 유학국가

<표 III-25> 어머니 학력과 유학국가

어머니 학력	유학국가(%)			합계	$\chi^2=20.46$ ($p=.002$)
	북미	아시아	기타		
고졸이하	18(58.1)	9(29.0)	4(12.9)	31(100)	
전문대졸	8(28.6)	12(42.9)	8(28.6)	28(100)	
대졸	92(49.7)	57(30.8)	36(19.5)	185(100)	
대학원졸	46(74.2)	7(11.3)	9(14.5)	62(100)	
합계	164(53.6)	85(27.8)	57(18.6)	306(100)	



[그림 III-5] 어머니 학력과 유학국가

부모의 직업과 유학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북미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아시아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일곱 배가 높게 나타났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는 두 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인 경우는 북미, 아시아, 기타 지역을 고르게 선택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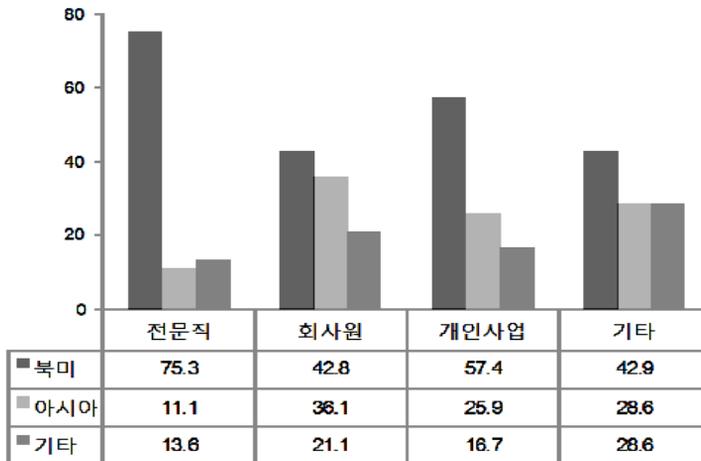
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북미지역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지 전업주부인지에 따라 유학국가의 선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북미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모가 학력이 높고, 아버지가 전문직인 경우,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북미지역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III-26> 아버지 직업과 유학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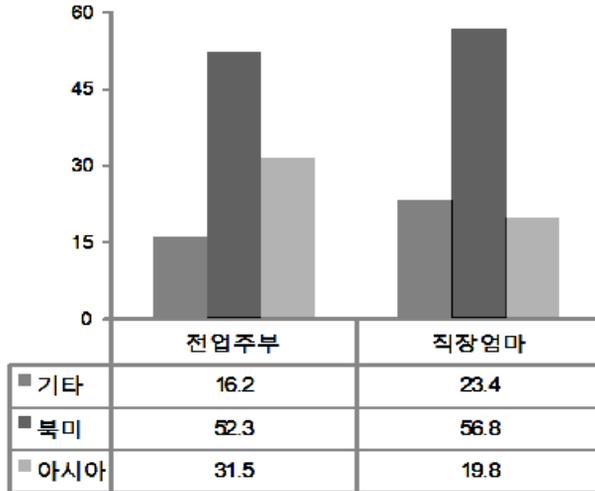
아버지 직업	유학국가(%)			합계	$\chi^2=25.55$ ($p=.000$)
	북미	아시아	기타		
전문직	61(75.3)	9(11.1)	11(13.6)	81(100)	
회사원	71(42.8)	60(36.1)	35(21.1)	166(100)	
개인사업	31(57.4)	14(25.9)	9(16.7)	54(100)	
기타	3(42.9)	2(28.6)	2(28.6)	7(100)	
합계	166(53.9)	85(27.6)	57(18.5)	308(100)	



[그림 III-6] 아버지 직업과 유학국가

<표 III-27> 어머니 직업과 유학국가

어머니 직업	유학국가(%)			합계	$\chi^2=5.74$ ($p=.057$)
	북미	아시아	기타		
전업 주부	103(52.3)	62(31.5)	32(16.2)	197(100)	
직장 엄마	63(56.8)	22(19.8)	26(23.4)	111(100)	
합계	166(53.9)	84(27.3)	58(18.8)	30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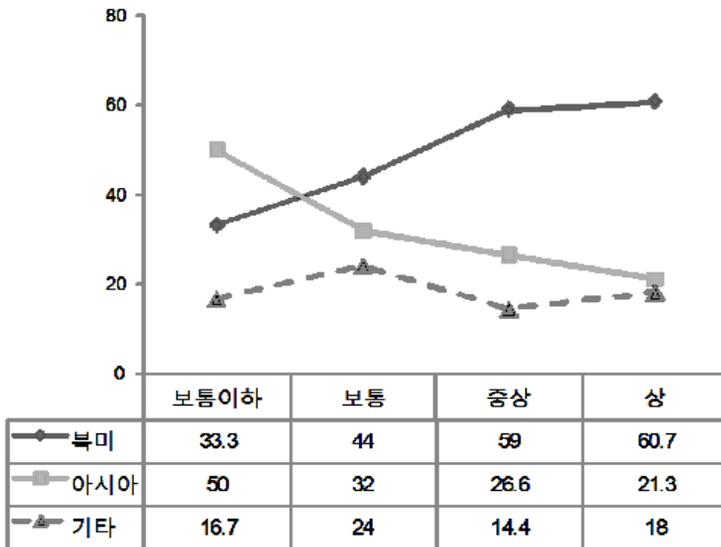


[그림 III-7] 어머니 직업과 유학국가

가정의 경제수준과 유학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북미지역을 선호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아시아 지역을 선택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은 보통이하의 경제 수준에서 많이 선택하였고, 기타 지역은 가정 경제 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표 III-28> 가정경제수준과 유학국가

가정경제수준	유학국가(%)			합계
	북미	아시아	기타	
보통이하	2(33.3)	3(50.0)	1(16.7)	6(100)
보통	44(44.0)	32(32.0)	24(24.0)	100(100)
중상	82(59.0)	37(26.6)	20(14.4)	139(100)
상	37(60.7)	13(21.3)	11(18.0)	61(100)
합계	165(53.9)	85(27.8)	56(18.3)	30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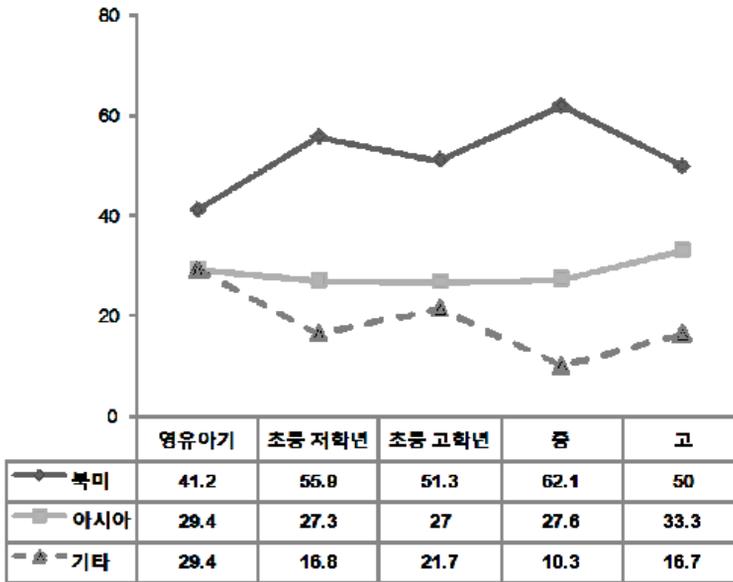


[그림 III-8] 가정경제수준과 유학국가

출국시기와 유학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출국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북미지역이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었는데, 특히 중학교 때 출국한 학생의 경우 북미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출국시기와 유학국가

출국시기	유학국가			합계
	북미	아시아	기타	
영유아기	7(41.2)	5(29.4)	5(29.4)	17(100)
초등 저학년	80(55.9)	39(27.3)	24(16.8)	143(100)
초등 고학년	59(51.3)	31(27.0)	25(21.7)	115(100)
중	18(62.1)	8(27.6)	3(10.3)	29(100)
고	3(50.0)	2(33.3)	1(16.7)	6(100)
합계	167(53.9)	85(27.4)	58(18.7)	3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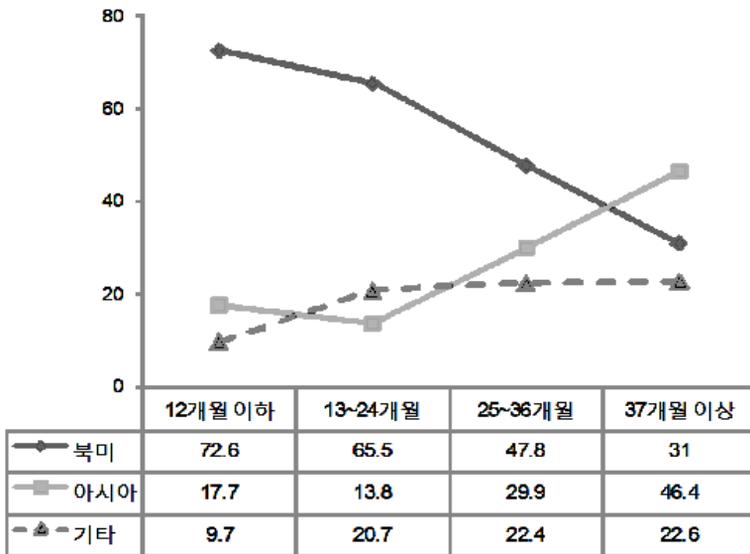
[그림 III-9] 출국시기와 유학국가

유학기간과 유학국가 선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학기간이 짧을수록 북미지역이 많이 선택되었는데, 단기 유학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북미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학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시아 국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년 이하의 단기 유학의 경우에는 북미지역이 월등히 많이 선택되지만, 2년 이상이 되면 아시아 국가에 대한 선택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0> 유학기간과 유학국가

유학기간	유학국가			합계	$\chi^2=38.16$ ($p=.000$)
	북미	아시아	기타		
12개월 이하	45(72.6)	11(17.7)	6(9.7)	62(100)	
13~24개월	57(65.5)	12(13.8)	18(20.7)	87(100)	
25~36개월	32(47.8)	20(29.9)	15(22.4)	67(100)	
37개월 이상	26(31.0)	39(46.4)	19(22.6)	84(100)	
합계	160(53.3)	82(27.3)	58(19.3)	300(100)	



[그림 III-10] 유학기간과 유학국가

(9) 유학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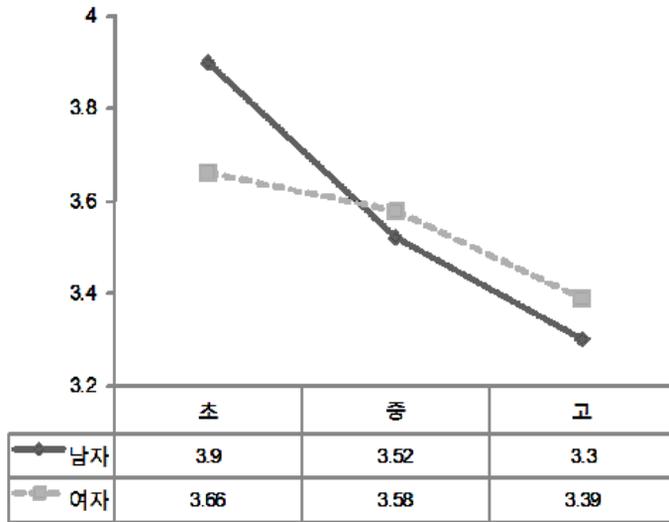
청소년 본인이 어느 정도 유학을 나가고 싶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교급별 차이는 발견되었다. 초등학생이 유학 나가고 싶은 의향이 많았고, 그 다음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시기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의사 결정이었다기 보다는 주변에 유학을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본인들의 마음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 조기유학 인구의 상당수가 초등학생이라는 의미는 초등학생의 주변에 조기유학생이 많다는 의미이고, 주변의 이런 움직임은 남아 있는 초등학생으로 하여금 조기유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심어줄 수 있다. 귀국청소년 또한 초등학생이 많은데, 주변의 귀국청소년이 들려주는 외국의 교육현실이 경쟁적인 한국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도 외국에서 교육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 있다.

<표 III-31> 유학의향

학교급	성별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남자	59	3.90(1.16)	a
	여자	41	3.66(1.41)	
	합계	100	3.80(1.26)	
중학교	남자	75	3.52(1.04)	a
	여자	31	3.58(.96)	
	합계	106	3.54(1.02)	
고등학교	남자	47	3.30(1.00)	b
	여자	57	3.39(1.07)	
	합계	104	3.35(1.03)	
합계	남자	181	3.59(1.09)	
	여자	129	3.52(1.16)	
	합계	310	3.56(1.12)	

<표 III-32> 유학의향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9.51	2	4.75	3.86	.02
성별	.07	1	.07	.05	.82
학교급*성별	1.60	2	.80	.65	.52
오차	374.22	304	1.23		



[그림 III-11] 유학의향

(10) 유학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귀국청소년이 유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사람을 모두 선택 하라고 했을 때, 부모님을 선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자녀의 조기유학은 가정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므로 아버지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의외의 응답은 ‘나 자신’의 비율이 낮은 것인데, 현재 고등학생인 경우가 초등학생인 경우보다 ‘나 자신’을 선택한 비율이 높기는 했지만, 응답의 형

태가 다중응답인 것을 고려해보면 본인 스스로가 유학을 결정하는데 미쳤던 영향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3> 유학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학교급	유학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합계
	나 자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외 다른 가족	선생님	기타	
초등학교	19 (19.0)	79 (79.0)	55 (55.0)	8 (8.0)	2 (2.0)	0 (.0)	100
중학교	23 (21.7)	89 (84.0)	50 (47.2)	11 (10.4)	1 (.9)	6 (5.7)	106
고등학교	39 (37.5)	80 (76.9)	57 (54.8)	13 (12.5)	2 (1.9)	4 (3.8)	104
합계	81	248	162	32	5	10	310

* 다중응답문항

(11) 유학 동기

조기유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 모두 가족의 상황 때문에 조기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구체적인 가족의 상황을 추가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가족상황이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부모 중의 한 사람이 국외근무를 하게 되었다든가, 외국으로 학업을 하러 나갔다든가, 교환교수나 안식년 같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하여 부모가 일부러 외유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족 상황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정확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두 번째 유학 동기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경험이나 국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외국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 순이었다.

<표 III-34> 유학동기*

학 교 급	유학동기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유학을 가니까 나도 가야될 것만 같아서
	외국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	우리나라 에 돌아와서 대학 가기가 유리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의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우리 가족의 상황 때문에	외국어를 효과적으 로 배우기 위해서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국 제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에서는 나의 적성을 찾기 어려워서	
초등 학교	22 (22.0)	9 (9.0)	1 (1.0)	55 (55.0)	46 (46.0)	33 (33.0)	0 (.0)	1 (1.0)
중 학교	26 (24.5)	5 (4.7)	3 (2.8)	59 (55.7)	53 (50.0)	40 (37.7)	2 (1.9)	1 (.9)
고등 학교	25 (24.0)	9 (8.7)	6 (5.8)	49 (47.1)	37 (35.6)	34 (32.7)	2 (1.9)	2 (1.9)
합계	73	23	10	163	136	107	4	4

* 다중응답문항

<표 III-34> 유학동기(계속)

학 교 급	유학동기						합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환경이 싫어서	부모님이 가라고 하셔서	외국 대학에 다니고 싶어서	대중매체나 신문,잡지에 조기유학에 관한 내용을 보고	우리나라 학교에서 친구관계가 어려워서	그냥 외국에 나가보고 싶어서	
초등 학교	1 (1.0)	11 (11.0)	2 (2.0)	0 (.0)	0 (.0)	1 (1.0)	100
중 학교	6 (5.7)	20 (18.9)	7 (6.6)	1 (.9)	1 (.9)	0 (.0)	106
고등 학교	16 (15.4)	19 (18.3)	6 (5.8)	3 (2.9)	0 (.0)	0 (.0)	104
합계	23	50	15	4	1	1	310

출국 시기와 유학의 동기를 비교한 분석은 조기유학 동기의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해준다. 가족의 상황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초등학생 때 조기유학을 나가는 이유는 ‘외국어를 효과

적으로 배우기위해서(초등학교 저학년 42.0%, 초등학교 고학년 53.0%)’,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국제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초등학교 저학년 27.3%, 초등학교 고학년 44.3%)’, ‘외국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초등학교 저학년 20.3%, 초등학교 고학년 27.8%)’의 순이었다. 중학교 때 조기유학을 나간 학생들의 이유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국제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41.4%)’,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서(37.9%)’,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싫어서(27.6%)’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때 조기유학을 나갔던 학생들의 경우는 사례수가 적어(6명) 순위를 매기는 것이 무의하지만, 6명 중의 4명(66.7%)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싫어서’를 선택하였다.

<표 III-35> 출국시기와 유학동기*

출국 시기	유학동기							
	외국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대학 가기가 유리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우리 가족의 상황 때문에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국제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적성을 찾기 어려워서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유학을 가니까 나도 가야될 것만 같아서
영유아기	2 (11.8)	1 (5.9)	0 (.0)	13 (76.5)	1 (5.9)	1 (5.9)	0 (.0)	0 (.0)
초등저학년	29 (20.3)	8 (5.6)	3 (2.1)	86 (60.1)	60 (42.0)	39 (27.3)	0 (.0)	1 (.7)
초등고학년	32 (27.8)	9 (7.8)	2 (1.7)	49 (42.6)	61 (53.0)	51 (44.3)	2 (1.7)	2 (1.7)
중	7 (24.1)	3 (10.3)	5 (17.2)	13 (44.8)	11 (37.9)	12 (41.4)	1 (3.4)	1 (3.4)
고	3 (50.0)	2 (33.3)	0 (.0)	2 (33.3)	3 (50.0)	4 (66.7)	1 (16.7)	0 (.0)
합계	73	23	10	163	136	107	4	4

* 다중응답문항

<표 III-35> 출국시기에 따른 유학동기(계속)

출국 시기	유학동기						합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환경이 싫어서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외국 대학에 다니고 싶어서	대중매체나 신문,잡지에 조기유학에 관한 내용을 보고	우리나라 학교에서 친구관계가 어려워	그냥 외국에 나가보고 싶어서	
영유아기	1 (5.9)	3 (17.6)	1 (5.9)	0 (.0)	0 (.0)	0 (.0)	17
초등저학년	3 (2.1)	20 (14.0)	4 (2.8)	1 (.7)	0 (.0)	1 (.7)	143
초등고학년	7 (6.1)	23 (20.0)	8 (7.0)	1 (.9)	1 (.9)	0 (.0)	115
중	8 (27.6)	3 (10.3)	1 (3.4)	0 (.0)	0 (.0)	0 (.0)	29
고	4 (66.7)	1 (16.7)	1 (16.7)	2 (33.3)	0 (.0)	0 (.0)	6
합계	23	50	15	4	1	1	310

조기유학 기간과 유학 동기와와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상황 때문에 유학을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한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고 국제 감각을 키우는 것에 대한 필요성, 외국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이 많았다.

유학국가와 유학동기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북미지역과 기타지역의 경우,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한 것과, 새로운 경험을 쌓고 국제 감각을 키우는 것에 대한 필요성, 외국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가 주된 이유였다. 아시아를 조기유학 국가로 선택하는 제 일의 이유는 가족 상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아시아를 조기유학국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자신의 발전이라기 보다는 가족 환경의 변화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6> 유학기간과 유학동기*

유학 기간	유학동기							
	외국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	우리나라 에 돌아와서 대학 가기가 유리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의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우리 가족의 상황 때문에	외국어를 효과적으 로 배우기 위해서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국 제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에서는 나의 적성을 찾기 어려워서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유학을 가니까 나도 가야될 것만 같아서
12개월 이하	16 (25.8)	5 (8.1)	2 (3.2)	22 (35.5)	30 (48.4)	26 (41.9)	2 (3.2)	1 (1.6)
13~24개 월	24 (27.6)	11 (12.6)	2 (2.3)	34 (39.1)	45 (51.7)	38 (43.7)	1 (1.1)	2 (2.3)
25~36개 월	18 (26.9)	3 (4.5)	3 (4.5)	40 (59.7)	28 (41.8)	21 (31.3)	1 (1.5)	0 (.0)
37개월 이상	13 (15.5)	4 (4.8)	3 (3.6)	62 (73.8)	30 (35.7)	21 (25.0)	0 (.0)	1 (1.2)
합계	71	23	10	158	133	106	4	4

* 다중응답문항

<표 III-36> 유학기간과 유학동기(계속)

유학 기간	유학동기						합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환경이 싫어서	부모님이 가라고 하셔서	외국 대학에 다니고 싶어서	대중매체나 신문,잡지에 조기유학에 관한 내용을 보고	우리나라 학교에서 친구관계가 어려워서	그냥 외국에 나가보고 싶어서	
12개월 이하	8 (12.9)	10 (16.1)	5 (8.1)	3 (4.8)	1 (1.6)	1 (1.6)	62
13~24개 월	8 (9.2)	14 (16.1)	4 (4.6)	1 (1.1)	0 (.0)	0 (.0)	87
25~36개 월	3 (4.5)	14 (20.9)	2 (3.0)	0 (.0)	0 (.0)	0 (.0)	67
37개월 이상	4 (4.8)	9 (10.7)	4 (4.8)	0 (.0)	0 (.0)	0 (.0)	84
합계	23	47	15	4	1	1	300

<표 III-37> 유학국가와 유학동기*

유학 국가	유학동기							
	외국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	우리나라 에 돌아와서 대학 가기가 유리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의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우리 가족의 상황 때문에	외국어를 효과적으 로 배우기 위해서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국 제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에서는 나의 적성을 찾기 어려워서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유학을 가니까 나도 가야될 것만 같아서
북미	42 (25.1)	14 (8.4)	6 (3.6)	83 (49.7)	78 (46.7)	58 (34.7)	3 (1.8)	1 (.6)
아시아	14 (16.5)	5 (5.9)	3 (3.5)	60 (70.6)	31 (36.5)	24 (28.2)	0 (.0)	1 (1.2)
기타	17 (29.3)	4 (6.9)	1 (1.7)	20 (34.5)	27 (46.6)	25 (43.1)	1 (1.7)	2 (3.4)
합계	73	23	10	163	133	107	4	4

* 다중응답문항

<표 III-37> 유학국가와 유학동기(계속)

유학 국가	유학동기						합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환경이 싫어서	부모님이 가라고 하셔서	외국 대학에 다니고 싶어서	대중매체나 신문,잡지에 조기유학에 관한 내용을 보고	우리나라 학교에서 친구관계가 어려워서	그냥 외국에 나가보고 싶어서	
북미	10 (6.0)	32 (19.2)	10 (6.0)	2 (1.2)	1 (.6)	1 (.6)	167
아시아	8 (9.4)	8 (9.4)	1 (1.2)	1 (1.2)	0 (.0)	0 (.0)	85
기타	5 (8.6)	10 (17.2)	4 (6.9)	1 (1.7)	0 (.0)	0 (.0)	58
합계	23	50	15	4	1	1	310

(11) 유학 중 거처

조기유학 기간 중 거처한 곳은 다른 가족과 함께 자기 집에서 거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학교기숙사나, 외국인 가정에서의 홈스테이, 한국인 가정에서의 홈스테이, 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집에 거처했던 경우도 적지않았다. 초등학생의 23%, 중학생의 17%, 고등학생의 36.5%가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처하며 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유학 중 거처*

학교급	유학 중 거처					합계
	자기 집 (가족과 함께)	학교 기숙사	외국인 가정 홈스테이	한국인 가정 홈스테이	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집	
초등학교	77 (77.0)	2 (2.0)	12 (12.0)	4 (4.0)	9 (9.0)	100
중학교	88 (83.0)	4 (3.8)	5 (4.7)	8 (7.5)	11 (10.4)	106
고등학교	66 (63.5)	4 (3.8)	17 (16.3)	12 (11.5)	12 (11.5)	104
합계	231	10	34	24	32	310

* 다중응답문항은 아니었으나 2개 이상 선택한 학생이 있었음.

(12) 유학 중 동거인

유학 중 함께 기거한 사람은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모두 거처를 외국으로 옮기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어머니와 아이들만이 외국에 거하는 기러기 가족의 유형이 많기 때문에, 본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표 III-39> 유학 중 동거인*

학교급	유학 중 동거인						합계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현지의 친척	친구	기타	
초등학교	81 (81.8)	60 (60.6)	70 (70.7)	12 (12.1)	3 (3.0)	8 (8.1)	99
중학교	86 (81.1)	63 (59.4)	82 (77.4)	10 (9.4)	7 (6.6)	6 (5.7)	106
고등학교	67 (66.3)	55 (54.5)	62 (61.4)	10 (9.9)	7 (6.9)	17 (16.8)	101
합계	234	178	214	32	17	31	306

* 다중응답문항

(13) 귀국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귀국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유학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의 경우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크고 다음어머니였으며, 청소년 스스로의 결정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스스로의 결정은 유학 결정보다 귀국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출국보다는 귀국에 청소년 본인의 영향력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0> 귀국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학교급	귀국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합계
	나 자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외 다른 가족	유학경험이 있는 친구	기타	
초등학교	27 (27.0)	75 (75.0)	54 (54.0)	13 (13.0)	0 (.0)	2 (2.0)	100
중학교	27 (25.5)	86 (81.1)	46 (43.4)	9 (8.5)	2 (1.9)	0 (.0)	106
고등학교	38 (36.5)	72 (69.2)	59 (56.7)	13 (12.5)	1 (1.0)	3 (2.9)	104
합계	92	233	159	35	3	5	310

* 다중응답문항

(14) 귀국하고 싶은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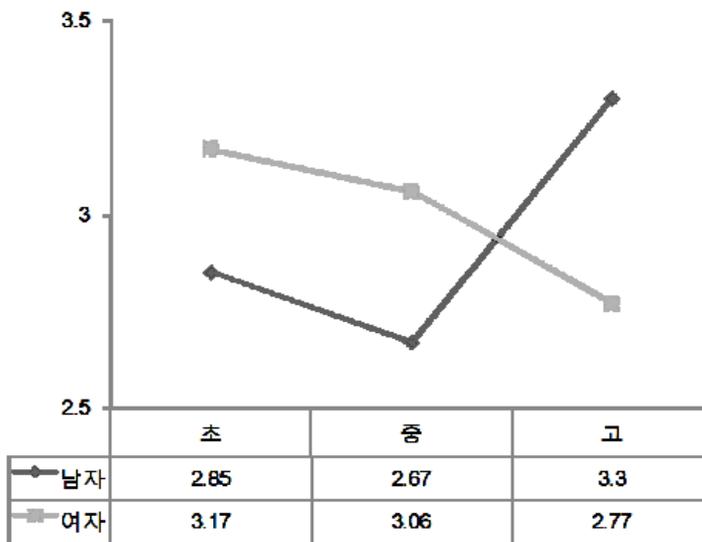
청소년 본인이 얼마나 귀국하고 싶었는지 질문한 결과, 학교급과 성별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이 더 귀국 의향이 높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그 반대로 남학생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집단의 귀국의향 평균 점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귀국의향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1> 귀국의향

학교급	성별	N	M(SD)
초등학교	남자	59	2.85(1.00)
	여자	41	3.17(1.07)
	합계	100	2.98(1.04)
중학교	남자	75	2.67(1.13)
	여자	31	3.06(1.09)
	합계	106	2.78(1.13)
고등학교	남자	47	3.30(1.21)
	여자	57	2.77(1.13)
	합계	104	3.01(1.20)
합계	남자	181	2.89(1.14)
	여자	129	2.97(1.11)
	합계	310	2.92(1.12)

<표 III-42> 귀국의향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1.53	2	.77	.62	.54
성별	.30	1	.30	.25	.62
학교급*성별	13.00	2	6.50	5.29	.01
오차	373.84	304	1.23		



[그림 III-12] 귀국의향

(15) 귀국하게 된 동기

귀국하게 된 동기는 가족 상황 때문이거나, 부모의 권유, 유학 나갈 때부터 정해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부적응의 문제가 있어서 라든가 인종차별의 문제, 친구관계의 어려움, 외국어 사용의 어려움과 같은 충분히 귀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은 귀국의 동기로 선택되지 못하거나 그 비율이 극히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유

학 청소년이 현지에서 부적응을 경험하여 귀국했다기 보다는 청소년 외부의 문제로 인한 귀국이 많았으며, 현지에서 생활하면서도 나름 잘 적응하다가 귀국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III-43> 귀국동기*

학 교 급	귀국동기					
	유학을 간 목표가 달성되어서	우리가족의 상황 때문에	유학 국가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부모님이 오라고(또는 가자고) 하셔서	유학 국가에서는 내 적성을 살리기가 어려워서	유학 나갈 때부터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초등 학교	26 (26.0)	58 (58.0)	1 (1.0)	17 (17.0)	2 (2.0)	24 (24.0)
중 학교	28 (26.4)	65 (61.3)	0 (.0)	28 (26.4)	2 (1.9)	21 (19.8)
고등 학교	12 (11.5)	48 (46.2)	2 (1.9)	32 (30.8)	3 (2.9)	17 (16.3)
합계	66	171	3	77	7	62

* 다중응답문항

<표 III-43> 귀국동기(계속)

학 교 급	귀국동기					합계
	외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유학 국가에서의 친구관계가 어려워서	외국어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서	기타	
초등 학교	2 (2.0)	0 (.0)	0 (.0)	1 (1.0)	3 (3.0)	100
중 학교	7 (6.6)	3 (2.8)	0 (.0)	2 (1.9)	5 (4.7)	106
고등 학교	16 (15.4)	3 (2.9)	3 (2.9)	2 (1.9)	8 (7.7)	104
합계	25	6	3	5	16	310

(16) 기본사항에 대한 결과 요약

먼저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표본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표본이 서울과 경기 지역이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의 해석은 이 지역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① 귀국청소년의 부모 직업군이 일반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조기유학이라는 현상이 대중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직 뿐 만이 아니라 회사원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도 상당 부분 조기유학을 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귀국청소년의 부모 학력이 일반청소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귀국청소년 부모의 약 90%가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조기유학 보낼 확률이 높다는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반청소년의 학부모 역시 대졸과 대학원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③ 본 설문조사 결과 조기유학을 주로 선택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조기유학 후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였을 때 정규교과과정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일찍 갔다 오는 것이 낫다는 대중의 인식과 초등학교 시기가 영어학습을 위해 적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교과 내용이 많아질 뿐만아니라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피해서 일찍 나갔다 오려는 생각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④ 조기유학은 2년 이하의 단기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교에 짧게 있다가 귀국하면 한국의 교육여건에 적응하기도 쉽고 조기유학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난다거나, 가족이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⑤ 조기유학 국가로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였는데,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가정의 경제수준이 어쨌든 가장 많은 비율이 북미지역으로 조기유학을 갔다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개월 이하의 단기 유학의 경우, 북미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영어권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⑥ 청소년 본인이 어느 정도 유학을 나가고 싶었는지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의 경우, 조기유학에 대한 본인의 의향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미 고등학생이 되어 조기유학을 초등학교 시절에 갔다 온 학생들보다 지금의 초등학생이 조기유학에 대한 의향이 더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고등학생인 경우, 귀국한 지 시간이 흘렀고, 조기유학을 나갈 때의 바램과 설렘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는 흐려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그러나 수치의 높낮이는 있지만, 모든 학년에서 조기유학에 대한 본인의 의향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⑦ 조기유학을 선택한 동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가족의 상황 때문이라는 응답이었다. 외국어도 배우고, 국제감각도 키우고, 외국에서 더 좋은 교육도 받아 보고 싶었던 이유도 많은 비율로 선택되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청소년이 생각하는 조기유학의 이유와 부모가 생각하는 조기유학의 이유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가족의 상황이 변하여 조기유학을 갔다 왔다고는 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에 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외 근무를 신청한다거나, 외국으로 안식년을 다간다거나, 외국으로 다시 학업을 하기 위하여 떠난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 그것이다. 이럴 때 아이들은 가족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조기유학을 나갈 수

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만들어진 조기유학이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결과로는 정확한 동기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⑧ 귀국 동기에 대한 조사결과, 현지에서 부적응의 문제를 경험한 것이 이유가 되어 귀국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에서 적응을 못했다거나, 인종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친구관계가 어려워서 혹은 외국어의 불편함이 귀국의 이유가 되지 못한 것은 조기유학생이 소소한 어려움은 있었을지 몰라도 현지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오히려 현지에서의 부적응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상황에, 부모의 권유나 정해진 체류기간 등의 이유로 귀국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의에 의한 귀국보다는 타의에 의한 귀국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자녀 관계

(1) 조기유학 전·중·후의 가족 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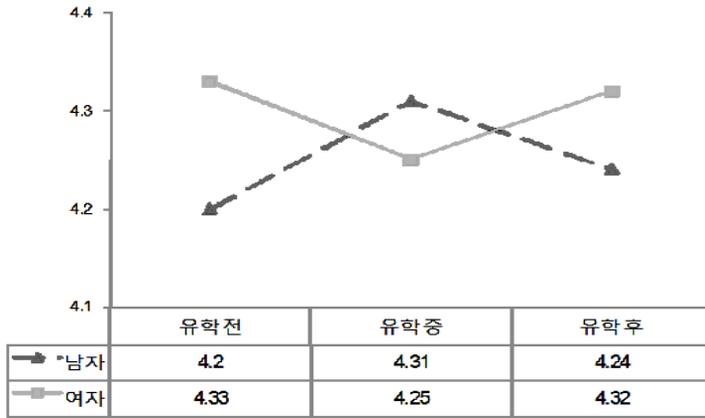
조기유학을 전후하여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의 질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 변화는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유학 전과 후보다 유학 중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유학 중보다는 유학 전과 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4> 아버지와의 관계 변화- 유학 전·중·후 비교

학교급	성별	N	유학 전 M(SD)	유학 중 M(SD)	유학 후 M(SD)
초등학교	남자	59	4.46(.86)	4.47(.80)	4.51(.84)
	여자	41	4.59(.81)	4.61(.63)	4.78(.48)
	소계	100	4.51(.84)	4.53(.73)	4.62(.72)
중학교	남자	75	4.11(.97)	4.20(.93)	4.11(.99)
	여자	31	4.39(.84)	4.19(.91)	4.48(.63)
	소계	106	4.19(.94)	4.20(.92)	4.22(.92)
고등학교	남자	47	4.04(.93)	4.30(.75)	4.13(.92)
	여자	57	4.12(.89)	4.02(1.06)	3.89(1.15)
	소계	104	4.09(.90)	4.14(.94)	4.00(1.05)
합계	남자	181	4.20(.94)	4.31(.85)	4.24(.94)
	여자	129	4.33(.87)	4.25(.94)	4.32(.94)
	소계	310	4.26(.91)	4.29(.88)	4.27(.94)

<표 III-45> 아버지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2.24	4	.56	2.16	.07
성별	1.95	2	.98	3.78	.02
학교급*성별	2.14	4	.54	2.06	.08



[그림 III-13]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는 유학 전과 유학 중, 유학을 마친 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46> 어머니와의 관계 변화- 유학 전·중·후 비교

학교급	성별	N	유학 전 M(SD)	유학 중 M(SD)	유학 후 M(SD)
초등학교	남자	59	4.51(.86)	4.58(.72)	4.49(.84)
	여자	41	4.59(.71)	4.78(.48)	4.78(.53)
	소계	100	4.54(.80)	4.66(.64)	4.61(.74)
중학교	남자	75	4.27(.83)	4.25(.92)	4.33(.88)
	여자	31	4.29(.82)	4.32(.91)	4.48(.77)
	소계	106	4.27(.82)	4.27(.91)	4.38(.85)
고등학교	남자	47	4.32(.81)	4.45(.83)	4.36(.79)
	여자	57	4.54(.93)	4.46(.95)	4.44(.98)
	소계	104	4.44(.88)	4.45(.89)	4.40(.90)
합계	남자	181	4.36(.84)	4.41(.84)	4.39(.84)
	여자	129	4.50(.84)	4.53(.83)	4.56(.82)
	소계	310	4.42(.84)	4.46(.84)	4.46(.83)

<표 III-47> 어머니와의 관계변화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1.32	3.91	.34	1.58	.18
성별	.25	1.96	.13	.59	.55
학교급*성별	1.13	3.91	.29	1.3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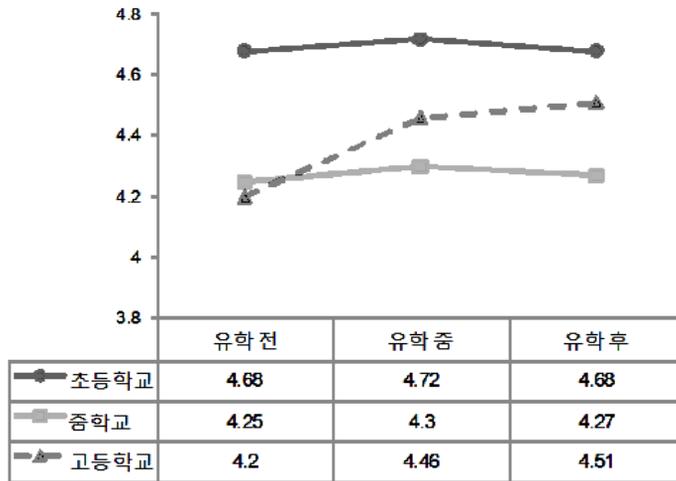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학교급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별다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중학생은 유학 전보다 유학 중이나 유학 후에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48> 형제자매와의 관계 변화- 유학 전·중·후 비교

학교급	성별	N	유학 전 M(SD)	유학 중 M(SD)	유학 후 M(SD)
초등학교	남자	59	4.68(1.48)	4.68(1.48)	4.61(1.54)
	여자	41	4.68(1.54)	4.78(1.49)	4.78(1.48)
	소계	100	4.68(1.50)	4.72(1.48)	4.68(1.51)
중학교	남자	75	4.15(1.37)	4.25(1.40)	4.21(1.40)
	여자	31	4.48(1.50)	4.42(1.54)	4.42(1.59)
	소계	106	4.25(1.41)	4.30(1.44)	4.27(1.46)
고등학교	남자	47	4.23(1.54)	4.53(1.37)	4.64(1.29)
	여자	57	4.18(1.43)	4.40(1.22)	4.40(1.25)
	소계	104	4.20(1.47)	4.46(1.28)	4.51(1.27)
합계	남자	181	4.34(1.46)	4.46(1.42)	4.45(1.43)
	여자	129	4.41(1.49)	4.53(1.39)	4.53(1.41)
	소계	310	4.37(1.47)	4.49(1.40)	4.48(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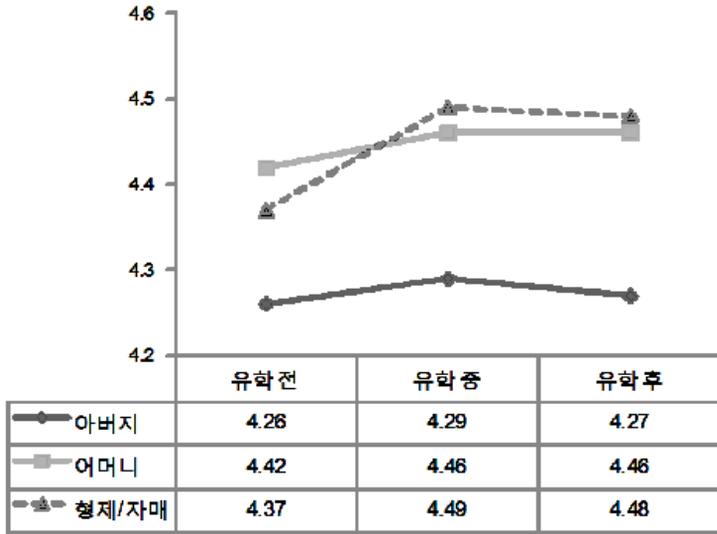
<표 III-49> 형제자매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3.39	3.62	.94	3.00	.02
성별	.11	1.81	.06	.19	.80
학교급*성별	.99	3.62	.27	.88	.47



[그림 III-14] 형제자매와의 관계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변화를 종합해 보면 조기유학을 기점으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약간씩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아버지와 관계는 유학 중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5]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변화 종합

(2) 부모-자녀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항은 아홉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요인은 ‘희생적 부모’로 명명하였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어려움을 견디어 내는 측면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은 ‘부모-자녀 동일시’라고 명명하였다. 자녀의 성공을 부모의 성공이라고 인식하고, 자신의 성공이 부모의 삶의 목표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중에 여섯 번째 문항인 ‘내가 성공하는 것이 곧 당신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 것 같다’는 첫 번째 요인인 ‘희생적 부모’에 약간 더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거의 비슷하고, 의미상으로는 두 번째 요인인 ‘부모-자녀 동일시’에 더 가깝기 때문에 향후 분석에서는 두 번째 요인에 포함시켰다.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였으나 요인으로 묶이는 양상은 네 가지 경우가 모두 같게 나타나,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년을 통합한 요인분석 표를 제시하였다.

<표 III-50> 아버지(어머니)와의 관계-요인분석

	Factor	
	1	2
1. 힘들 때에 나로 인해 힘을 얻으신다.	<i>.74(.79)</i>	.08(.05)
2. 나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i>.79(.78)</i>	.02(-.02)
3.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려고 한다.	<i>.74(.67)</i>	-.02(.05)
4. 나를 위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실 수 있다.	<i>.74(.72)</i>	.15(.19)
5. 내가 잘되는 것이라면 어떤 고생도 참아내실 것이다.	<i>.76(.72)</i>	.26(.29)
6. 내가 성공하는 것이 곧 당신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54(.50)	<i>.43(.48)</i>
7. 내가 공부를 못하면 당신이 창피하다고 하신다.	-.10(-.09)	<i>.52(.51)</i>
8. 자식이 잘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말씀하시곤 한다.	.32(.29)	<i>.72(.75)</i>
9.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나의 장래목표로 삼으신다.	.10(.09)	<i>.52(.49)</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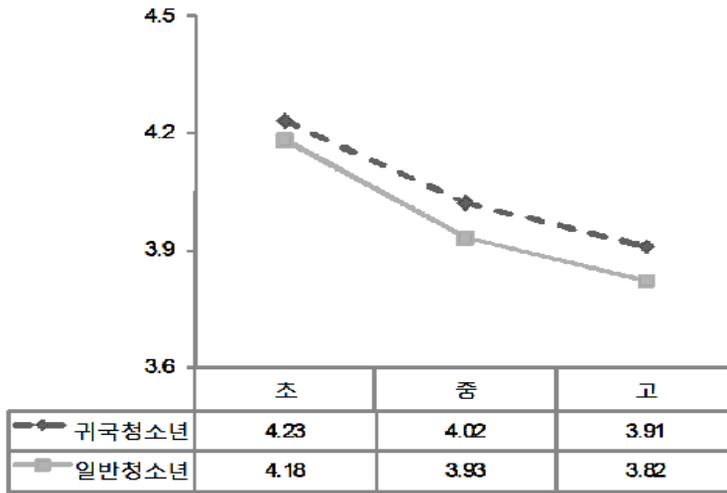
자신의 아버지를 희생적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은 귀국청소년과 유학청소년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학교급 간의 차이는 있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희생적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신과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역시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학교급별 간의 차이는 있었다. 초등학생이 그 정도가 높았고 그다음이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이었다.

<표 III-51> 희생적 아버지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4.23(.94)	a
	일반청소년	102	4.18(.69)	
	합계	202	4.21(.82)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4.02(.74)	b
	일반청소년	129	3.93(.79)	
	합계	235	3.97(.77)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91(.68)	b
	일반청소년	115	3.82(.73)	
	합계	219	3.86(.71)	
합계	귀국청소년	310	4.05(.80)	
	일반청소년	346	3.97(.75)	
	합계	656	4.01(.78)	

<표 III-52> 희생적 아버지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12.70	2	6.35	10.85	.00
유학여부	1.05	1	1.05	1.80	.18
학교급*유학여부	.05	2	.03	.05	.96
오차	380.24	650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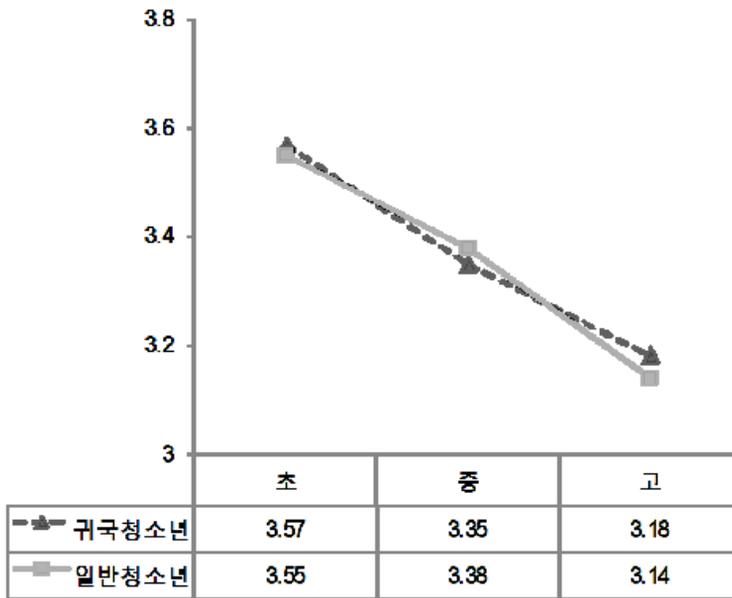
[그림 III-16] 희생적 아버지

<표 III-53> 아버지-자녀동일시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3.57(1.08)	a
	일반청소년	102	3.55(.84)	
	합계	202	3.56(.96)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3.35(.78)	b
	일반청소년	129	3.38(.72)	
	합계	235	3.36(.75)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18(.77)	c
	일반청소년	115	3.14(.76)	
	합계	219	3.16(.76)	
합계	귀국청소년	310	3.37(.90)	
	일반청소년	346	3.35(.78)	
	합계	656	3.36(.84)	

<표 III-54> 아버지-자녀동일시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16.78	2	8.39	12.32	.00
유학여부	.04	1	.04	.05	.82
학교급*유학여부	.16	2	.08	.12	.89
오차	442.91	650	.68		



[그림 III-17] 아버지-자녀동일시

자신의 어머니를 희생적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은 귀국청소년과 유학청소년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학교급 간의 차이는 있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희생적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신과 어머니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역시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학교급별 간의 차이는 있었다. 어머니-자녀 동일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만 차이가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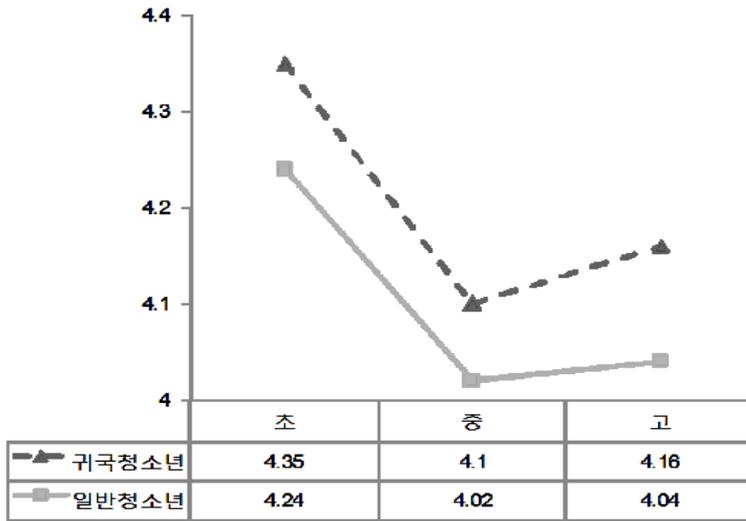
으로 발견되었는데 초등학생이 그 정도가 높았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 희생적 어머니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4.35(.88)	a
	일반청소년	102	4.24(.70)	
	합계	202	4.30(.79)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4.10(.72)	b
	일반청소년	129	4.02(.77)	
	합계	235	4.06(.74)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4.16(.72)	b
	일반청소년	116	4.04(.63)	
	합계	220	4.09(.68)	
합계	귀국청소년	310	4.20(.78)	
	일반청소년	347	4.09(.71)	
	합계	657	4.14(.74)	

<표 III-56> 희생적 어머니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6.67	2	3.34	6.12	.00
유학여부	1.71	1	1.71	3.14	.08
학교급*유학여부	.05	2	.02	.04	.96
오차	354.68	651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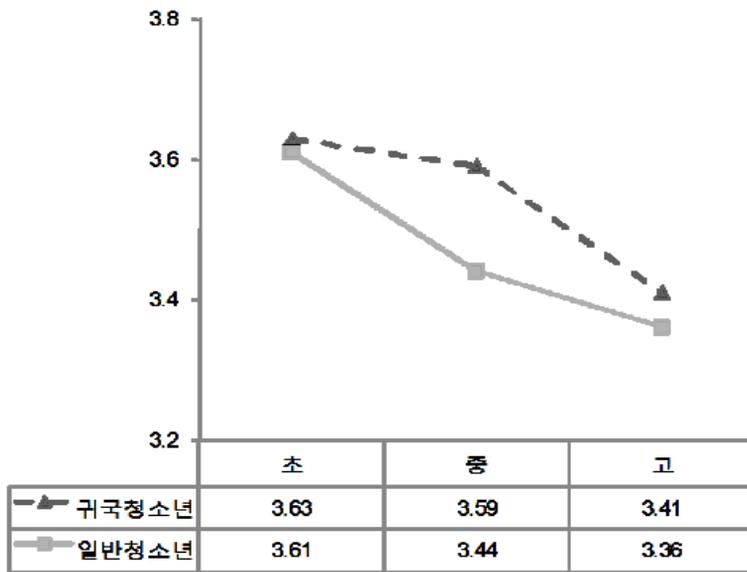
[그림 III-18] 희생적 어머니

<표 III-57> 어머니-자녀동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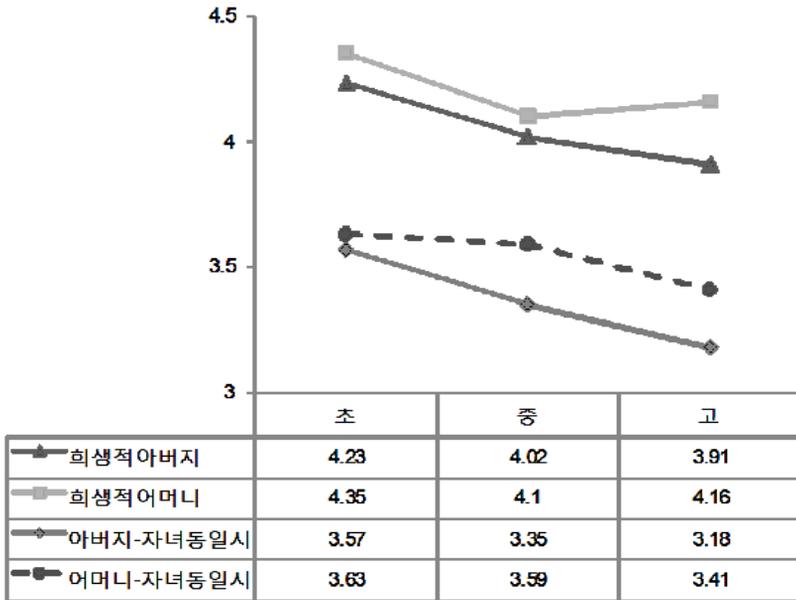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3.63(1.07)	a
	일반청소년	102	3.61(.82)	
	합계	202	3.62(.95)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3.59(.82)	a, b
	일반청소년	129	3.44(.76)	
	합계	235	3.51(.79)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41(.89)	b
	일반청소년	116	3.36(.78)	
	합계	220	3.38(.83)	
합계	귀국청소년	310	3.54(.93)	
	일반청소년	347	3.46(.79)	
	합계	657	3.50(.86)	

<표 III-58> 어머니-자녀동일시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5.84	2	2.92	3.99	.02
유학여부	.81	1	.81	1.11	.29
학교급*유학여부	.52	2	.26	.35	.70
오차	476.21	651	.73		



[그림 III-19] 어머니-자녀동일시



[그림 III-20] 귀국청소년 부모자녀관계

(3)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결과 요약

① 조기유학을 전후하여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귀국청소년은 전반적으로 가족구성원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관계 보다는 어머니나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유학을 기점으로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던지 타국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가족 간의 우의를 돈독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특히 형제자매간은 학교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성향이 자라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아버지와 관계는 유학전이나 유학 후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관계점수는 4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아버지와 관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일반청소년보다 귀국청소년이 자신의 부모를 더 희생적이라거나, 부모와 자녀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모를 희생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부모가 부모와 자식을 일심동체라고 생각한다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지각은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의 청소년이 부모의 희생정신과 동일체감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학교 생활

(1) 과목별 수업흥미도와 이해도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에 수업흥미도와 이해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영어, 과학이 포함되어 있고, 각 과목에 어느 정도 흥미가 있는지,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였다.

먼저 국어흥미도에 있어서는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의 차이가 없었고, 학교급 별간의 차이도 없었다.

<표 III-59> 국어흥미도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3.49(.99)
	일반청소년	102	3.70(.97)
	합계	202	3.59(.98)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3.58(.93)
	일반청소년	129	3.49(.94)
	합계	235	3.53(.93)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42(.95)
	일반청소년	116	3.54(.89)
	합계	220	3.49(.92)
합계	귀국청소년	310	3.50(.95)
	일반청소년	347	3.57(.93)
	합계	657	3.53(.94)

<표 III-60> 국어흥미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1.27	2	.64	.72	.49
유학여부	1.03	1	1.03	1.16	.28
학교급*유학여부	2.51	2	1.25	1.41	.25
오차	578.87	651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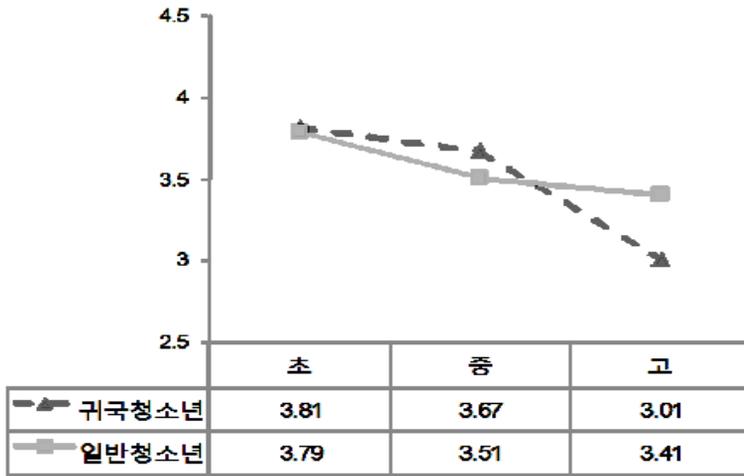
수학흥미도에 대한 분석은 학교급과 유학 여부 간의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의 수학흥미도가 낮는데, 그 떨어지는 정도가 귀국청소년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1> 수학흥미도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3.81(1.03)	
	일반청소년	102	3.79(1.12)	
	합계	202	3.80(1.08)	a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3.67(1.15)	
	일반청소년	129	3.51(1.05)	
	합계	235	3.58(1.10)	a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01(1.23)	
	일반청소년	116	3.41(1.18)	
	합계	220	3.22(1.22)	b
합계	귀국청소년	310	3.49(1.19)	
	일반청소년	347	3.56(1.13)	
	합계	657	3.53(1.16)	

<표 III-62> 수학흥미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38.63	2	19.32	15.17	.00
유학여부	.89	1	.89	.70	.40
학교급*유학여부	9.21	2	4.61	3.62	.03
오차	828.69	651	1.27		



[그림 III-21] 수학흥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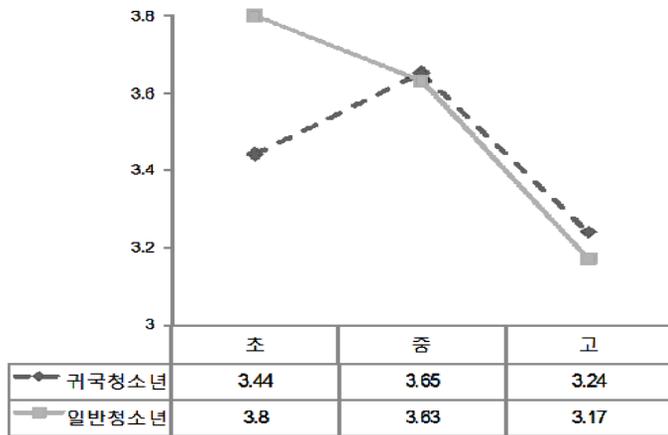
<표 III-63> 사회흥미도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99	3.44(1.19)	a
	일반청소년	102	3.80(1.25)	
	합계	201	3.63(1.23)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3.65(1.02)	a
	일반청소년	129	3.63(1.03)	
	합계	235	3.64(1.02)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24(1.13)	b
	일반청소년	116	3.17(1.21)	
	합계	220	3.20(1.17)	
합계	귀국청소년	309	3.45(1.12)	
	일반청소년	347	3.53(1.19)	
	합계	656	3.49(1.16)	

사회흥미도에 대한 분석은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학교급별 간 차이는 있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의 사회흥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4> 사회흥미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26.46	2	13.23	10.23	.00
유학여부	1.30	1	1.30	1.01	.32
학교급*유학여부	5.74	2	2.87	2.22	.11
오차	840.29	650	1.29		



[그림 III-22] 사회흥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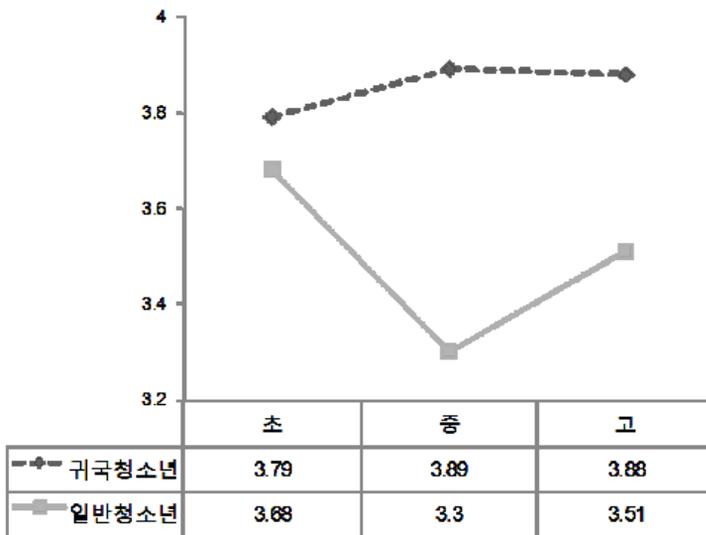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에 영어흥미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영어흥미도의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간 차이는 없었다.

<표 III-65> 영어흥미도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99	3.79(1.37)
	일반청소년	102	3.68(1.29)
	합계	201	3.73(1.33)
중학교	귀국청소년	105	3.89(1.16)
	일반청소년	129	3.30(1.12)
	합계	234	3.56(1.17)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88(.99)
	일반청소년	116	3.51(1.03)
	합계	220	3.69(1.03)
합계	귀국청소년	308	3.85(1.18)
	일반청소년	347	3.48(1.15)
	합계	655	3.66(1.18)

<표 III-66> 영어흥미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2.27	2	1.13	.84	.43
유학여부	20.69	1	20.69	15.36	.00
학교급*유학여부	6.00	2	3.00	2.23	.11
오차	874.31	649	1.35		



[그림 III-23] 영어흥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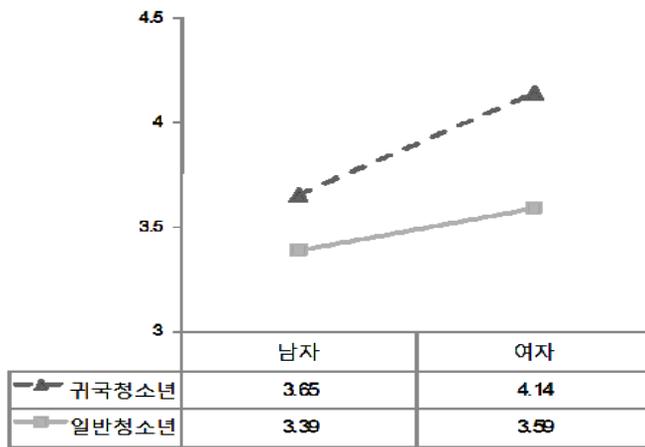
영어흥미도의 경우는 성별 간의 차이도 있었는데,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7> 영어흥미도(성별)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남자	귀국청소년	180	3.65(1.29)
	일반청소년	187	3.39(1.15)
	합계	367	3.51(1.22)
여자	귀국청소년	128	4.14(.93)
	일반청소년	160	3.59(1.15)
	합계	288	3.84(1.09)
합계	귀국청소년	308	3.85(1.18)
	일반청소년	347	3.48(1.15)
	합계	655	3.66(1.18)

<표 III-68> 영어흥미도에 대한 변량분석(성별,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성별	19.59	1	19.59	14.81	.00
유학여부	26.40	1	26.40	19.95	.00
성별*유학여부	3.18	1	3.18	2.41	.12
오차	861.29	651	1.32		



[그림 III-24] 영어흥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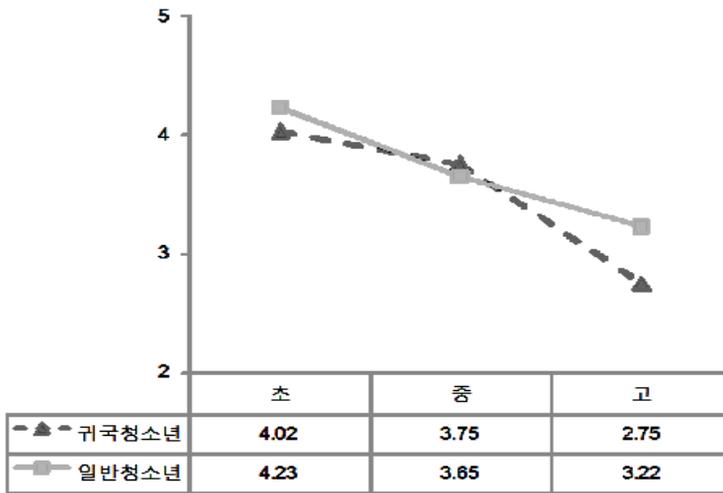
과학흥미도에 대한 분석은 학교급과 유학 여부 간의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과학흥미도가 낮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9> 과학흥미도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99	4.02(.98)	a
	일반청소년	102	4.23(.99)	
	합계	201	4.12(.99)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3.75(1.07)	b
	일반청소년	129	3.65(1.08)	
	합계	235	3.69(1.07)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2	2.75(1.38)	c
	일반청소년	116	3.22(1.38)	
	합계	218	3.00(1.40)	
합계	귀국청소년	307	3.50(1.28)	
	일반청소년	347	3.67(1.23)	
	합계	654	3.59(1.25)	

<표 III-70> 과학흥미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140.48	2	70.24	52.07	.00
유학여부	6.09	1	6.09	4.52	.03
학교급*유학여부	8.98	2	4.49	3.33	.04
오차	874.18	648	1.35		



[그림 III-25] 과학흥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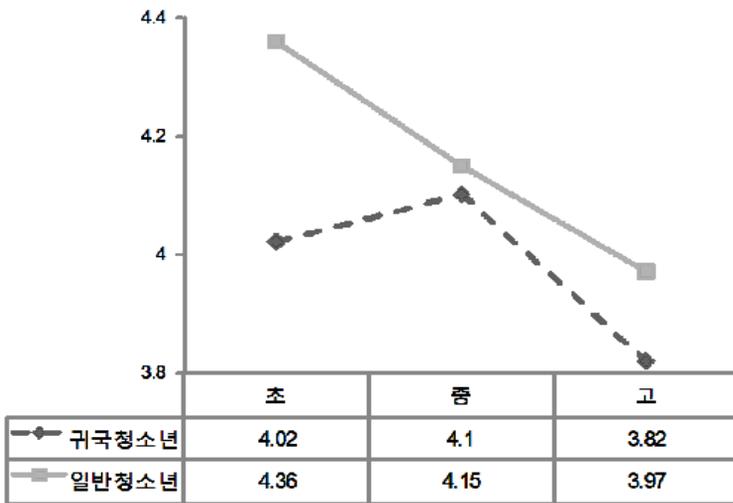
<표 III-71> 국어이해도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96	4.02(.86)	a
	일반청소년	102	4.36(.73)	
	합계	198	4.20(.81)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4.10(.83)	a
	일반청소년	129	4.15(.75)	
	합계	235	4.13(.79)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82(.89)	b
	일반청소년	116	3.97(.94)	
	합계	220	3.90(.92)	
합계	귀국청소년	306	3.98(.86)	
	일반청소년	347	4.15(.83)	
	합계	653	4.07(.85)	

국어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학교급과 유학 여부의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국어이해도가 낮았고, 일반청소년보다 귀국청소년이 국어이해도가 낮았다.

<표 III-72> 국어이해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10.64	2	5.32	7.63	.00
유학여부	5.12	1	5.12	7.34	.01
학교급*유학여부	2.42	2	1.21	1.74	.18
오차	450.99	647	.70		



[그림 III-26] 국어이해도

수학이해도에 대한 분석은 학교급과 유학여부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중학생의 경우는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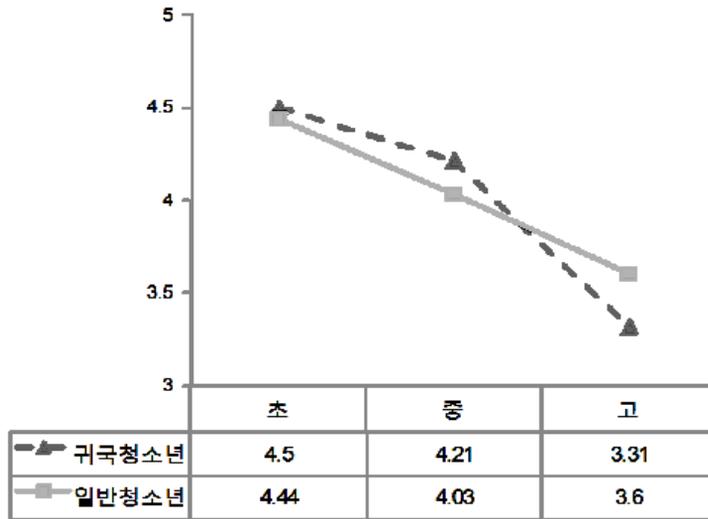
학이해도 점수가 높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일반청소년보다 귀국청소년의 이해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3> 수학기해도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96	4.50(.68)	a
	일반청소년	102	4.44(.78)	
	합계	198	4.47(.73)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4.21(.91)	b
	일반청소년	129	4.03(1.01)	
	합계	235	4.11(.97)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31(1.19)	c
	일반청소년	116	3.60(1.11)	
	합계	220	3.46(1.16)	
합계	귀국청소년	306	3.99(1.08)	
	일반청소년	347	4.01(1.04)	
	합계	653	4.00(1.06)	

<표 III-74> 수학기해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112.13	2	56.07	59.43	.00
유학여부	.07	1	.07	.07	.79
학교급*유학여부	6.72	2	3.36	3.56	.03
오차	610.37	647	.94		



[그림 III-27] 수학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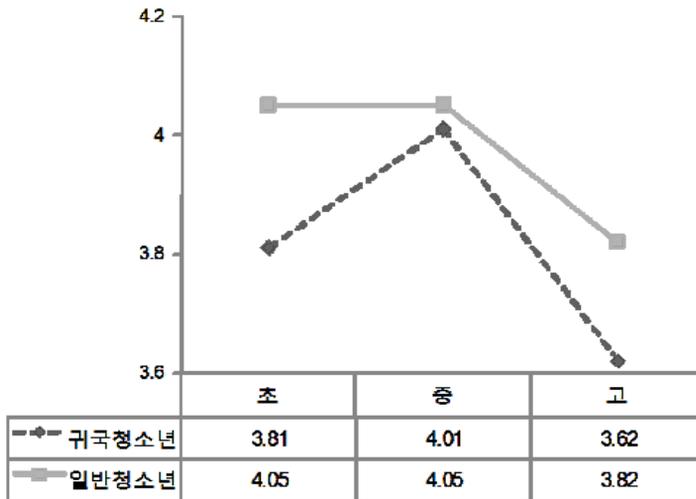
<표 III-75> 사회이해도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96	3.81(1.12)	a, b
	일반청소년	102	4.05(.93)	
	합계	198	3.93(1.03)	
중학교	귀국청소년	105	4.01(.95)	a
	일반청소년	129	4.05(.89)	
	합계	234	4.03(.91)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62(.99)	b
	일반청소년	116	3.82(1.04)	
	합계	220	3.72(1.02)	
합계	귀국청소년	305	3.81(1.03)	
	일반청소년	347	3.97(.96)	
	합계	652	3.90(.99)	

사회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학교급과 유학 여부의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과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과의 차이는 발견되었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사회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고, 전체적으로는 일반청소년보다 귀국청소년이 사회이해도가 낮았다.

<표 III-76> 사회이해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11.28	2	5.64	5.82	.00
유학여부	4.08	1	4.08	4.22	.04
학교급*유학여부	1.26	2	.63	.65	.52
오차	625.91	646	.97		



[그림 III-28] 사회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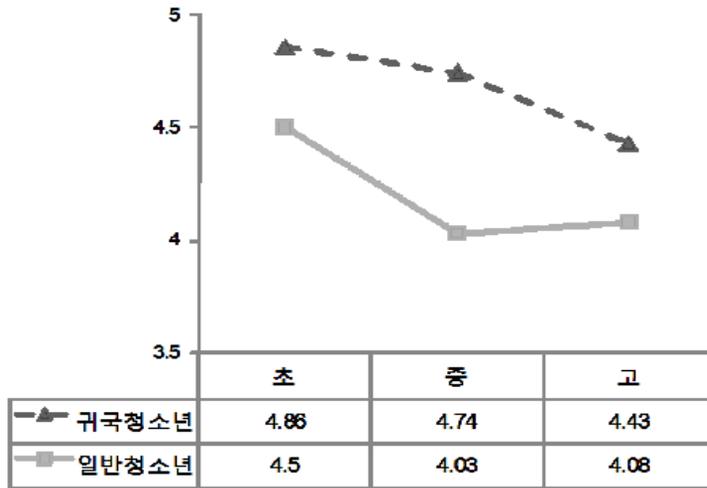
영어이해도에 대한 분석은 학교급과 유학 여부 간의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영어이해도가 낮았다.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영어이해도가 높았는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중학교 때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7> 영어이해도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96	4.86(.45)	a
	일반청소년	102	4.50(.87)	
	합계	198	4.68(.72)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4.74(.62)	b
	일반청소년	129	4.03(.95)	
	합계	235	4.35(.89)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4.43(.81)	b
	일반청소년	116	4.08(.92)	
	합계	220	4.25(.88)	
합계	귀국청소년	306	4.67(.67)	
	일반청소년	347	4.18(.94)	
	합계	653	4.41(.86)	

<표 III-78> 영어이해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19.80	2	9.90	15.43	.00
유학여부	36.47	1	36.47	56.85	.00
학교급*유학여부	4.45	2	2.23	3.47	.03
오차	415.05	647	.64		



[그림 III-29] 영어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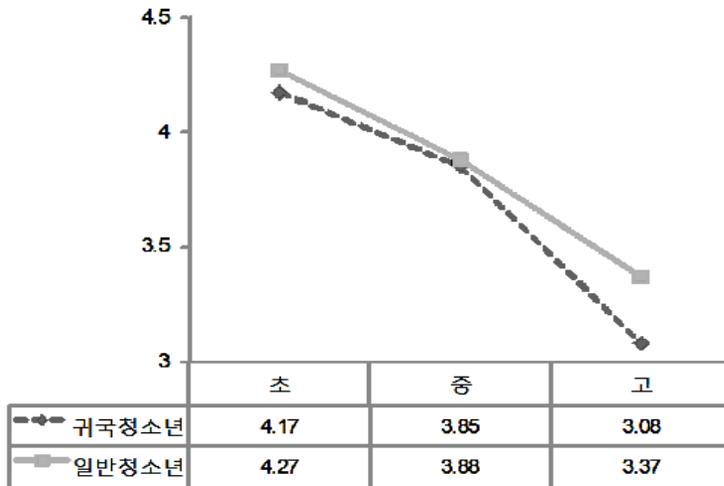
<표 III-79> 과학이해도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96	4.17(.79)	a
	일반청소년	102	4.27(.91)	
	합계	198	4.22(.86)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3.85(1.03)	b
	일반청소년	129	3.88(1.03)	
	합계	235	3.86(1.03)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3	3.08(1.20)	b
	일반청소년	116	3.37(1.25)	
	합계	219	3.23(1.23)	
합계	귀국청소년	305	3.69(1.12)	
	일반청소년	347	3.82(1.13)	
	합계	652	3.76(1.13)	

과학이해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학교급 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생의 과학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학생, 그다음이 고등학생의 순이었다.

<표 III-80> 과학이해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107.06	2	53.53	48.18	.00
유학여부	3.28	1	3.28	2.96	.09
학교급*유학여부	2.07	2	1.04	.93	.39
오차	717.69	646	1.11		



[그림 III-30] 과학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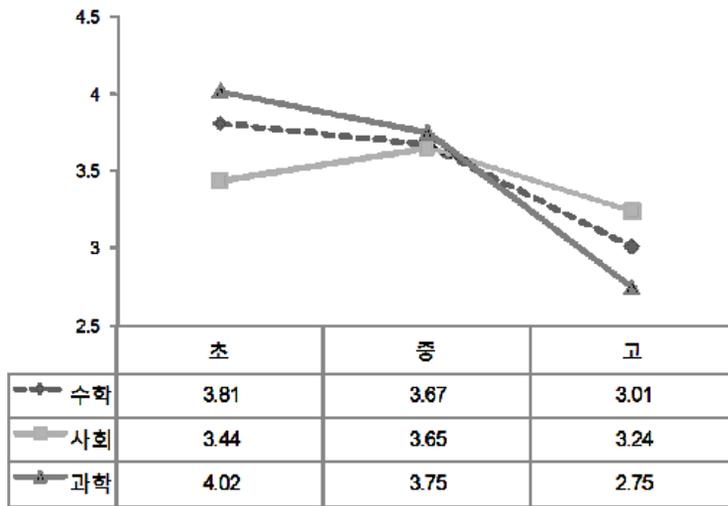
귀국청소년 만을 대상으로 학교급 별로 수업 흥미도와 수업이해도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흥미도에 있어서는 수학, 사회, 과학에 있어서 학교급 별 차이가 이었고, 이해도에 있어서는 수학, 사회, 영어, 과학에 있어서 학교급 간의 차이가 있었다. 유의미한 학교급 간의 차이를 나타낸 과목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 자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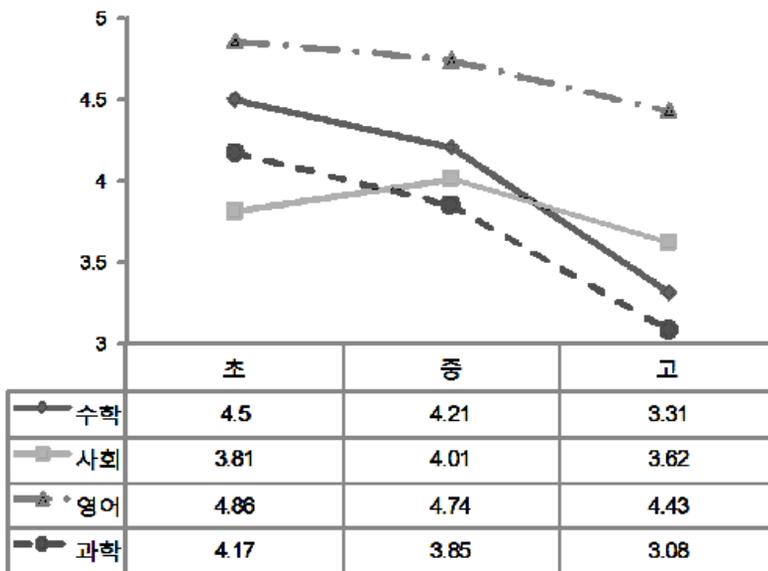
<표 III-81> 귀국청소년의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학교급	N	M(SD)	F	Sig.	Tukey's HSD
국어 흥미도	초등학교	100	3.49(.99)	.67	.51	
	중학교	106	3.58(.93)			
	고등학교	104	3.42(.95)			
	합계	310	3.50(.95)			
수학 흥미도	초등학교	100	3.81(1.03)	14.46	.00	a
	중학교	106	3.67(1.15)			a
	고등학교	104	3.01(1.23)			b
	합계	310	3.49(1.19)			
사회 흥미도	초등학교	99	3.44(1.19)	3.59	.03	a
	중학교	106	3.65(1.02)			a, b
	고등학교	104	3.24(1.13)			b
	합계	309	3.45(1.12)			
영어 흥미도	초등학교	99	3.79(1.37)	.23	.80	
	중학교	105	3.89(1.16)			
	고등학교	104	3.88(.99)			
	합계	308	3.85(1.18)			
과학 흥미도	초등학교	99	4.02(.98)	34.06	.00	a
	중학교	106	3.75(1.07)			a
	고등학교	102	2.75(1.38)			b
	합계	307	3.50(1.28)			

국어 이해도	초등학교	96	4.02(.86)	3.08	.05	
	중학교	106	4.10(.83)			
	고등학교	104	3.82(.89)			
	합계	306	3.98(.86)			
수학 이해도	초등학교	96	4.50(.68)	42.79	.00	a
	중학교	106	4.21(.91)			a
	고등학교	104	3.31(1.19)			b
	합계	306	3.99(1.08)			
사회 이해도	초등학교	96	3.81(1.12)	3.93	.02	a
	중학교	105	4.01(.95)			a, b
	고등학교	104	3.62(.99)			b
	합계	305	3.81(1.03)			
영어 이해도	초등학교	96	4.86(.45)	11.83	.00	a
	중학교	106	4.74(.62)			a
	고등학교	104	4.43(.81)			b
	합계	306	4.67(.67)			
과학 이해도	초등학교	96	4.17(.79)	29.94	.00	a
	중학교	106	3.85(1.03)			a
	고등학교	103	3.08(1.20)			b
	합계	305	3.69(1.12)			



[그림 III-31] 수업흥미도



[그림 III-32] 수업이해도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과목별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각 과목의 흥미도는 다른 과목의 흥미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 있었고, 각 과목의 이해도는 다른 과목의 이해도와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각 과목 별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 간의 상관관계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지만, 국어흥미도는 과학이해도와 무의미한 상관관계를, 수학흥미도는 국어이해도 및 사회이해도와 무의미한 상관관계, 영어흥미도는 국어이해도와 수학이해도, 과학이해도와 무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문계열의 흥미도는 수리계열의 이해도와 상관이 없었고, 어문계열의 이해도는 수리계열의 흥미도와 상관이 없었다.

<표 III-82> 과목별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의 상관관계(귀국청소년)

	국어 흥미도	수학 흥미도	사회 흥미도	영어 흥미도	과학 흥미도	국어 이해도	수학 이해도	사회 이해도	영어 이해도
수학 흥미도	.28***								
사회 흥미도	.41***	.18**							
영어 흥미도	.35***	.24***	.20***						
과학 흥미도	.18**	.49***	.20***	.14*					
국어 이해도	.44***	.09	.32***	.09	.14*				
수학 이해도	.12*	.59***	.17**	.00	.42***	.38***			
사회 이해도	.27***	.04	.66***	.09	.16**	.59***	.30***		
영어 이해도	.21***	.13*	.23***	.32***	.28***	.29***	.08***	.26***	
과학 이해도	.06	.32***	.18**	.02	.69***	.32***	.55***	.38***	.34***

*** p< .001, ** p< .01, * p< .05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과목별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에 대한 성차를 분석해 본 결과, 국어와 영어과목에서의 흥미도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은 흥미도를 보였고, 수학과 과학과목의 이해도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은 이해도를 나타내었다.

<표 III-83> 성별에 따른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에 대한 t 검증
(귀국청소년)

	성별	N	M(SD)	t	Sig.
국어흥미도	남자	181	3.40(.98)	-2.05	.04
	여자	129	3.63(.90)		
수학흥미도	남자	181	3.55(1.16)	1.03	.30
	여자	129	3.41(1.23)		
사회흥미도	남자	181	3.55(1.20)	1.58	.11
	여자	129	3.34(1.10)		
영어흥미도	남자	181	3.68(1.35)	-3.71	.00
	여자	129	4.18(1.02)		
과학흥미도	남자	181	3.65(1.27)	1.35	.18
	여자	129	3.43(1.52)		
국어이해도	남자	181	4.01(1.00)	-.80	.42
	여자	129	4.10(1.07)		
수학이해도	남자	181	4.19(1.10)	2.34	.02
	여자	129	3.87(1.34)		
사회이해도	남자	181	3.98(1.18)	1.40	.16
	여자	129	3.78(1.24)		
영어이해도	남자	181	4.72(.80)	-.27	.79
	여자	129	4.74(.87)		
과학이해도	남자	181	3.92(1.13)	2.21	.03
	여자	129	3.57(1.49)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에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 간에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업흥미도에 있어서는 영어과목에서만 차이가 검증되었는데,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수업이해도에 있어서는 국어와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낮았고, 영어이해도에 있어서는 귀국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4> 유학여부에 따른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에 대한 t 검증

	유학여부	N	M(SD)	t	Sig.
국어흥미도	귀국청소년	310	3.50(.95)	-.96	.34
	일반청소년	347	3.57(.93)		
수학흥미도	귀국청소년	310	3.49(1.19)	-.73	.47
	일반청소년	347	3.56(1.13)		
사회흥미도	귀국청소년	309	3.45(1.12)	-.89	.37
	일반청소년	347	3.53(1.19)		
영어흥미도	귀국청소년	308	3.85(1.18)	4.09	.00
	일반청소년	347	3.48(1.15)		
과학흥미도	귀국청소년	307	3.50(1.28)	-1.76	.08
	일반청소년	347	3.67(1.23)		
국어이해도	귀국청소년	306	3.98(.86)	-2.56	.01
	일반청소년	347	4.15(.83)		
수학이해도	귀국청소년	306	3.99(1.08)	-.18	.86
	일반청소년	347	4.01(1.04)		
사회이해도	귀국청소년	305	3.81(1.03)	-2.02	.04
	일반청소년	347	3.97(.96)		
영어이해도	귀국청소년	306	4.67(.67)	7.74	.00
	일반청소년	347	4.18(.94)		

과학이해도	귀국청소년	305	3.69(1.12)	-1.53	.13
	일반청소년	347	3.82(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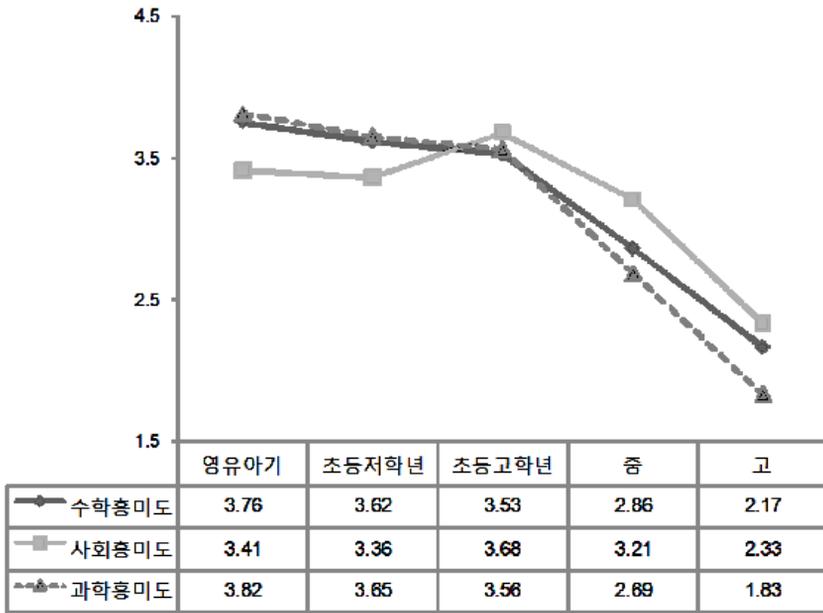
유학나간 시기가 학과목의 흥미도와 이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유학나갔던 시기가 늦어질수록 귀국 후 수업에의 적응은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수업흥미도에 있어서는 수학과 사회, 과학과목의 경우 초등학생 때 유학을 나갔다가 온 경우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유학을 나갔다가 온 경우, 수업흥미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수업이해도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표 III-85> 유학나간 시기에 따른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에 대한 변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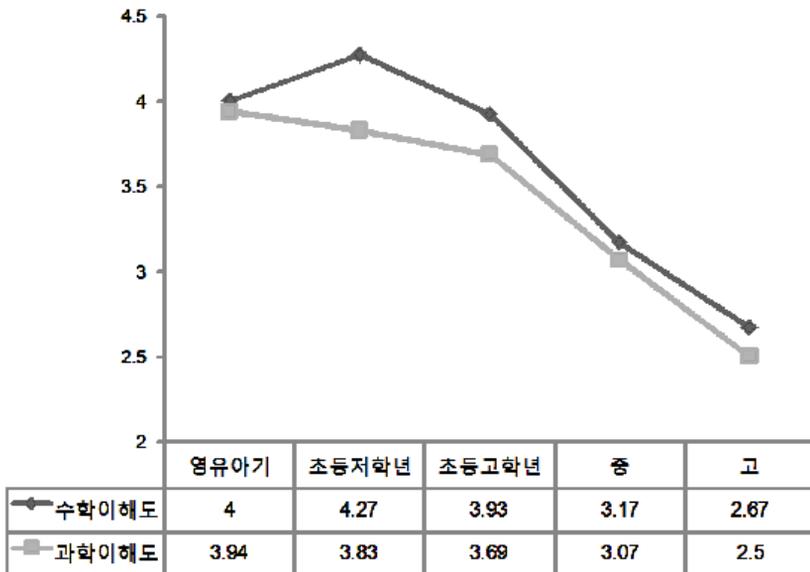
	유학나간 시기	N	M(SD)	Brown-Forsythe	Sig.	Games-Howell
국어 흥미도	영유아기	17	3.82(.81)	1.08	.37	
	초등 저학년	143	3.41(.95)			
	초등 고학년	115	3.55(.98)			
	중	29	3.52(.99)			
	고	6	3.67(.82)			
	합계	310	3.50(.95)			
수학 흥미도	영유아기	17	3.76(.90)	4.95	.00	a
	초등 저학년	143	3.62(1.13)			a
	초등 고학년	115	3.53(1.21)			a
	중	29	2.86(1.27)			a, b
	고	6	2.17(1.17)			b
	합계	310	3.49(1.19)			
사회 흥미도	영유아기	17	3.41(1.12)	3.53	.01	a
	초등 저학년	142	3.36(1.15)			a

	초등 고학년	115	3.68(1.01)			a
	중	29	3.21(1.26)			a, b
	고	6	2.33(.82)			b
	합계	309	3.45(1.12)			
	영유아기	17	3.94(1.44)			
영어 흥미도	초등 저학년	142	3.82(1.24)			
	초등 고학년	114	3.89(1.08)	.64	.64	
	중	29	3.72(1.16)			
	고	6	4.50(.84)			
	합계	308	3.85(1.18)			
	영유아기	17	3.82(1.29)			a
과학 흥미도	초등 저학년	141	3.65(1.23)			a, b
	초등 고학년	114	3.56(1.20)	6.60	.00	a, b
	중	29	2.69(1.34)			b, c
	고	6	1.83(1.17)			c
	합계	307	3.50(1.28)			
	영유아기	17	3.94(.66)			
국어 이해도	초등 저학년	139	4.00(.87)			
	초등 고학년	115	3.97(.89)	.15	.96	
	중	29	3.93(.92)			
	고	6	4.17(.75)			
	합계	306	3.98(.86)			
	영유아기	17	4.00(.87)			a, b
수학 이해도	초등 저학년	139	4.27(.91)			a
	초등 고학년	115	3.93(1.11)	10.33	.00	a, b
	중	29	3.17(1.26)			b, c
	고	6	2.67(.82)			c
	합계	306	3.99(1.08)			

	영유아기	17	3.71(.85)		
	초등 저학년	139	3.80(1.03)		
사회 이해도	초등 고학년	114	3.89(1.02)	1.05	.38
	중	29	3.76(1.22)		
	고	6	3.17(.41)		
	합계	305	3.81(1.03)		
	영유아기	17	4.71(.69)		
	초등 저학년	139	4.76(.55)		
영어 이해도	초등 고학년	115	4.62(.72)	1.47	.22
	중	29	4.45(.95)		
	고	6	4.67(.52)		
	합계	306	4.67(.67)		
	영유아기	17	3.94(.90)		a
	초등 저학년	139	3.83(1.07)		a
과학 이해도	초등 고학년	114	3.69(1.11)	4.46	.01
	중	29	3.07(1.19)		
	고	6	2.50(1.38)		
	합계	305	3.69(1.12)		b



[그림 III-33] 수업흥미도



[그림 III-34] 수업이해도

유학기간과 귀국 후에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일부과목의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에 영향을 미쳤다. 유학기간이 길수록 국어이해도는 떨어지고 영어이해도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 후에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즉 유학을 갔다 온 시기가 오래될수록 국어흥미도, 과학흥미도, 영어이해도, 과학이해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6> 유학기간, 귀국 후 국내 거주기간, 수업흥미도, 수업이해도 간의 상관관계

	국어 흥미도	수학 흥미도	사회 흥미도	영어 흥미도	과학 흥미도	국어 이해도	수학 이해도	사회 이해도	영어 이해도	과학 이해도
유학 기간	.04	.03	.05	.07	.03	-.13*	-.11	-.05	.13*	-.03
귀국후 거주 기간	-.13*	-.09	-.05	-.05	-.18**	.01	-.03	.01	-.16**	-.15*

*** p< .001, ** p< .01, * p< .05

유학 국가의 종류는 수업흥미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수업이해도에는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북미지역으로 유학을 갔다 온 학생들이 수학과 영어, 과학과목에 있어서 수업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7> 유학국가에 따른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 대한 변량분석

	국가	N	M(SD)	F	Sig.	Tukey's HSD
국어 흥미도	북미	167	3.46(.90)	.37	.69	
	아시아	85	3.51(1.04)			
	기타	58	3.59(.97)			
	합계	310	3.50(.95)			
수학	북미	167	3.55(1.15)	.89	.41	

	아시아	85	3.51(1.23)		
흥미도	기타	58	3.31(1.25)		
	합계	310	3.49(1.19)		
	북미	166	3.42(1.10)		
사회 흥미도	아시아	85	3.41(1.14)	.55	.58
	기타	58	3.59(1.19)		
	합계	309	3.45(1.12)		
	북미	165	3.88(1.13)		
영어 흥미도	아시아	85	3.74(1.26)	.57	.57
	기타	58	3.93(1.18)		
	합계	308	3.85(1.18)		
	북미	166	3.57(1.22)		
과학 흥미도	아시아	84	3.45(1.33)	.63	.54
	기타	57	3.37(1.36)		
	합계	307	3.50(1.28)		
	북미	164	4.01(.86)		
국어 이해도	아시아	85	4.01(.87)	.68	.51
	기타	57	3.86(.88)		
	합계	306	3.98(.86)		
	북미	164	4.12(1.03)		a
수학 이해도	아시아	85	3.98(1.01)	4.15	a, b
	기타	57	3.65(1.25)	.02	b
	합계	306	3.99(1.08)		
사회 이해도	북미	164	3.84(1.04)	.14	.87
	아시아	85	3.81(1.05)		

	기타	56	3.75(.98)			
	합계	305	3.81(1.03)			
영어 이해도	북미	164	4.74(.57)			a
	아시아	85	4.49(.85)			b
	기타	57	4.74(.58)	4.28	.02	a
	합계	306	4.67(.67)			
과학 이해도	북미	164	3.80(1.05)			a
	아시아	85	3.75(1.14)			a
	기타	56	3.27(1.20)	5.01	.01	b
	합계	305	3.69(1.12)			

조기유학 시절에 한국어교재를 사용한 것이 귀국 후의 수업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귀국청소년이 유학 당시 한국어 교재로 학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이해도에 있어서 한국어 교재 학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의 수학교과 내용이 다르고, 문제풀이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유학을 가서도 한국어 교재로 한국식으로 수학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귀국 후에 수학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표 III-88> 한국어교재 사용여부에 따른 수업 흥미도와 수업 이해도에 대한
t 검증(귀국청소년)

	한국어교재사용	N	M(SD)	t	Sig.
국어흥미도	예	218	3.52(.95)	.74	.46
	아니오	92	3.43(.96)		
수학흥미도	예	218	3.49(1.17)	-.17	.87
	아니오	92	3.51(1.25)		
사회흥미도	예	217	3.44(1.15)	-.21	.83
	아니오	92	3.47(1.04)		
영어흥미도	예	216	3.82(1.24)	-.85	.40
	아니오	92	3.93(1.03)		
과학흥미도	예	216	3.52(1.25)	.45	.65
	아니오	91	3.45(1.35)		
국어이해도	예	214	4.00(.84)	.75	.46
	아니오	92	3.92(.92)		
수학이해도	예	214	4.08(.99)	1.94	.05
	아니오	92	3.79(1.25)		
사회이해도	예	214	3.82(1.03)	.12	.90
	아니오	91	3.80(1.02)		
영어이해도	예	214	4.67(.71)	-.20	.84
	아니오	92	4.68(.57)		
과학이해도	예	213	3.76(1.06)	1.51	.13
	아니오	92	3.53(1.24)		

귀국 후에 사교육을 받은 것이 수업흥미도와 이해도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귀국청소년의 90.3%(310명 중

280명)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사교육을 받고 있는 귀국청소년은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귀국청소년보다 수학흥미도와 국어이해도, 수학기해도, 과학이해도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89> 사교육 여부에 따른 수업 흥미도와 수업 이해도에 대한 t 검증(귀국청소년)

	사교육 여부	N	M(SD)	t	Sig.
국어흥미도	예	280	3.50(.95)	.17	.86
	아니오	30	3.47(1.01)		
수학흥미도	예	280	3.56(1.17)	2.77	.01
	아니오	30	2.90(1.24)		
사회흥미도	예	279	3.46(1.13)	.43	.67
	아니오	30	3.37(1.07)		
영어흥미도	예	279	3.84(1.18)	-.69	.49
	아니오	29	4.00(1.20)		
과학흥미도	예	277	3.54(1.25)	1.48	.15
	아니오	30	3.13(1.46)		
국어이해도	예	276	4.01(.87)	2.35	.02
	아니오	30	3.67(.76)		
수학기해도	예	276	4.06(1.06)	3.12	.00
	아니오	30	3.40(1.10)		
사회이해도	예	275	3.83(1.04)	1.10	.28
	아니오	30	3.63(.93)		
영어이해도	예	276	4.70(.65)	1.42	.17
	아니오	30	4.47(.86)		
과학이해도	예	275	3.73(1.12)	2.31	.03
	아니오	30	3.27(1.05)		

청소년 본인이 얼마나 유학을 가고 싶었는지 또 얼마나 귀국을 하고 싶었는가 하는 것이 귀국 후의 수업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것에 대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청소년이 조기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컸고, 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귀국 후의 적응은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관 분석 결과, 유학 의향은 수학흥미도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지 않았고, 귀국의향은 국어흥미도와 영어흥미도, 과학흥미도와만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었다.

<표 III-90> 유학의향, 귀국의향, 수업흥미도, 수업이해도의 간의 상관관계

	국어 흥미도	수학 흥미도	사회 흥미도	영어 흥미도	과학 흥미도	국어 이해도	수학 이해도	사회 이해도	영어 이해도	과학 이해도
유학 의향	.04	.12*	.04	.09	.05	-.06	-.02	.00	.08	-.02
귀국 의향	.17**	.10	.03	.12*	.13*	.07	.01	.03	.06	.05

*** p< .001, ** p< .01, * p< .05

(2) 사교육유형과 과목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귀국청소년의 90.3%, 일반청소년의 88.5%는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대부분의 청소년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표 III-91> 사교육여부

유학여부	사교육 여부(%)		합계	$\chi^2 = .59(ns)$
	예	아니오		
귀국청소년	280 (90.3)	30 (9.7)	310 (100)	
일반청소년	307 (88.5)	40 (11.5)	347 (100)	
합계	587 (89.3)	70 (10.7)	657 (100)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사교육의 형태로 선택하는 것은 학원교사가 가장 많았고, 부모님으로부터 학습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부모님과 학원교사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이 학원교사와 같은 정도의 양과 질로 지도했다기 보다는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질문하고 답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개인과외를 받는 경우도 상당 수 있었으며,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사교육 유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표 III-92> 사교육유형*

유학여부	사교육 유형(%)								합계
	학원 교사	개인 과외 교사	학습지 교사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인터넷 강의	
귀국청소년	217 (77.5)	93 (33.2)	29 (10.4)	116 (41.4)	29 (10.4)	10 (3.6)	38 (13.6)	2 (.7)	280
일반청소년	233 (75.9)	101 (32.9)	38 (12.4)	101 (32.9)	47 (15.3)	13 (4.2)	49 (16.0)	4 (1.3)	307
합계	450	194	67	217	76	23	87	6	587

* 다중응답문항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사교육과목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한국어 사교육은 두 배 정도, TOEFL이나 SAT준비에 대한 사교육은 약 3배 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수학은 귀국청소년(79.3%)과 일반청소년(84.0%)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고 있었다.

<표 III-93> 유학여부에 따른 사교육과목*

유학여부	사교육과목(%)					
	외국어	한국어	TOEFL이나 SAT 준비	사회(국사)관련 교과목	수학	과학(자연)관련 교과목
귀국청소년	161 (57.5)	117 (41.8)	61 (21.8)	46 (16.4)	222 (79.3)	49 (17.5)
일반청소년	211 (68.7)	84 (27.4)	24 (7.8)	43 (14.0)	258 (84.0)	66 (21.5)
합계	372	201	85	89	480	115

* 다중응답문항

<표 III-93> 유학여부에 따른 사교육과목(계속)

유학여부	사교육과목(%)					합계
	악기	스포츠	학교수제나 과제물해결	한자	기타	
귀국청소년	56 (20.0)	43 (15.4)	26 (9.3)	39 (13.9)	6 (2.1)	280
일반청소년	66 (21.5)	40 (13.0)	37 (12.1)	28 (9.1)	10 (3.3)	307
합계	122	83	63	67	16	587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급별로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과목을 조사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국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한국어와 TOEFL이나 SAT준비에 대한 사교육 비율이 높았고, 나머지 과목의 사교육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학생의 경우는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TOEFL이나 SAT준비에 대한 사교육 비율이 높았으나 외국어 사교육 비율은 일반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비슷한 비율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귀국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한국어 사교육과 TOEFL이나 SAT준비에 대한 사교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4> 학교급에 따른 사교육과목*

학교급	유학여부	사교육과목(%)					
		외국어	한국어	TOEFL이나 SAT 준비	사회(국사) 관련 교과목	수학	과학(자연) 관련 교과목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64 (67.4)	44 (46.3)	11 (11.6)	25 (26.3)	73 (76.8)	12 (12.6)
	일반청소년	68 (70.8)	28 (29.2)	5 (5.2)	20 (20.8)	78 (81.3)	17 (17.7)
	합계	132	72	16	45	151	29
중학교	귀국청소년	47 (50.0)	35 (37.2)	29 (30.9)	16 (17.0)	80 (85.1)	22 (23.4)
	일반청소년	81 (72.3)	32 (28.6)	13 (11.6)	17 (15.2)	97 (86.6)	28 (25.0)
	합계	128	67	42	33	177	50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50 (54.9)	38 (41.8)	21 (23.1)	5 (5.5)	69 (75.8)	15 (16.5)
	일반청소년	62 (62.6)	24 (24.2)	6 (6.1)	6 (6.1)	83 (83.8)	21 (21.2)
	합계	112	62	11	11	152	36

* 다중응답문항

(3) 학업스트레스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유학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학교급 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94> 학교급에 따른 사교육과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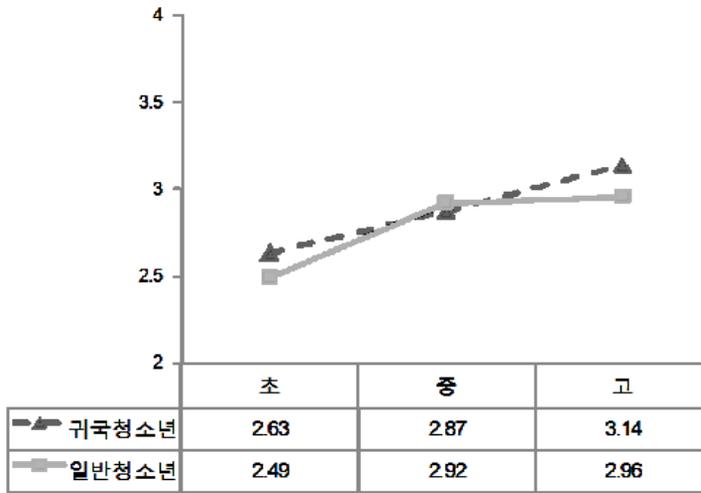
학교급	유학여부	사교육과목(%)					합계
		악기	스포츠	학교숙제 나 과제물 해결	한자	기타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36 (37.9)	30 (31.6)	10 (10.5)	24 (25.3)	1 (1.1)	95
	일반청소년	36 (37.5)	29 (30.2)	16 (16.7)	15 (15.6)	6 (6.3)	96
	합계	72	59	26	39	7	191
중학교	귀국청소년	11 (11.7)	10 (10.6)	11 (11.7)	13 (13.8)	1 (1.1)	94
	일반청소년	20 (17.9)	6 (5.4)	11 (9.8)	11 (9.8)	1 (.9)	112
	합계	31	16	22	24	2	206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9 (9.9)	3 (3.3)	5 (5.5)	2 (2.2)	4 (4.4)	91
	일반청소년	10 (10.1)	5 (5.1)	10 (10.1)	2 (2.0)	3 (3.0)	99
	합계	19	8	15	4	7	190

<표 III-95> 학업 스트레스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98	2.63(.88)	a
	일반청소년	102	2.49(.92)	
	합계	200	2.56(.90)	
중학교	귀국청소년	101	2.87(.93)	b
	일반청소년	129	2.92(.75)	
	합계	230	2.90(.83)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14(.73)	b
	일반청소년	116	2.96(.75)	
	합계	220	3.04(.74)	
합계	귀국청소년	303	2.88(.87)	
	일반청소년	347	2.81(.83)	
	합계	650	2.84(.85)	

<표 III-96>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26.03	2	13.01	19.17	.00
유학여부	1.32	1	1.32	1.95	.16
학교급*유학여부	1.64	2	.82	1.21	.30
오차	437.15	644	.68		



[그림 III-35] 학업스트레스

(4)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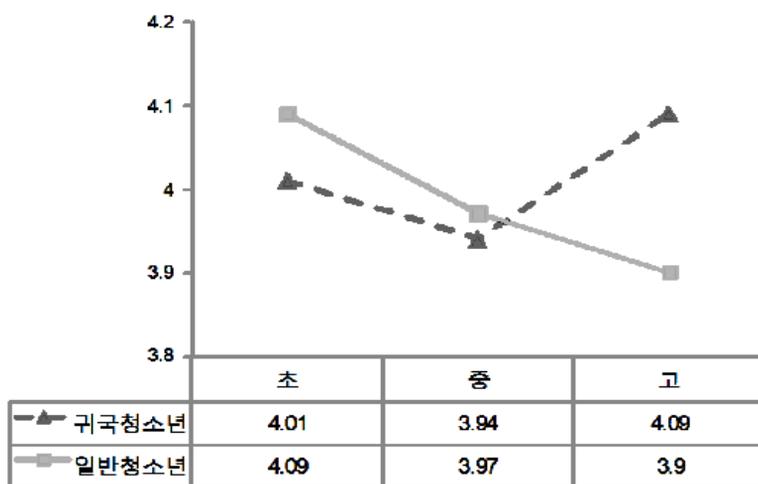
친구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을 살펴본 결과, 학교급과 유학여부가 상호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귀국청소년이 친구관계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귀국청소년이 친구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7> 친구관계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4.01(.63)
	일반청소년	102	4.09(.57)
	합계	202	4.05(.60)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3.94(.60)
	일반청소년	129	3.97(.55)
	합계	235	3.96(.57)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4.09(.47)
	일반청소년	116	3.90(.49)
	합계	220	3.99(.49)
합계	귀국청소년	310	4.01(.57)
	일반청소년	347	3.98(.54)
	합계	657	4.00(.56)

<표 III-98> 친구관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98	2	.49	1.60	.20
유학여부	.13	1	.13	.42	.52
학교급*유학여부	2.10	2	1.05	3.42	.03
오차	199.23	651	.31		



[그림 III-36] 친구관계

(5) 교사와의 관계

담임선생님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학교급 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본인의 담임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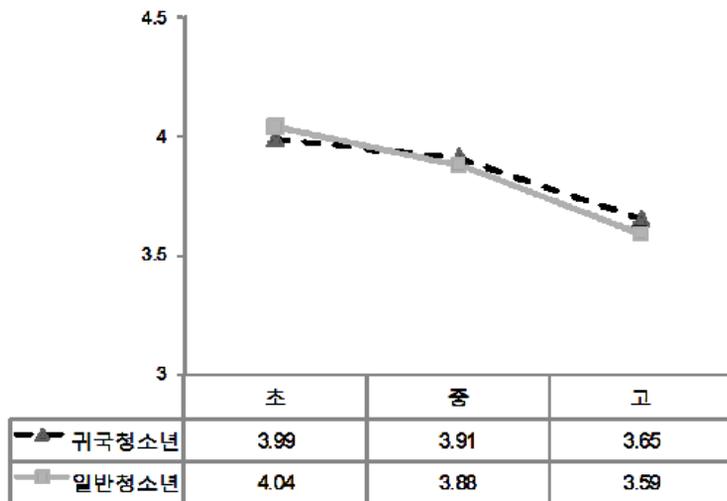
<표 III-99> 교사관계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3.99(.74)	a
	일반청소년	102	4.04(.93)	
	합계	202	4.01(.84)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3.91(.74)	a
	일반청소년	129	3.88(.79)	
	합계	235	3.90(.76)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65(.71)	b
	일반청소년	116	3.59(.71)	
	합계	220	3.53(.70)	

	귀국청소년	310	3.85(.74)
합계	일반청소년	347	3.81(.83)
	합계	657	3.83(.79)

<표 III-100> 교사관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19.85	2	9.93	16.73	.00
유학여부	.17	1	.17	.29	.59
학교급*유학여부	.75	2	.38	.63	.53
오차	386.28	651	.59		



[그림 III-37] 교사관계

(6) 학교생활에 대한 결과 요약

① 수업 흥미도와 수업 이해도에 있어서 대체로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과목을 살펴보면 영어흥미도와 영어이해도는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어이해도와 사회이해도도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는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가 높지 않았고, 국어와 사회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유학 나간 시기가 학과목에 대한 수업 흥미도와 이해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초등학교 때 보다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조기유학을 갔다 온 청소년이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정 기간 조기유학 한 후 다시 귀국할 것이라면 초등학교시절에 조기유학을 갔다 오는 것이, 귀국 후의 수업 적응을 생각했을 때 더 나은 계획이 될 수 있다.

③ 귀국청소년도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사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일반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어에 대한 사교육 비율과 TOEFL이나 SAT와 같은 일종의 영어인증시험을 위한 사교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과목의 선정이 학생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부모의 선택일 경우가 많으므로, 귀국청소년의 학부모는 조기유학 한 후 일종의 영어인증시험을 준비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TOEFL이나 SAT는 미국 대학을 입학 할 때 필요한 시험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를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학에 대한 사교육의 경우 일반청소년과 귀국청소년 간의 차이는 없었는데, 한국의 수학교과 내용이 어려운데다가, 수학 점수가 학생을 선별하는 여러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④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친구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일반 청소년이 친구관계 점수가 더 높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귀국청소년이 친구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도 초등학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의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친구관계 점수가 낮았는데, 귀국청소년은 오히려 고등학생의 친구관계 점수가 더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⑤ 교사와의 관계는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관계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유학 여부보다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학교생활에서 교사는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멘토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한 성인이다. 학교급을 막론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관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로 결정에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때 교사와의 관계가 그전만 못해진다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에 교사와의 관계 점수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귀국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배려가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귀국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교사의 역할이 미진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4)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적 사고방식, 이문화 수용도

(1)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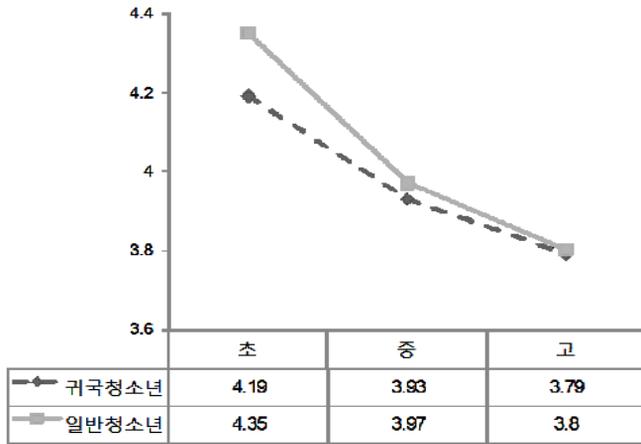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조기유학의 경험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급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1>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4.19(.75)	a
	일반청소년	102	4.35(.63)	
	합계	202	4.27(.70)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3.93(.77)	b
	일반청소년	129	3.97(.77)	
	합계	235	3.95(.76)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79(.63)	b
	일반청소년	116	3.80(.68)	
	합계	220	3.80(.66)	
합계	귀국청소년	310	3.96(.74)	
	일반청소년	347	4.02(.73)	
	합계	657	4.00(.73)	

<표 III-102>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24.09	2	12.05	24.01	.00
유학여부	.83	1	.83	1.65	.20
학교급*유학여부	.62	2	.31	.61	.54
오차	326.64	651	.50		



[그림 III-38] 자긍심

(2) 한국적 사고방식

한국적 사고방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학교급과 유학여부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일반청소년이 더 높았지만 고등학생은 그 반대로 귀국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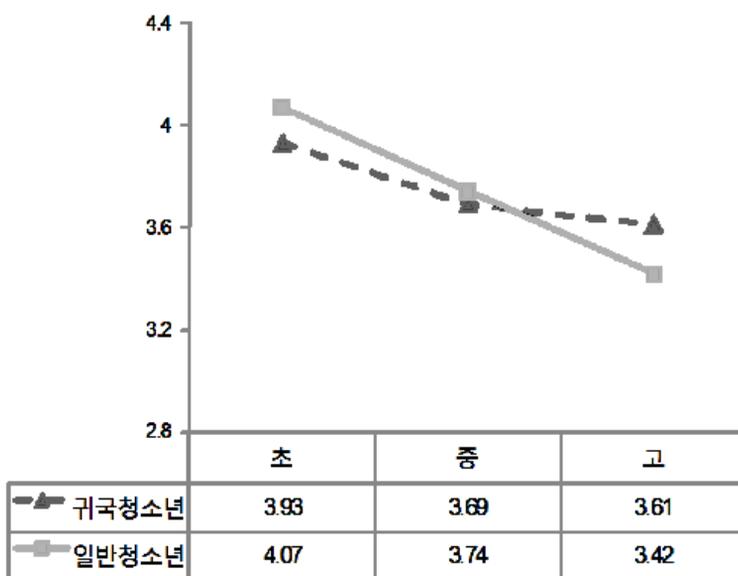
<표 III-103> 한국적 사고방식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3.93(.64)	a
	일반청소년	102	4.07(.66)	
	합계	202	4.00(.65)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3.69(.60)	b
	일반청소년	129	3.74(.57)	
	합계	235	3.72(.59)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61(.59)	c
	일반청소년	116	3.42(.58)	
	합계	220	3.51(.59)	

	귀국청소년	310	3.74(.63)
합계	일반청소년	347	3.73(.65)
	합계	657	3.74(.64)

<표 III-104> 한국적 사고방식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24.52	2	12.26	33.57	.00
유학여부	.00	1	.00	.00	.97
학교급*유학여부	2.94	2	1.47	4.03	.02
오차	237.72	651	.37		



[그림 III-39] 한국적 사고

(3) 이문화 수용도

이문화에 대한 태도는 학교급 간이 차이도 없었고,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차이도 없었다.

<표 III-105> 이문화 태도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3.91(.77)
	일반청소년	102	3.94(.79)
	합계	202	3.93(.78)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4.15(.63)
	일반청소년	129	3.92(.78)
	합계	235	4.02(.72)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4.14(.71)
	일반청소년	116	4.00(.67)
	합계	220	4.06(.69)
합계	귀국청소년	310	4.07(.71)
	일반청소년	347	3.95(.75)
	합계	657	4.0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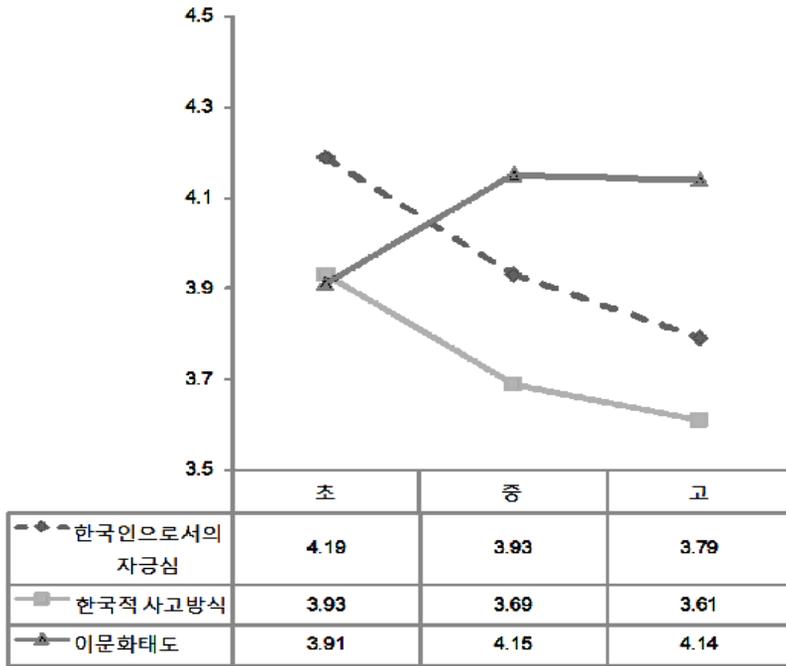
<표 III-106> 이문화 태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2.28	2	1.14	2.14	.12
유학여부	2.12	1	2.12	4.00	.15
학교급*유학여부	1.91	2	.96	1.80	.17
오차	345.68	651	.53		

귀국청소년 만을 대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한국적 사고방식, 이문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학교급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한국적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문화 수용도에 있어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7> 귀국청소년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적 사고방식, 이문화 태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학교급	N	M(SD)	F	Sig.	Tukey's HSD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초등학교	100	4.19(.75)	8.05	.00	a
	중학교	106	3.93(.77)			b
	고등학교	104	3.79(.63)			b
한국적 사고방식	초등학교	100	3.93(.64)	7.62	.00	a
	중학교	106	3.69(.61)			b
	고등학교	104	3.61(.59)			b
이문화 태도	초등학교	100	3.91(.77)	3.75	.03	a
	중학교	106	4.15(.63)			b
	고등학교	104	4.14(.71)			a, b



[그림 III-40] 귀국청소년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적 사고방식, 이문화태도

(4)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적 사고방식, 이문화 수용도에 대한 결과 요약

① 청소년이 지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조기유학이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을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한국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서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집단 모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은 자신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한국적 사고방식이란 한국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에 조기유학을 경험하게 되면 외국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민감해져 한국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기 보다 서구 방식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이 항목을 측정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한국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일반청소년보다 귀국청소년이 더 한국적 사고방식을 많이 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이문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에 차이가 없었는데, 일반청소년도 귀국청소년과 같은 정도로 이문화에 대한 개방적이었다.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5점 척도에서 4점 근처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이문화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5) 심리정서 발달

조기유학 경험이 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열등감,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문항 중 3, 5, 8, 9, 10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1)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정서발달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정서발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열등감, 불안, 우울, 문제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의 상관이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열등감, 불안, 우울, 문제행동과 부적의 상관이 있었다. 열등감, 불안, 우울, 문제행동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III-108> 심리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학업 스트레스	열등감	불안	우울	자아 존중감
열등감	.51***				
불안	.44***	.63***			
우울	.44***	.50***	.51***		
자아존중감	-.44***	-.56***	-.42***	-.52***	
문제행동	.23***	.20***	.24***	.30***	-.28***

*** p< .001, ** p< .01, * p< .05

(2) 열등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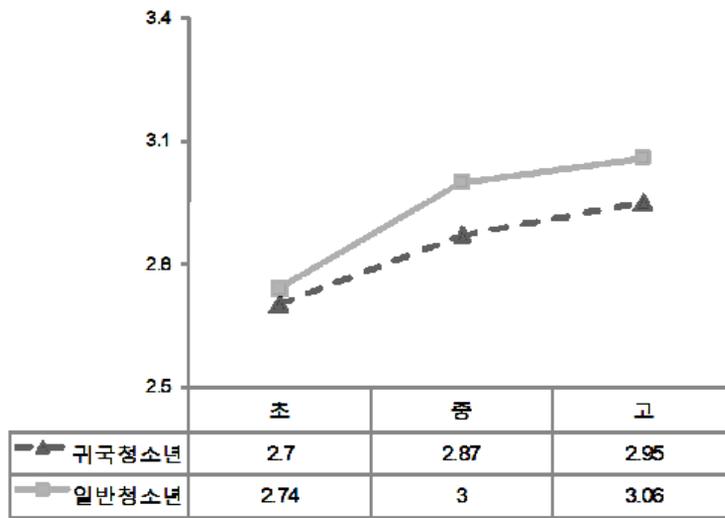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열등감이 더 높지는 않았지만,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열등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9> 열등감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2.70(.75)	a
	일반청소년	102	2.74(.88)	
	합계	202	2.72(.81)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2.87(.74)	b
	일반청소년	129	3.00(.64)	
	합계	235	2.94(.69)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2.95(.69)	b
	일반청소년	116	3.06(.68)	
	합계	220	3.00(.69)	
합계	귀국청소년	310	2.84(.73)	
	일반청소년	347	2.94(.74)	
	합계	657	2.89(.74)	

<표 III-110> 열등감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8.73	2	4.37	8.22	.00
유학여부	1.36	1	1.36	2.55	.11
학교급*유학여부	.23	2	.11	.21	.81
오차	345.90	651			



[그림 III-41] 열등감

(3)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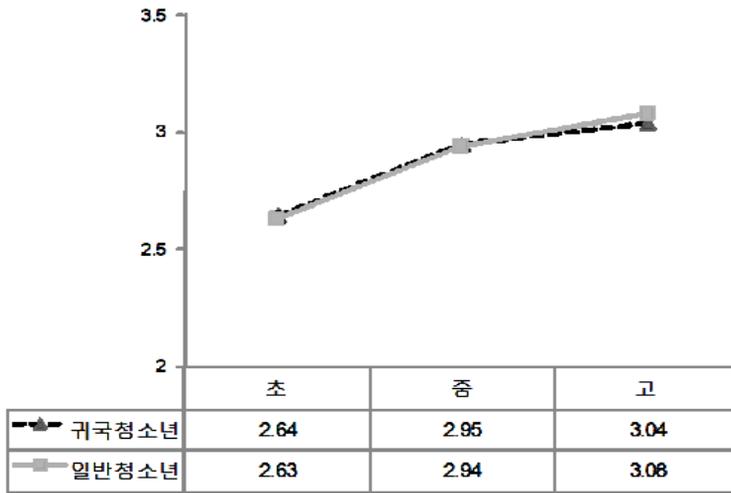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불안을 더 느끼지는 않았지만,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1> 불안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2.64(.92)	a
	일반청소년	102	2.63(.95)	
	합계	202	2.63(.94)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2.95(.89)	b
	일반청소년	129	2.94(.80)	
	합계	235	2.94(.84)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04(.82)	b
	일반청소년	116	3.08(.74)	
	합계	220	3.06(.78)	
합계	귀국청소년	310	2.88(.89)	
	일반청소년	347	2.89(.85)	
	합계	657	2.89(.87)	

<표 III-112> 불안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20.03	2	10.02	13.79	.00
유학여부	.01	1	.01	.01	.92
학교급*유학여부	.08	2	.04	.06	.95
오차	472.98	651	.73		



[그림 III-42] 불안

(4) 우울

우울 역시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급 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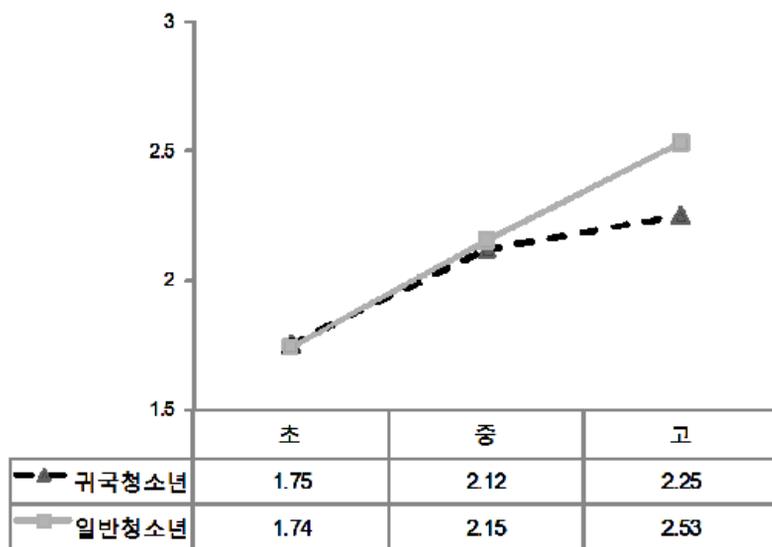
<표 III-113> 우울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1.75(.86)	a
	일반청소년	102	1.74(.98)	
	합계	202	1.74(.92)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2.12(1.01)	b
	일반청소년	129	2.15(.96)	
	합계	235	2.14(.98)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2.25(.92)	c
	일반청소년	116	2.53(1.00)	
	합계	220	2.40(.97)	

	귀국청소년	310	2.05(95)
합계	일반청소년	347	2.16(1.03)
	합계	657	2.11(1.00)

<표 III-114> 우울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44.97	2	22.49	24.40	.00
유학여부	1.66	1	1.66	1.80	.18
학교급*유학여부	2.66	2	1.33	1.45	.24
오차	599.96	651	.92		



[그림 III-43] 우울

(5)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은 학교급간의 차이도 없고 유학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

<표 III-115> 자아존중감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100	4.03(.67)
	일반청소년	102	3.92(.70)
	합계	202	3.97(.68)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3.97(.67)
	일반청소년	129	3.81(.77)
	합계	235	3.88(.73)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3.85(.70)
	일반청소년	116	3.82(.73)
	합계	220	3.84(.71)
합계	귀국청소년	310	3.95(.68)
	일반청소년	347	3.85(.73)
	합계	657	3.89(.71)

<표 III-116>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1.93	2	.96	1.92	.15
유학여부	1.58	1	1.58	3.15	.08
학교급*유학여부	.44	2	.22	.44	.65
오차	326.34	649	.50		

<표 III-117> 문제행동

학교급	유학여부	N	M(SD)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99	1.49(.54)
	일반청소년	102	1.46(.55)
	합계	201	1.48(.54)
중학교	귀국청소년	106	1.48(.52)
	일반청소년	129	1.55(.52)
	합계	235	1.52(.52)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04	1.54(.58)
	일반청소년	116	1.60(.54)
	합계	220	1.57(.55)
합계	귀국청소년	309	1.51(.54)
	일반청소년	347	1.54(.54)
	합계	656	1.52(.54)

<표 III-118> 문제행동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유학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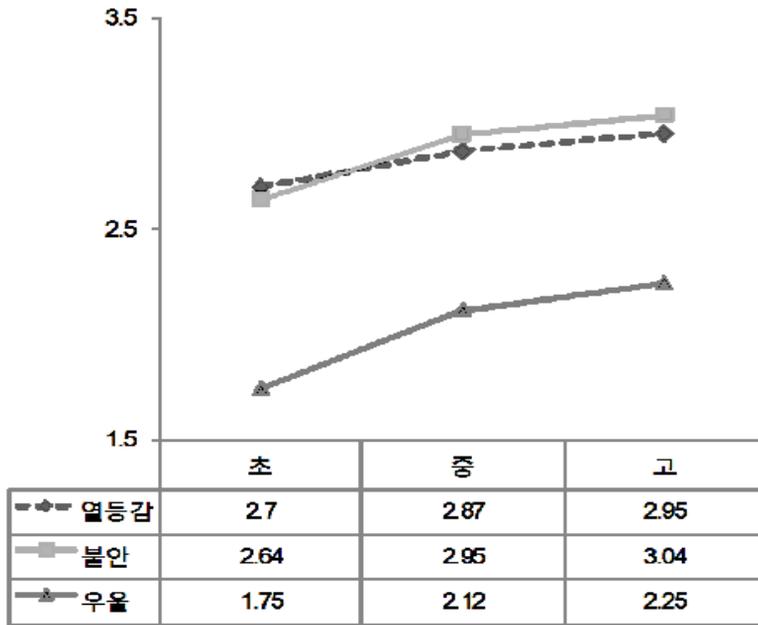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92	2	.46	1.58	.21
유학여부	.14	1	.14	.48	.49
학교급*유학여부	.29	2	.14	.49	.61
오차	189.36	650	.29		

(6) 심리정서 발달 분석 종합

귀국청소년 만을 대상으로 학교급 간에 심리정서 발달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열등감은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과 우울은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119>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발달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학교급	N	M(SD)	F	Sig.	Tukey's HSD
열등감	초등학교	100	2.70(.75)	2.98	.05	a
	중학교	106	2.87(.74)			a, b
	고등학교	104	2.95(.69)			b
불안	초등학교	100	2.64(.92)	5.96	.00	a
	중학교	106	2.95(.89)			b
	고등학교	104	3.04(.82)			b
우울	초등학교	100	1.75(.86)	8.03	.00	a
	중학교	106	2.12(1.01)			b
	고등학교	104	2.25(.92)			b
자아 존중감	초등학교	98	4.03(.67)	1.70	.19	
	중학교	106	3.97(.67)			
	고등학교	104	3.85(.70)			
문제 행동	초등학교	99	1.49(.54)	.40	.67	
	중학교	106	1.48(.52)			
	고등학교	104	1.54(.58)			



[그림 III-44] 심리정서발달

(7) 조기유학 시기와 심리정서 발달

조기유학을 떠난 시기는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성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은 청소년에게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조기유학을 나간 시기와 심리정서 발달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이 둘 간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120>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발달에 대한 변량분석(유학나간 시기)

	유학나간 시기	N	M(SD)	Brown-Forsythe	Sig.
열등감	영유아기	17	2.82(.81)	.42	.79
	초등 저학년	143	2.81(.73)		
	초등 고학년	115	2.86(.69)		
	중	29	2.89(.83)		
	고	6	3.20(.83)		
	합계	310	2.84(.73)		
불안	영유아기	17	3.13(1.06)	.51	.73
	초등 저학년	143	2.81(.87)		
	초등 고학년	115	2.92(.87)		
	중	29	2.85(.91)		
	고	6	3.04(1.29)		
	합계	310	2.88(.89)		
우울	영유아기	17	2.15(1.03)	1.92	.14
	초등 저학년	143	1.87(.92)		
	초등 고학년	115	2.19(.92)		
	중	29	2.16(.97)		
	고	6	2.70(1.57)		
	합계	310	2.05(.95)		
자아 존중감	영유아기	17	4.15(.54)	.63	.65
	초등 저학년	143	3.99(.64)		
	초등 고학년	113	3.90(.68)		
	중	29	3.86(.80)		
	고	6	3.68(1.22)		
	합계	308	3.95(.68)		
문제 행동	영유아기	17	1.64(.69)	.48	.75

초등 저학년	143	1.46(.46)
초등 고학년	114	1.56(.56)
중	29	1.44(.59)
고	6	1.60(1.06)
합계	309	1.51(.54)

(8) 유학 기간과 심리정서 발달

유학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발달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계산한 결과, 유학기간의 길이와 심리정서 발달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1> 유학기간과 심리정서 발달 변인 간의 상관관계

	학업 스트레스	열등감	불안	우울	자아 존중감	문제행동
유학 기간	.00	-.00	.08	-.04	.10	-.03

(9)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정서 발달

귀국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정서 발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본 결과, 희생적 부모상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와 열등감, 불안, 우울, 문제행동 수치는 낮아졌고, 자아존중감 수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자녀 동일시는 심리정서 발달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표 III-122>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정서 발달 변인 간의 상관관계
(귀국청소년)**

	부-희생적 부모상	모-희생적 부모상	부-부모자녀 동일시	모-부모자녀 동일시
학업스트레스	-.26***	-.31***	.07	.04
열등감	-.14*	-.10	.08	.11
불안	-.13*	-.17**	.02	.01
우울	-.24***	-.19**	-.09	-.06
자아존중감	.33***	.30***	.03	-.01
문제행동	-.15**	-.14*	.01	.03

*** p< .001, ** p< .01, * p< .05

(10)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와 심리정서발달

친구관계와 교사와의 관계 역시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 변인과 관계가 있었는데,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친구 및 교사와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열등감, 우울, 문제행동의 수치는 낮았고, 자아존중감의 수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3> 친구관계, 교사관계, 심리정서 발달 변인 간의 상관관계
(귀국청소년)**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업스트레스	-.12*	-.22***
열등감	-.13*	-.20***
불안	-.20***	-.21***
우울	-.31***	-.26***
자아존중감	.25***	.34***
문제행동	-.18**	-.21***

*** p< .001, ** p< .01, * p< .05

(11) 심리정서발달과 수업흥미도 및 이해도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이 수업의 적응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학업스트레스, 열등감, 불안, 우울, 문제행동과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 간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III-124> 심리정서 발달 변인, 수업 흥미도, 수업 이해도 간의 상관관계(귀국청소년)

	국어 흥미도	수학 흥미도	사회 흥미도	영어 흥미도	과학 흥미도	국어 이해도	수학 이해도	사회 이해도	영어 이해도	과학 이해도
학업 스트레스	-.27***	-.30***	-.29***	-.12*	-.30***	-.33***	-.40***	-.36***	-.25***	-.37***
열등감	-.16**	-.18**	-.25***	-.06	-.22***	-.17**	-.21***	-.22***	-.10	-.22***
불안	-.18**	-.13*	-.28***	-.10	-.17**	-.20***	-.20***	-.24***	-.15*	-.21***
우울	-.10	-.19**	-.18**	-.10	-.23***	-.13*	-.22***	-.16**	-.19**	-.24***
자아 존중감	.30***	.35***	.22***	.21***	.26***	.26***	.23***	.20***	.22***	.20**
문제 행동	-.18**	-.11	-.22***	-.24***	-.12*	-.11	-.11	-.14	-.23***	-.14*

*** p < .001, ** p < .01, * p < .05

(12) 심리정서 발달에 대한 결과 요약

① 심리정서 발달 변인에 있어서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

생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았다.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유학여부나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열등감과 불안은 우울이나 문제행동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② 귀국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심리정서발달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상관계수는 .23(문제행동)에서 .51(열등감)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학업스트레스와 열등감, 불안, 우울, 문제행동은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의 상관이 있었다. 청소년기에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수도 있으나 이것이 또 다른 정신건강의 문제와 연결된다면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스트레스와 열등감, 불안, 우울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학업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주변에서 돌봐주어야 한다.

③ 부모-자녀 관계 중에서 자신의 부모를 희생적이라고 인식하는 귀국 청소년이 부정적인 정서는 낮게 긍정적인 정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청소년이 부모가 자신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학업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을 낮게 경험하며 문제행동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희생적 부모상이 귀국청소년에게 짐이 된다고 보다는 긍정적인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귀국청소년의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도 심리정서발달과 관련이 있었는데, 부모-자녀 관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는 학업스트레스, 열등감, 불안, 우울, 문제행동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친구관계와 교사관계의 상관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친구관계보다 교사관계와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⑤ 귀국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은 수업흥미도와 이해도와도 관계가 있었다. 부정적인 정서를 낮게 경험할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높게 경험할수록 수업흥미도와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수업 상황에의 적응이 심리상태와도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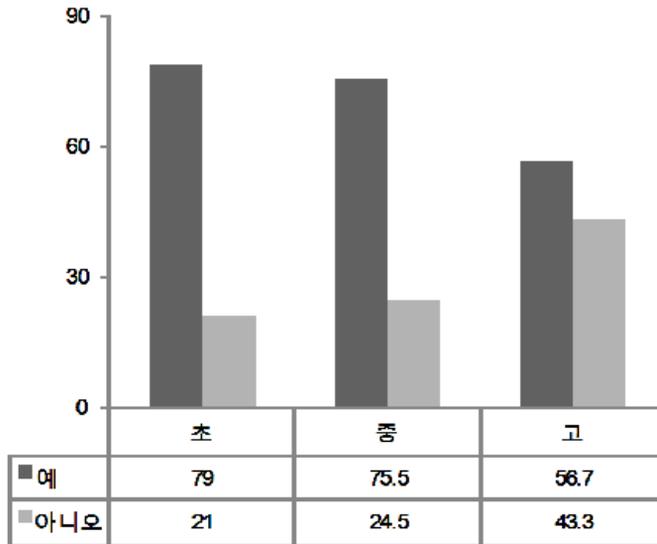
6) 기타 사항

(1) 유학 기간 중 한국어 교재 학습

귀국청소년이 유학 기간 중 한국어 교재로 학습했는지를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약 80%의 학생이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학습했지만, 고등학생은 약 60%의 학생이 한국어 교재로 학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재로 주로 학습했던 과목은 수학과 국어였고, 그 중에서도 수학 교재로 학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사회와 과학 과목에 대한 한국어 교재 학습의 경우도 20~30%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125> 유학 중 한국어 교재 학습

학교급	한국어 교재 학습		합계	
	예	아니오		
초등학교	79(79.0)	21(21.0)	100(100)	$\chi^2=14.16$ ($p=.001$)
중학교	80(75.5)	26(24.5)	106(100)	
고등학교	59(56.7)	45(43.3)	104(100)	
합계	218(70.3)	92(29.7)	3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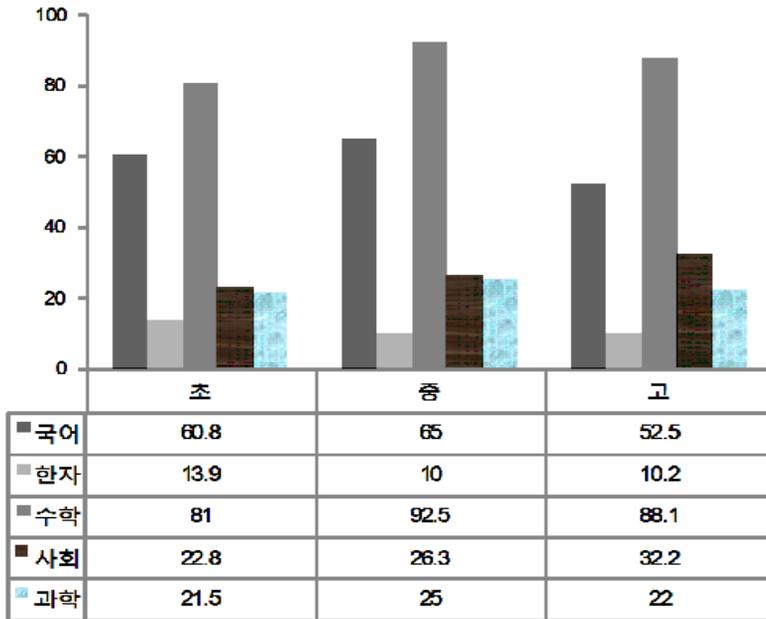


[그림 III-45] 유학 중 한국어교재학습

<표 III-126> 유학 중 한국어 교재 학습과목*

학교급	한국어 교재 학습과목							합계
	국어	한자	수학	사회	과학	국사	컴퓨터	
초등학교	48 (60.8)	11 (13.9)	64 (81.0)	18 (22.8)	17 (21.5)	0 (.0)	0 (.0)	79
중학교	52 (65.0)	8 (10.0)	74 (92.5)	21 (26.3)	20 (25.0)	1 (1.3)	1 (1.3)	80
고등학교	31 (52.5)	6 (10.2)	52 (88.1)	19 (32.2)	13 (22.0)	0 (.0)	0 (.0)	59
합계	131	25	190	58	50	1	1	218

* 다중응답문항



[그림 III-46] 유학 중 한국어교재 학습과목

(2) 향후 진학 희망

본 내용에 대한 설문 결과는 초등학생 자료만 제시되어 있다. 중고등학생 용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 내용을 질문하는 설문문항이 수정되지 않아, 중고등학생에게는 부적절한 문항이었다.

귀국청소년 중에 초등학생의 경우, 향후 진학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는 남학생의 경우는 일반계 못지않게 국제중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진학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일반계 중학교보다, 국제중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진학할 것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7> 귀국청소년의 향후 진학 희망 학교(초등학생)

성별	진학희망학교					합계
	일반계 중학교	국제 중학교	외국인 학교	예술 중학교	무응답	
남자	30 (50.8)	21 (35.6)	6 (10.2)	0 (.0)	2 (3.4)	59 (100)
여자	15 (36.6)	12 (29.3)	8 (19.5)	3 (7.3)	3 (7.3)	41 (100)
합계	45 (45.0)	33 (33.0)	14 (14.0)	3 (3.0)	5 (5.0)	100 (100)

유학기간과 향후 진학 계획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학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제중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개월 이하 37.5%, 13-24개월 53.1%, 25-36개월 33.4%, 37개월 이상 70.5%).

<표 III-128> 유학기간에 따른 향후 진학 계획(초등학생)

유학기간	향후진학계획					합계	$\chi^2=16.65$ ($p=.163$)
	일반계 중학교	국제 중학교	외국인 학교	예술 중학교	무응답		
12개월 이하	13 (54.2)	4 (16.7)	5 (20.8)	1 (4.2)	1 (4.2)	24 (100)	
13~24개월	11 (34.4)	13 (40.6)	4 (12.5)	1 (3.1)	3 (9.4)	32 (100)	
25~36개월	16 (66.7)	7 (29.2)	1 (4.2)	0 (.0)	0 (.0)	24 (100)	
37개월 이상	4 (23.5)	9 (52.9)	3 (17.6)	0 (.0)	1 (5.9)	17 (100)	
합계	44 (45.4)	33 (34.0)	13 (13.4)	2 (2.1)	5 (5.2)	97 (100)	

(3) 향후 진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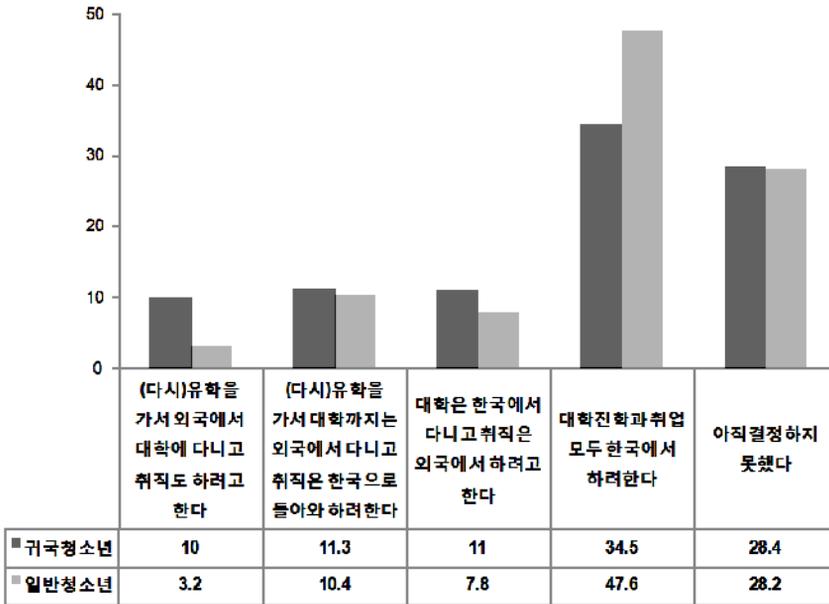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에 향후의 진로계획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을 다니고 싶은 의향이 귀국청소년(21.3%)이 일반청소년(13.6%)보다 더 많았다. 대학진학과 취업을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경우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일반청소년이 47.6%, 귀국청소년이 34.5%였다. 그러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9> 향후 계획

유학여부	향후계획(%)			
	(다시)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취직도 하려한다	(다시)유학가서 대학까지는 외국에서 다니고 취직은 한국으로 돌아와 하려한다	대학은 한국에서 다니고 취직은 외국에서 하려고 한다	대학진학과 취업 모두 한국에서 하려한다
귀국청소년	31(10.0)	35(11.3)	34(11.0)	107(34.5)
일반청소년	11(3.2)	36(10.4)	27(7.8)	165(47.6)
합계	42(6.4)	71(10.8)	61(9.3)	272(41.4)

<표III-129> 향후 계획(계속)

유학여부	향후계획(%)			합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기타	무응답	
귀국청소년	88(28.4)	14(4.5)	1(3)	310(100)
일반청소년	98(28.2)	10(2.9)	0(0)	347(100)
합계	186(28.3)	24(3.7)	1(2)	657(100)



[그림 III-47]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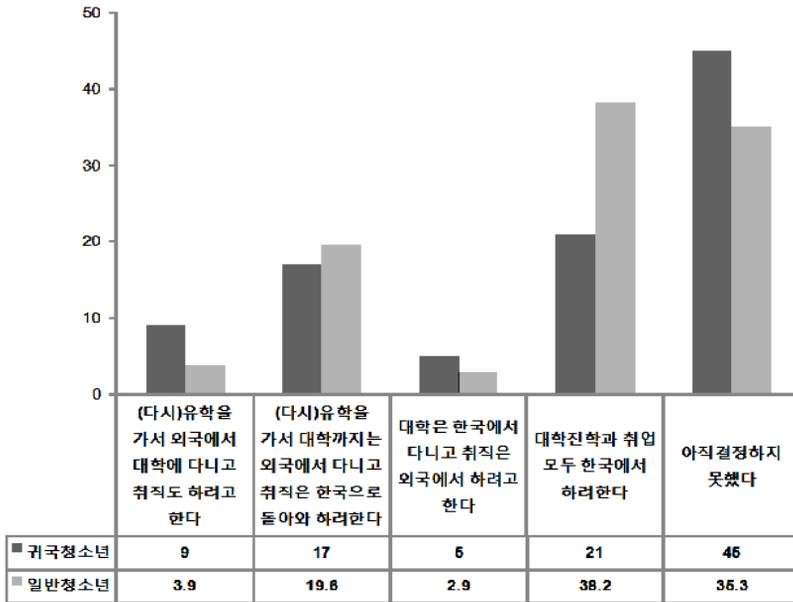
학교급에 따른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 모두 대학진학과 취직을 모두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비율이 높았고,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직도 하고 싶어 하는 비율은 초중고등학생 모두 귀국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0> 학교급에 따른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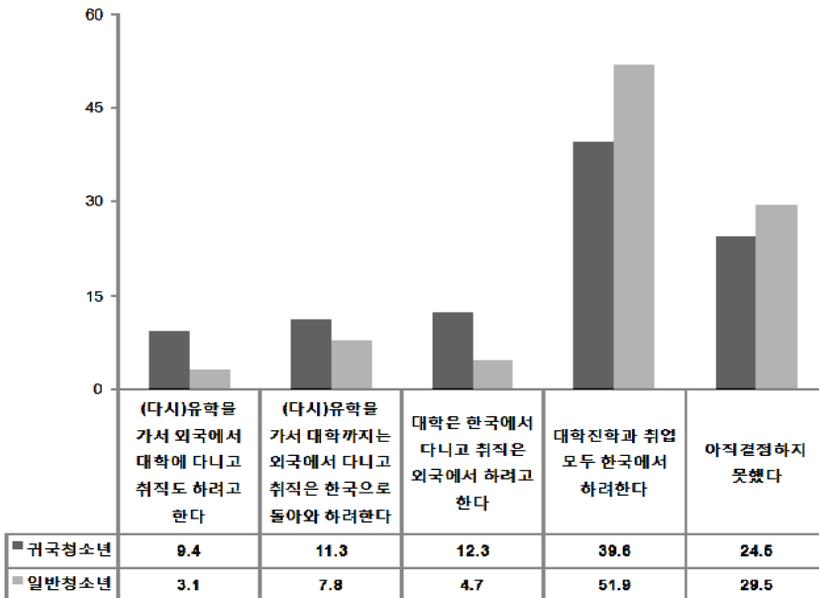
학교급	유학여부	향후 계획(%)			
		(다시)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취직도 하려한다	(다시)유학가서 대학까지는 외국에서 다니고 취직은 한국으로 돌아와 하려한다	대학은 한국에서 다니고 취직은 외국에서 하려고 한다	대학진학과 취업 모두 한국에서 하려한다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9(9.0)	17(17.0)	5(5.0)	21(21.0)
	일반청소년	4(3.9)	20(19.6)	3(2.9)	39(38.2)
	합계	13(6.4)	37(18.3)	8(4.0)	60(29.7)
중학교	귀국청소년	10(9.4)	12(11.3)	13(12.3)	42(39.6)
	일반청소년	4(3.1)	10(7.8)	6(4.7)	67(51.9)
	합계	14(6.0)	22(9.4)	19(8.1)	109(46.4)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2(11.5)	6(5.8)	16(15.4)	44(42.3)
	일반청소년	3(2.6)	6(5.2)	18(15.5)	59(50.9)
	합계	15(6.8)	12(5.5)	34(15.5)	103(46.8)

<표 III-130> 학교급에 따른 향후 계획(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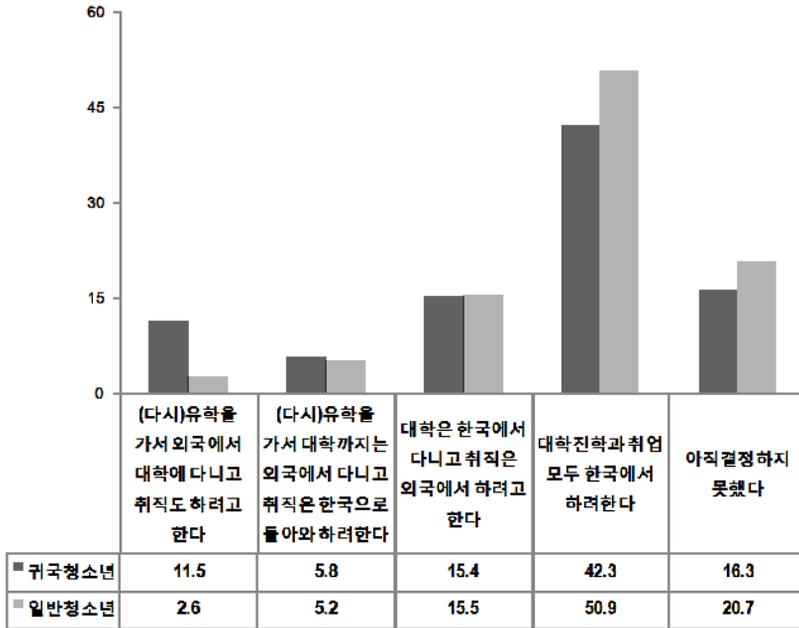
학교급	유학여부	향후계획(%)			합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기타	무응답	
초등학교	귀국청소년	45(45.0)	3(3.0)	0(0)	100(100)
	일반청소년	36(35.3)	0(0)	0(0)	102(100)
	합계	81(40.1)	3(1.5)	0(0)	202(100)
중학교	귀국청소년	26(24.5)	3(2.8)	0(0)	106(100)
	일반청소년	38(29.5)	4(3.1)	0(0)	129(100)
	합계	64(27.2)	7(3.0)	0(0)	235(100)
고등학교	귀국청소년	17(16.3)	8(7.7)	1(1.0)	104(100)
	일반청소년	24(20.7)	6(5.2)	0(0)	116(100)
	합계	41(18.6)	14(6.4)	1(0.5)	220(100)



[그림 III-48] 초등학교 향후계획



[그림 III-49] 중학교 향후계획



[그림 III-50] 고등학교 향후계획

성별에 따라 향후 계획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귀국청소년의 경우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외국으로 다시 유학 가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는(16.3%) 대학은 한국에서 다니고 취직을 외국에서 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남학생보다(7.2%)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일반청소년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1> 성별에 따른 향후 계획

성별	유학여부	향후계획(%)			
		(다시)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취직도 하려한다	(다시)유학가서 대학까지는 외국에서 다니고 취직은 한국으로 돌아와 하려한다	대학은 한국에서 다니고 취직은 외국에서 하려고 한다	대학진학과 취업 모두 한국에서 하려한다
남자	귀국청소년	22(12.2)	21(11.6)	13(7.2)	70(38.7)
	일반청소년	7(3.7)	18(9.6)	8(4.3)	100(53.5)
	합계	29(7.9)	39(10.6)	21(5.7)	170(46.2)
여자	귀국청소년	9(7.0)	14(10.9)	21(16.3)	37(28.7)
	일반청소년	4(2.5)	18(11.3)	19(11.9)	65(40.6)
	합계	13(4.5)	32(11.1)	40(13.8)	102(35.3)

<표 III-131> 성별에 따른 향후 계획(계속)

성별	유학여부	향후계획(%)			합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기타	무응답	
남자	귀국청소년	51(28.2)	4(2.2)	0(0)	181(100)
	일반청소년	49(26.2)	5(2.7)	0(0)	187(100)
	합계	100(27.2)	9(2.4)	0(0)	368(100)
여자	귀국청소년	37(28.7)	10(7.8)	1(8)	129(100)
	일반청소년	49(30.6)	5(3.1)	0(0)	160(100)
	합계	86(29.8)	15(5.2)	1(3)	289(100)

장래 계획으로 유학을 선택한 이유를 질문해 보았는데, 귀국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모두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였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나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싶어서’와 ‘여가/취미생활을 하고 싶어서’, ‘학교의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다.

<표 III-132> 향후 유학을 가려는 이유*

유학여부	향후 유학을 가려는 이유(%)				
	학교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생활이 재미없어서	학교에서 나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싶어서	여가/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학교의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귀국청소년	2(3.0)	4(6.1)	25(37.9)	16(24.2)	13(19.7)
일반청소년	2(4.3)	2(4.3)	25(53.2)	14(29.8)	10(21.3)
합계	4	6	50	30	23

* 다중응답문항

<표 III-132> 향후 유학을 가려는 이유(계속)

유학여부	향후 유학을 가려는 이유(%)				합계
	외국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학교의 문화가 싫어서	방과후에 과외,학원을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기타	
귀국청소년	43(65.2)	8(12.1)	7(10.6)	6(9.1)	66
일반청소년	28(59.6)	7(14.9)	2(4.3)	0(0)	47
합계	71	15	9	6	113

(4) 조기유학으로 인한 개인적 변화

귀국청소년에게 조기유학으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설문 문항에 나열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에 높은 정도로 응답함으로써 조기유학으로 인해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국어 실력이 좋아졌다’에 가장 많은 귀국청소년이 응답을 하였고, ‘새로운 환경에 쉽게 잘 적응하게 되었다’, ‘사물(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나의 적성과 재능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되었다’, ‘자신감이 생겼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133> 유학으로 인한 변화(귀국청소년)*

학교급	유학으로 인한 변화(%)						
	학교성적이 올랐다	사물(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다	자신감이 생겼다	외국어 실력이 좋아졌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타인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19(19.0)	41(41.0)	29(29.0)	48(48.0)	93(93.0)	35(35.0)	23(23.0)
중학교	16(15.1)	74(69.8)	34(32.1)	59(55.7)	94(88.7)	59(55.7)	48(45.3)
고등학교	16(15.4)	63(60.6)	17(16.3)	55(52.9)	89(85.6)	42(40.4)	40(38.5)
합계	51	178	80	162	276	136	111

* 다중응답문항

<표 III-133> 유학으로 인한 변화(계속)

학교급	유학으로 인한 변화(%)						합계
	자립심이 생기고 어른스러워졌다	사고의 융통성이 생겼다	하고 싶은 일이나 인생의 목표가 더 분명해졌다	새로운 환경에 쉽게 잘 적응하게 되었다	나의 적성과 재능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되었다	성적이 떨어졌다	
초등학교	23(23.0)	23(23.0)	41(41.0)	66(66.0)	54(54.0)	0(0)	100
중학교	52(49.1)	49(46.2)	47(44.3)	77(72.6)	57(53.8)	1(9)	106
고등학교	44(42.3)	46(44.2)	38(36.5)	70(67.3)	55(52.9)	1(1.0)	104
합계	119	118	126	213	166	2	310

(5) 조기유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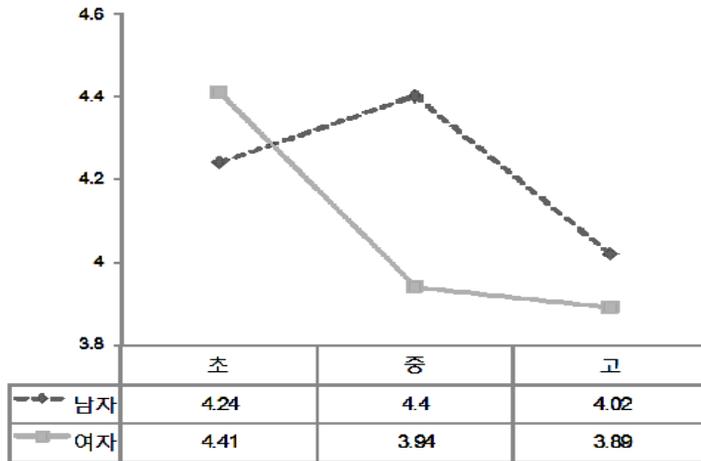
조기유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학교급 요인의 주효과가 있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낮기는 했지만, 점수 자체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34> 조기유학 만족도

학교급	성별	N	M(SD)	Tukey's HSD
초등학교	남자	59	4.24(.82)	a
	여자	41	4.41(.92)	
	합계	100	4.31(.86)	
중학교	남자	75	4.40(.82)	a
	여자	31	3.94(1.39)	
	합계	106	4.26(1.04)	
고등학교	남자	47	4.02(.82)	b
	여자	57	3.89(1.05)	
	합계	104	3.95(.95)	
합계	남자	181	4.25(.83)	
	여자	129	4.07(1.12)	
	합계	310	4.17(.96)	

<표 III-135> 조기유학 만족도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6.82	2	3.41	3.80	.02
성별	1.36	1	1.36	1.52	.22
학교급*성별	4.74	2	2.37	2.64	.07
오차	272.85	304	.90		



[그림 III-51] 조기유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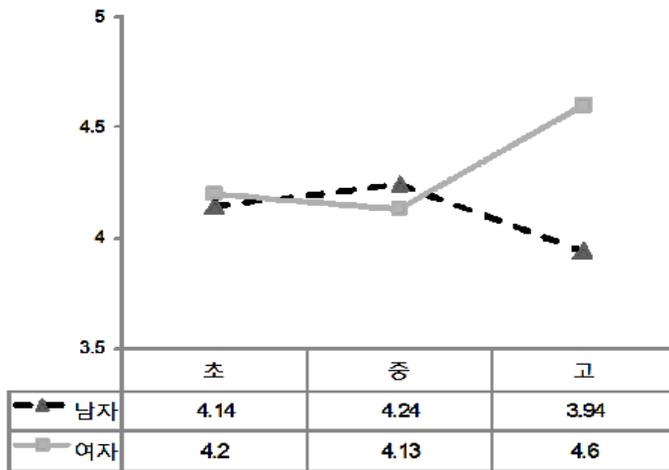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유학가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 질문해 보았는데, 학교급과 성별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성차가 없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6>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학교급	성별	N	M(SD)
초등학교	남자	59	4.14(.73)
	여자	41	4.20(.78)
	합계	100	4.16(.75)
중학교	남자	75	4.24(.98)
	여자	31	4.13(1.02)
	합계	106	4.21(.99)
고등학교	남자	47	3.94(1.01)
	여자	57	4.60(.53)
	합계	104	4.30(.85)
합계	남자	181	4.13(.92)
	여자	129	4.36(.78)
	합계	310	4.22(.87)

<표 III-137>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58	2	.29	.40	.67
성별	2.95	1	2.95	4.06	.05
학교급*성별	8.02	2	4.01	5.51	.00
오차	221.05	304	.73		



[그림 III-52] 다시유학가고 싶은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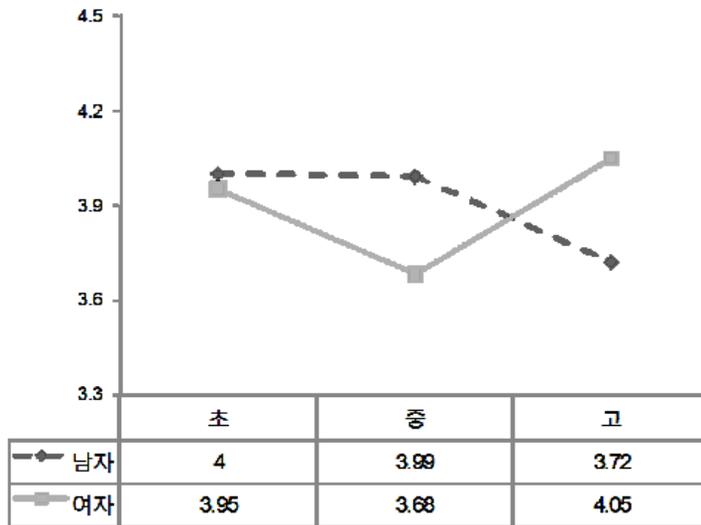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유학을 추천하고 싶은지 질문해 본 결과, 학교급과 성별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추천의사가 높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추천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8> 유학추천 의사

학교급	성별	N	M(SD)
초등학교	남자	59	4.00(.79)
	여자	41	3.95(.74)
	합계	100	3.98(.77)
중학교	남자	75	3.99(.99)
	여자	31	3.68(.83)
	합계	106	3.90(.96)
고등학교	남자	47	3.72(1.02)
	여자	57	4.05(.83)
	합계	104	3.90(.93)
합계	남자	181	3.92(.94)
	여자	129	3.93(.81)
	합계	310	3.93(.89)

<표 III-139> 유학추천 의사에 대한 변량분석(학교급, 성별)

	Type III SS	df	MS	F	Sig.
학교급	.97	2	.49	.62	.54
성별	.01	1	.01	.01	.93
학교급*성별	4.94	2	2.47	3.16	.04
오차	237.91	304	.78		



[그림 III-53] 유학추천의사

유학 기간과 귀국 후 거주기간, 조기유학 만족도,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유학추천 의사와의 상관을 측정해본 결과 이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140> 유학 기간, 유학 후 국내거주기간, 유학만족도,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유학추천의사 간의 상관관계

	조기유학 만족도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유학추천의사
유학기간	-.02	-.03	-.03
귀국 후 거주기간	-.08	.04	.02

유학 국가의 종류가 유학에 대한 만족도,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유학추천 의사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지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141> 유학국가에 따른 유학만족도,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유학추천의사에 대한 변량분석

	유학국가	N	M(SD)	F	Sig.
조기 유학 만족도	북미	167	4.20(.97)	.42	.66
	아시아	85	4.09(.91)		
	기타	58	4.22(1.04)		
	합계	310	4.17(.96)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북미	167	4.25(.84)	.38	.69
	아시아	85	4.15(.89)		
	기타	58	4.24(.92)		
	합계	310	4.22(.87)		
유학 추천 의사	북미	167	3.98(.87)	1.21	.30
	아시아	85	3.80(.87)		
	기타	58	3.95(.96)		
	합계	310	3.93(.89)		

청소년 자신의 유학 의향과 귀국의향이 조기유학 만족도와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유학추천 의사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학 의향은 조기유학 만족도와는 관련이 없었고, 다시 유학가고 싶은 의사나 유학 추천 의사와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귀국의향은 조기유학만족도,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유학추천 의사와 부적의 상관이 있었다.

<표 III-142> 유학의향, 귀국의향, 유학만족도,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유학추천의사 간의 상관관계

	조기유학 만족도	다시 유학 가고 싶은 의사	유학추천의사
유학 의향	.08	.21***	.23***
귀국 의향	-.13*	-.401***	-.26***

*** p< .001, ** p< .01, * p< .05

(6) 기타 사항에 대한 결과 요약

① 대부분의 귀국청소년이 유학을 가더라도 한국어 교재로 학습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청소년의 경우, 조기유학을 떠날 때부터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둔 경우가 많았을 것이므로, 귀국 후에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에서도 한국어로 된 교재를 학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수학은 8~90%의 조기유학생이 한국어 교재로 학습한 후 돌아왔고, 국어도 절반이 넘는 학생이 한국어 교재로 학습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와 과학, 한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결국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주요 과목은 외국 현지에서도 한국식으로 학습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② 초등 귀국청소년 중에 국제중학교나 외국인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조기유학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을 통하여 습득한 외국어 능력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더 나은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기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국제중학교나 외국인학교를 희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중학교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조기유학을 선택했던 것인지는 본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다.

③ 귀국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은 욕구가 더 높았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더라도 취직은 외국에서 하고 싶은 욕구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대학진학과 취업을 모두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였다. 외국에서 조기유학을 경험했지만, 국내 대학 입학과 취직을 선호한다는 것은,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것과 대학생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취직을 할 경우 혼자서 국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작용했

을 수 있다.

④ 다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귀국청소년의 경우, 외국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싶은 욕구, 여가나 취미생활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주된 이유임이 밝혀졌다. 귀국청소년은 자신이 언어의 장벽을 어느 정도는 극복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한 번 외국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있으므로, 그런 경험이 없는 일반청소년보다 외국으로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을 쉽게 먹을 수 있다. 여가나 취미생활을 해보고 싶은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은 여유 없는 한국생활에 대한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⑤ 조기유학으로 인해 일어난 개인적인 변화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실력도 좋아졌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생겼으며, 사물이나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고,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작은 어려움들은 겪었지만,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조기유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⑥ 조기유학에 대한 만족도, 다시 유학을 가고 싶은 의사, 주변 사람에게 유학을 추천하고 싶은 의사에 대한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귀국청소년의 조기유학에 대한 판단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청소년의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본 연구에 참여한 귀국청소년의 경우, 조기유학이라는 경험이 긍정적인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조기유학 후 귀국하여 한국의 공교육 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적응 현상을 탐구하고, 귀국청소년으로 하여금 부적응의 문제를 적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자 시작되었다. 혹자는 귀국청소년의 문제는 소수의 문제이고,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현상이므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숙한 사회는 소수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회여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귀국청소년에 대한 연구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귀국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청소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경험을 한 청소년의 발달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주제이다.

조기유학과 함께 떠오른 귀국청소년 현상은 한국인이 한국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에서 계속 성장하였어도 어려운 국내 교육 상황은,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백기를 가졌던 청소년에게는 더더욱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귀국청소년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도 일정기간 동안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청소년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귀국청소년이 연구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귀국청소년의 수가 늘어나면서 교육의 형편이 움직이고 있고, 조기유학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귀국청소년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기유학이 바람직한 현상인가 아닌가라는 차원을 떠나서, 조기유학 후 국내로 돌아온 귀국청소년이 국내에서 적응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발달양상을 보이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조기유학청소년의 증가는 귀국청소년의 증가를 의미하며, 현재 외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조기유학생 중에

상당 부분이 잠재적인 귀국유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귀국청소년에 대한 진단은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귀국청소년의 적응을 환경 속에서의 적응과 관계 속에서의 적응, 그리고 심리적인 적응으로 살펴보고, 귀국청소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의 모습을 다른 시각에서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향후 귀국청소년의 적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1) 귀국청소년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때 단기 유학 한 후 귀국한 청소년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귀국청소년은 초등학교 때 조기유학을 다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단위 조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마음속에는 초등학교가 조기유학으로 최적의 시기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조기유학을 나가게 되면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 와서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각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하루라도 빨리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이 좋다는 조급한 생각과 조기유학으로 인한 공백기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여 진다. 사실 다른 국가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나가는데 1-2년은 충분한 시간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단기 체류를 많이 선호한다는 것은 귀국 후 한국에서 남들보다 나올 수 있는 정도만 체류하다가 오거나, 현재도 잘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무언가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소위 “도약형 유학”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국내에서의 경쟁을 위하여 국외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기유학은 개인의 발전이라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한 현상으로 주목받게 되는 것이다.

2) 조기유학 국가의 편중현상이 심하다.

귀국청소년이 선택한 유학국의 대부분은 미국과 캐나다에 편중되어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대표적인 조기유학국가로서 영어권이라는 이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조기유학을 갔다 온 곳이므로 대세를 따르려면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기유학이 글로벌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다지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택되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나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선택될 때 조기유학생 간의 차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조기유학의 목표가 글로벌 의식의 함양보다는 영어 습득에 있을 경우, 영어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에 호주와 뉴질랜드도 조기유학국으로 많이 선택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영어권이고, 중국과 동남아로 조기유학을 갔다 오는 경우도, 현지의 공교육 기관에서 수학한다기 보다 국제학교에 수학했다가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도 역시 또 다른 영어권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건데 앞으로도 조기유학은 영어권 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부모의 희생정신을 지각하는 것이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통해서 보건데, 자신의 부모를 희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높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또 다른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낮았다. 전통적인 한국의 부모상은 자식과 부모를 분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가 약화되어, 부모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을 분리하여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식을 위한 희생정신은 높았고, 이러한 희생정신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다,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지지자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긍정적인 심리정서발달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부모의 지나친 희생정신의 주입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적절한 희생정신은 오히려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은 한국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4) 귀국청소년의 수업 흥미도와 수업 이해도는 조기유학을 언제 나갔는지와 관련이 있다.

귀국청소년의 수업 흥미도와 수업 이해도에 대한 분석 결과, 조기유학을 일찍 갔다 오는 것이 귀국 후의 수업 적응에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을 초등학생 때 갔다 온 귀국청소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갔다 온 학생보다 주요 교과목의 흥미도와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도약형 유학의 경우, 조기유학을 갔다 온 후에 정규 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유입하려면 교과내용이 어렵지 않고, 교과목의 수가 적은 초등학교 때가 적기라는 것이 본 연구결과 나타났다. 현재 초등학생의 경우도 영어 학습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국내의 공교육 기관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많은 수의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 또한 시간과 비용 대비 그 효과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라리 막대한 사교육비용을 지불할 바에야 조기유학을 갔다 오는 것이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확실한 선택이 된다는 의견이 학부모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언어 습득은 그 나라에 살면서 습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연령이 낮을수록 영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일반 대중의 생각이 초등학생의 조기유학 현상을 부추기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나타난 사실은 초등학생 때 조기유학을 갔다 오는 것이 영어를 포함한 다른 과목에의 적응에도 더 낫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돌아올 것을 전제로하고 떠나는 조기유학이라면 현재의 학부모들의 결정이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문제는 초등학생 시기의 특성이 외국의 문화를

접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시기라는 것이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이 선결과제이고, 자국의 언어를 어느 정도는 구사한 다음에 제2외국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국어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 이와 관련된 학자들의 주장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민족정체성이나 국가관, 언어 습관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므로, 외국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모든 결정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겠지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5) 귀국청소년의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는 유학 여부보다는 학교급별 간의 차이가 있었다.

귀국청소년의 학교적응에서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의 질은 관계 욕구가 있는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자원이다. 학교의 주요 목적이 교과 내용에 대한 학습이기는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청소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학습활동도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귀국청소년의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는 주목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귀국청소년의 경우,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친구관계 점수가 낮았지만, 고등학생은 오히려 친구관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와의 관계 점수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중학교 시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학교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에 위치한 단계라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학교 시절은 초등학교 때와 비교하여 부모보다는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시기이고, 친구를 모델링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친구의 말과 행동이 주는 상처가 큰 반면, 이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식이 성숙하지 못한 시기이다. 친구관계에 민감하다는 것은 친구관계로 인한 트러블이 많

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곧 불안정한 친구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교사는 학교에서 만나는 성인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한 관계망을 제공한다. 친구는 동년배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유행을 따르고, 같은 고민을 하는 존재로서의 중요성을 지니지만, 교사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청소년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이면서 그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교사관계의 점수가 낮았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귀국청소년이 경험하는 교사와의 관계는 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생 시기는 대학입시를 앞에 둔 시기이므로 학업스트레스도 높은데다가 진로 결정과 같은 중요한 숙제를 풀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관계가 낮다는 것은 고등학생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나타내주는 한 단면이 된다. 교사의 역할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학교에서 유일하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교사의 심리적 지원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6)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한국적 사고방식, 이문화 수용도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본 설문조사 결과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비록 학급별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었으며,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인의 국제적인 활약상이 매체에 소개되면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도 타인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고, 어른에게는 예절을 지켜야 하며,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타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조기유학이라는 경험이 이 세 가지 영역의 발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청소년기에 조기유학을 경험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생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미 한국의 청소년은 국가와 민족,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성숙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7) 심리정서발달에 있어서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차이는 없었고,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본 설문조사 결과, 귀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열등감이나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 경험이 부정적인 정서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귀국청소년이 느껴야 하는 정도의 부정적인 정서를 이미 일반청소년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도한 학업량으로 인한 신체적 피곤과 정신적 고통은 청소년의 안녕을 위협한지 오래되었으나, 점점 심해지는 학력경쟁은 청소년을 압박하며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러한 정황은 포착되었고, 귀국청소년이건 일반청소년이건 같은 정도로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는 것은 학업스트레스가 높거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거나,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또한 귀국청소년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경우, 수업흥미도와 수업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으

로써, 이 모든 변인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기유학을 선택한 이유도 결국에는 청소년이 잘 성장하여 좋은 발달결과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을 것이므로, 귀국청소년이 국내 교육환경에 잘 적응하여 긍정적인 발달 양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귀국청소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보조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 못지않게, 친구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로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8) 귀국청소년은 국제중학교나 외국인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았고, 외국의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직하려는 성향이 높았다.

본 설문조사 결과 현재 초등학생에 재학 중인 귀국청소년의 경우, 국제중학교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희망은 조기유학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일반 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렵고, 오랜 기간 외국어로 학습하다 돌아왔을 때 한국어로만 학습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대부분의 귀국청소년이 조기유학 기간 중에도 한국어 교재로 학습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국내에서 한국어로 학습하며 같은 급수와 경쟁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 더군다나 귀국청소년의 국어에 대한 흥미도와 이해도는 다른 교과와 흥미도와 이해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어 교과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어려움은 귀국청소년으로 하여금 일반 학교보다는 국제중학교나 외국인학교가 더 적절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최근에 전국의 여러 곳에서 국제중학교가 개교하고 있고, 대안교육 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도 여럿 있다. 이 학교들은 국어와 국사 같은 일부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므로 귀국청소년처럼 영어로 학습하는 것이 익숙한 학생에게는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어

렵고, 졸업 후에 국내 대학으로 입학하는 경우보다는 외국의 대학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청소년에 비해 귀국청소년은 외국의 대학에 진학하고 그곳에서 취직도 하고 싶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외국의 좋은 대학에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살리며 교육 받고 싶어 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었다. 귀국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이 경험하지 못한 외국에서의 생활에 이미 한 번 도전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과,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덜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여유를 가지며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이와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것과 취직을 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충분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은 한국과 교육여건이 다를 뿐 아니라, 문제해결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닌 강점과 약점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한 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패확률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9) 조기유학으로 인해 귀국청소년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기사들은 조기유학 청소년이 현지에서 많은 적응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귀국청소년의 경우, 조기유학으로 인해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실력이 좋아진 것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자세라든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기회는 청소년기에 가져봐야 하는 소중한 체험이다. 나를 알지 못한 채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현재의 청소년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귀국청소년이 조기유학으로 인해 가질 수 있었던 이런 경험들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런 기회가 조기유학생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수학하는 청소년에게도 이런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기는 삶에 필요한 심리적

자원을 축적하는 시기이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다듬고,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는 청소년기에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귀국청소년의 개인적 발전이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는 청소년의 개인적 발전으로 점화될 수 있도록 발달적 고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2. 정책제언

1) 귀국청소년의 경험을 국내 교육의 단점 보완 방법으로 사용한다.

귀국청소년은 외국에서의 생활과 교육시스템을 경험하고 국내로 다시 돌아온 청소년이므로 일종의 다국적 시민과도 같다. 청소년기에 타국에서 보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청소년의 사고와 생활방식, 가치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귀국청소년은 타국과 자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로써 각 국의 교육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바라보는 교육여건과 국외에서 바라보는 교육여건은 다르다. 귀국청소년은 국내외 교육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고, 교육의 어떤 측면이 현재의 청소년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정보원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귀국청소년은 국내의 교육정책 관계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귀국청소년이 조기유학이라는 항로를 선택하면서 한국의 교육을 이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한국과 현지국을 비교하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 온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과 현지국을 비교하며 자신의 항로를 찾아나가려고 노력한다. 귀국청소년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함께 모아보면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렌즈를 얻게 될 수 있다.

조기유학의 목적이 더 나은 교육을 향한 도약이었다면, 그것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귀

귀국청소년에게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귀국청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외경험을 국내의 청소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계기를 통하여 본인의 개인경험이 사회에 공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귀국청소년 자신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 친구보다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조기유학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이다. ‘외국물’을 먹어본 자와 먹어보지 못한 자 간의 갈등은, 교실에서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갈등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귀국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청소년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한국 교육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는 한 통로로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승화시킬 수 있는 길을 터주자고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 귀국청소년은 조기유학의 경험으로 사물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이런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국내 교육의 내실을 따져보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2) 귀국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추적 조사 한다.

귀국청소년이 부적응의 문제를 덜 경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귀국청소년의 적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귀국청소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꾸준히 자료가 누적될 때 적응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조기유학을 가기 전의 국내 적응 양상과, 현지에서 교육 받고 있었을 때의 적응 양상, 귀국한 후의 적응 양상에 대한 치밀하고 세세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어야 귀국청소년에 대한 적응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귀국자녀반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귀국청소년이 귀국자녀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일반학급으로

편성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누적된 자료가 없이는 진단과 예측이 불가능하다. 교육정책은 단기간의 성과를 내다보고 수립하기 보다는, 중장기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바, 지금이라도 귀국청소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기유학을 전후한 데이터가 누적되면 어떤 경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정책은 실수가 적어지게 될 것이다.

귀국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 조사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람의 생각과 견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마련이다. 귀국청소년도 조기유학을 나가기 전의 생각과 갔다 온 후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귀국 직후에 가졌던 가치관이 5년이나 10년 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 외국생활을 바탕으로 한 귀국청소년의 판단이 얼마나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정확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귀국청소년에 대한 추적조사는 장기간의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조기유학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자료구축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

3) 국내 영어교육에 대한 방향을 수정하고 영어 습득 관련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한 교육목표가 되었다. 글로벌 경쟁력과 함께 내세운 영어구사력은 일반 대중의 관심을 “영어”라는 언어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영어를 사용하는 유치원부터 영어로 강의를 하는 대학까지, 국제화는 곧 영어화라는 등식이 일반 대중의 마음속에는 성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월등한 학업성취를 이루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에 영어는 또 다른 불씨를 던져놓았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

활해지기를 바라고, 영어로 어느 정도의 글쓰기가 가능해지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마음은 영어를 중시하는 교육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기유학을 갔다 온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발생한 영어격차는, 영어 학습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영어에 몰입되어 지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조기유학 나들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는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오히려 일반 대중은 공교육 테두리 밖에서의 영어교육을 더 선호하는 아이러니를 낳고 말았다. 개인의 성장보다는 남들보다 잘 하는 것, 즉 비교우위를 점하는 것에 집중하는 한국의 교육풍토는 영어를 위하여 막대한 개인자산을 투자하도록 만들었다.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현지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만한 것이 없으므로, 1-2년의 단기유학을 초등학교 시절에 마스터(?)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영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부에서 영어를 강조할수록 일반 대중은 공교육에 영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영어정책 나침반이 고장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낮추어야 하고, 영어를 이용한 출세우기를 멈추어야 한다. 최근에 정부는 외교입시에서 영어 사교육의 흔적을 배제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외교에 입학한 후에 나타나는 영어 격차를 이미 예상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여전히 영어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영어가 매개가 된 상대적 빈곤감에 학생들을 놓을 것이 아니라, 문어 위주의 영어에서 구어 위주의 영어교육으로 바꾸고, 영어를 이용한 일체의 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 영어로 경쟁을 붙이는 것보다는, 의사소통의 한 도구로서의 영어를 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 문법을 영어가 제2외국어인 한국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치고, 어렵고 까다로운 언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대중친화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쟁력은 영어구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민의식에 근

거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사회공헌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기초한 영어 실력이야말로 사회와 인류를 이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 영어 때문에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는 영어습득이 목표가 될터인데, 이는 청소년기의 목표로는 너무 협소하고 지엽적이다. 빨리 성과를 내려는 것 보다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찬찬히 짚어보는 영어교육 정책을 펼 때이다.

4) 조기유학에 관한 정보와 귀국 후의 적응교육을 공교육기관이 제공한다.

조기유학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조기유학국으로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 조기유학을 언제 나갔다 오는 것이 좋은가, 조기유학의 실제적인 비용은 얼마인가, 조기유학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귀국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등 조기유학을 둘러싼 의사결정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현행법상 중학생까지의 자비유학은 불법 유학에 해당되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조기유학과 관련된 자료를 비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기관에서 조기유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은 사교육기관에서 조기유학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귀국청소년을 위한 교육도 사교육이 주로 하고 있다. 사교육기관에서는 귀국청소년을 리터니(returnee)라고 부르며, 리터니를 위한 각종 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귀국자녀반은 그 수가 적은데다가, 일반 학급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청소년이 하고 있는 사교육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일 것이다. 본 설문조사결과 일반청소년이나 귀국청소년이나 사교육을 받는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고, 사교육을 받는 과목에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기유학을 했든 안 했든, 사교육 기관 의존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사교육은 여러 방면에서 공교육을 뛰어넘는 위치에 서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국의 교육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사교육기관에서 흡수하는 조기유학 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을 공교육 기관에서 다시 찾아와야 한다. 어떻게 보면 조기유학 청소년이 많아지게 된 데에는 사교육 기관의 홍보가 한 몫을 한 것도 사실이다. 사교육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므로 공교육기관과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공교육기관에서 조기유학을 권장할 필요는 없지만, 조기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유학이 실패한 결정이 되지 않도록 득과 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귀국자녀반은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학교마다 귀국자녀반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귀국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사를 일선학교에 배치함으로써 방과후 교실이나 주말반의 형태로 귀국자녀반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귀국청소년의 수준에 맞춘 수준별 학급을 운영하고, 일반 학급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학급과 동떨어진 수업내용을 실시할 경우, 심각한 학습결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과목별로 일반학급과 연계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5)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본 설문조사 결과 귀국청소년 중 많은 학생이 국제중학교나 외국인 학교로 진학하거나, 대학입학과 취직을 외국에서 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한 번 생활해 본 경험과 외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판단이 이러한 희망사항으로 연결되었다고 판단된다. 청소년기에 어떤 인생의 경로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미래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견지에서 귀국청소년의 판단과 결정이 순간의 선택으로 인한 실수가 되지 않도록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제중학교나 외국인 학교를 선택했을 때, 외국의 대학에 입학하거나 외국에서 취직을 했을 때, 가능한 진로와 차단되는 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계획이 있어야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귀국청소년이

진로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육기관이나 학부모는 실질적인 정보를 손에 쥌 상태에서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귀국청소년이 개인적인 발전을 이루고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사회가 발전했다는 증거는 소수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얼마나 성숙해있는가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청소년과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귀국청소년이지만 이들 또한 우리가 관심 갖고 돌봐야 되는 한국의 청소년이다.

V. 참고문헌

V. 참고 문헌

- 강란혜(2001). 해외귀국아동의 이문화체험과 귀국 후 사회심리적 적응. **대한 가정학회지**, 39(11), 175-191.
- 강란혜, 이장영(2005). 귀국자녀교육의 실태분석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연구. **교육과정연구**, 23(3), 289-307.
- 강만철(2008). 조기유학 한국학생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호주 브리즈번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7(1), 15-27.
- 교육과학기술부·국제교육진흥원(2007). **조기유학 바로 알기**.
- 김경근·윤혜준(2005). 교육적 동기에 의한 ‘탈한국’의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특징. **교육사회학연구**, 15(3), 29-50.
- 김영희·최명선·이지향(2005). 뉴질랜드 거주 기러기 어머니의 생활실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11), 141-152.
- 김영희·최명선·이지향(2006). 뉴질랜드 거주 조기 유학생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청소년학연구**, 13(1), 55-84.
- 김현주(2007). **미국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정 연구 :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홍원, 장명림, 김주후, 김현수, 이희숙, 박희진(2005).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규제순응도를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 고복자(1998). 해외 유학생의 현황 및 실태조사.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 고유미(2006). **해외 귀국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영호(1998). 귀국학생의 적응과 국제성 유지 및 신장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32(2), 15-28.
- 권선미(1997). **해외 귀국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효숙(2003). 귀국아동의 학교적응 현상. **한국초등교육학회**. 16(2), 301-331.

- 박영숙·박광배·최상진·Marsella, A.·김주한(2002). 미국 일시거주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촉진을 위한 인터넷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97-139.
- 박경애, 이호준, 김택호(1995). 귀국 청소년 적응력향상 연구: 프로그램 종합 보고서. 청소년대화의광장.
- 서영아(2007). **학령기 조기유학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준종(2005). 누가 교육을 위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가?: 교육 관련 '탈' 한국 현상의 사회적 성격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95-120.
- 윤미라(2006). **귀국학생의 불안·우울에 관한 연구-특별학급 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2009). 미주지역 조기유학 청소년의 우울에 관련된 요인. **청소년학연구**, 16(5), 99-120.
- 이장영(1997). **해외 귀국 청소년의 국내 적응연구**. 집문당.
- 이윤선(2002). **귀국학생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승(2008). **해외귀국청소년의 해외생활 만족도와 문화성향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재훈(2005). **미국 현지 조기유학의 사례 분석**. 2005년도 제26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조기유학: 국민위식과 실태).
- 전형일(2003). **해외 귀국청소년의 고등학교 적응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옥, 주은선(2003). 해외 귀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질적 분석을 통한 귀국 중학생들의 경험과악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5(2), 329-351.
-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조삼섭, 심성욱, 신일기, 이지현(2006). **조기유학 성공과 실패 사례조사**

- 및 학부모 계도를 위한 홍보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과제(2006-공모-9).
- 조혜영, 최원기, 이경상, Abelman, N.(2007). 청소년들은 어떻게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되는가?: 미국 소도시 유학생들의 사례. **청소년학연구**, 14(4), 115-143.
- 천세영·박소화(2008). 초국적 교육; Post-nationality의 관점에서 본 조기유학. **인문학연구**, 74, 329-351.
- 최만희(1993). **해외 체류 자녀의; 귀국 후 적응교육**. 국제교육, 창간호, 국제교육진흥원.
- 최양숙(2008).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분거가족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기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67-97
- 최양호, 최명숙(1985). 해외 귀국자녀에 대한 조사연구. **재외국민논총 85**: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
- 최진숙(2007). 초등단계에 영어조기유학을 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학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언어학**, 15(2), 77-98.
- 한국교육개발원(2008). **2008교육통계분석자료집**.
- 한준상, 기영화, 강양원, 박현숙, 샤론 메리엄(2002). 조기유학생 적응지도에 관한 연구: 조기유학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9(1), 199-220.
- Harkness, S. & Super, C.M.(2006). Themes and variations: Parental ethnotheories in Western cultures. In Rubin, K.H., & Chung, O. B.(Eds.).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Psychology Press.

부 록

1. 귀국청소년 대상 설문지(중등학생용)
2. 일반청소년 대상 설문지(중등학생용)
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1. 귀국청소년 대상 설문지(중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조기유학 후 귀국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귀국청소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험하는 삶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는 데 있습니다. 본 설문지에 기재된 학생의 대답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학생이 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지에 쓰여 있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자 문경숙
(문의처 02-2188-8837)

2010년 6월



학생 인적 사항	
학교이름	_____ 학교 _____ 학년
생일	_____ 년 _____ 월
성별	① 남 ② 여
현재 거주지	(_____)구 (_____)동

I. 기본사항

* 다음의 질문을 읽고 해당 사항에 ○표 하세요.

1. 현재 본인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 | | |
|-----------------|----------|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 ③ 언니(누나, 오빠, 형) | ④ 동생 |
| ⑤ 할아버지나 할머니 | ⑥ 기타 () |

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단, 중퇴도 졸업으로 표시함-예: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두어도 '고등학교 졸업'으로 표시해주세요)

	학 교 다니신 적 없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교 졸업	4 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부모님께서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부모님께서 보기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기타'에 표기하시고 괄호 안에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전문직 (의사, 변호사, 교 수, 연구원 등)	공무원	일반 회사원*	교사 (초·중· 고)	개인사업 (식당, 가게 등)**	주부	기타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일반회사원 : 아버지/어머니께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다니고 있는 경우.

** 개인사업 : 아버지/어머니께서 회사나 가게를 가지고 있거나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4.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유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왔나요? 우리나라 학년으로 나간 때와 돌아온 때를 표시해주세요. 유학 경험이 2회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의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주세요. (예: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에 나가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 돌아 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1) 조기유학을 나간 시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5-2) 귀국한 시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6. 어느 나라에 유학을 다녀왔습니까? 유학 다녀온 나라가 2개국 이상인 경우, 다녀온 나라를 모두 표시하세요.

- ① 미국 ② 뉴질랜드 ③ 캐나다 ④ 중국 ⑤ 호주
 ⑥ 영국 ⑦ 동남아 국가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등)
 ⑧ 남미 국가(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등) ⑨ 일본 ⑩ 독일
 ⑪ 프랑스 ⑫ 기타()

7. 유학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지 아래에서 3명을 골라 주세요(한 명이나 두 명만 골라도 됩니다).

- ① 나 자신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부모님 외 다른 가족
 ⑤ 유학 경험이 있는 친구 ⑥ 기타()

8. 본인은 어느 정도 유학을 가고 싶었나요?

- ①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다.
- ②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
- ③ 가고 싶은 것, 가고 싶지 않은 것 반반 이었다.
- ④ 조금 가고 싶었다.
- ⑤ 너무 가고 싶었다.

9. 본인이 유학을 가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아래 보기 중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외국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
- ②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대학 가기가 유리 할 것 같아서
- ③ 우리나라의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 ④ 우리 가족의 상황(부모 해외 파견/교환 교수 등) 때문에
- ⑤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 ⑥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국제 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 ⑦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적성을 찾기 어려워서
- ⑧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유학을 가니까 나도 가야될 것만 같아서
- ⑨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환경이 싫어서
- ⑩ 부모님이 가라고 하셔서
- ⑪ 외국 대학에 다니고 싶어서
- ⑫ 대중매체나 신문, 잡지의 조기유학에 관한 내용을 보고
- ⑬ 우리나라 학교에서 친구관계가 어려워서 (왕따/학교폭력/질투 등)
- ⑭ 기타 ()

10. 유학 중 어디에서 살았나요?

- ① 자기 집(가족과 함께)
- ② 학교 기숙사
- ④ 외국인 가정 홈스테이
- ③ 한국인 가정 홈스테이
- ⑤ 친구 집
- ⑥ 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집
- ⑦ 자취
- ⑧ 기타()

10-1. 유학 중 누구와 같이 살았나요?(같이 산 사람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어머니
- ② 아버지
- ③ 형제자매(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
- ④ 현지의 친척
- ⑤ 친구
- ⑥ 기타 ()

Ⅱ. 부모-자녀관계

* 다음의 질문을 읽고 해당 사항에 ○표 하세요.

1. 유학 전, 유학 중, 귀국 후에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구분		매우 나쁨	조금 나쁨	보통	조금 좋음	매우 좋음
본인과 아버지와의 관계	유학 전	①	②	③	④	⑤
	유학 중	①	②	③	④	⑤
	유학 후	①	②	③	④	⑤
본인과 어머니와의 관계	유학 전	①	②	③	④	⑤
	유학 중	①	②	③	④	⑤
	유학 후	①	②	③	④	⑤
본인과 형제자매와의 관계	유학 전	①	②	③	④	⑤
	유학 중	①	②	③	④	⑤
	유학 후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부모님과 본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아버지/어머니에게 느꼈던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아래의 보기를 보고 해당되는 번호를 네모 칸 안에(아버지/어머니) 각각 답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아버지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힘들 때에 나로 인해 힘을 얻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나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나를 위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잘되는 것이라면 어떤 고생도 참아내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성공하는 것이 곧 당신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공부를 못하면 당신이 창피하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자식이 잘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말씀하시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아버지/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나의 장래목표로 삼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Ⅲ. 학교생활

* 다음의 질문을 읽고 해당 사항에 ○표 하세요.

1. 현재 학생은 학교 수업에 얼마나 흥미를 갖고 있는지 과목별로 해당하는 번호에 답해 주세요.

수업 흥 미 도		흥미가 전혀 없다.	흥미가 없다.	보통이다.	흥미가 있다.	흥미가 매우 많다.
	국어	①	②	③	④	⑤
	수학	①	②	③	④	⑤
	사회	①	②	③	④	⑤
	영어	①	②	③	④	⑤
	과학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학생은 학교 수업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과목별로 해당하는 번호에 답해 주세요.

수업 이 해 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이해한다	거의 다 이해한다
	국어	①	②	③	④	⑤
	수학	①	②	③	④	⑤
	사회	①	②	③	④	⑤
	영어	①	②	③	④	⑤
	과학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학교선생님 이외에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요?

- ① 예 ('① 예'라고 대답한 사람만 3-1), 3-2)에 답하세요)
 ② 아니오 (4번 문항으로 가시오)

3-1) 있을 경우,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해당 번호를 모두 고르세요)

- ① 학원교사 ② 개인 과외교사 ③ 학습지 교사 ④ 부모님
 ⑤ 형제자매 ⑥ 친척 ⑦ 친구 ⑧ 기타()

3-2) 도움을 받는다면 주로 어떤 과목에 도움을 받나요? (해당 번호를 모두 고르세요)◀

- ① 외국어 (영어, 중국어 등) ② 한국어 (국어, 논술 등)
 ③ TOEFL이나 SAT 준비 ④ 사회(국사)관련 교과목
 ⑤ 수학 ⑥ 과학(자연)관련 교과목
 ⑦ 악기(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등) ⑧ 스포츠(수영, 발레 등)
 ⑨ 학교 숙제나 과제물 해결 ⑩ 한자
 ⑪ 기타 ()

4. 다음은 현재 학교생활이나 학업성적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부(성적)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를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이 바라는 대학에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공부가 따라가기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시험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원에 다니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여러분이 현재 학교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외국에서 살다온 친구들과 말이 더 잘 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친구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가진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와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담임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은 나에게 칭찬을 잘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은 나를 존중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른 문화경험

1. 다음은 본인이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인은 탁월한 민족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의 전통문화는 세계 어느 민족의 문화와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진정한 세계화란 우리 전통을 굳건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본인의 평상시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타인 앞에서는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기 보다는 겸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른과 같이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렸다 먹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타인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부모님과 의논하고 처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도리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본인이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국인이라도 내 마음에 들면 결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문화도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V. 마음 상태

* 다음의 질문을 읽고 해당 사항에 ○표 하세요.

1. 다음 내용을 잘 읽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의 흉을 볼까 봐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모든 일에 운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누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 기분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만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내용을 잘 읽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고민이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무엇을 할까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6	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울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내용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때때로 나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 내용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⑤
2	싸움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핀다.	①	②	③	④	⑤
5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국에서 생활했던 경험으로 인해 학생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아래 보기 중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학교 성적이 올랐다.
- ② 사물(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 ③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다.
- ④ 자신감이 생겼다.
- ⑤ 외국어 실력이 좋아졌다.
- ⑥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 ⑦ 타인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 ⑧ 자립심이 생기고 어른스러워졌다.
- ⑨ 사고의 융통성이 생겼다.
- ⑩ 하고 싶은 일이나 인생의 목표가 더 분명해졌다.
- ⑪ 새로운 환경에 쉽게 잘 적응하게 되었다.
- ⑫ 나의 적성과 재능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됐다.
- ⑬ 기타 ()

5. 유학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다.
- ② 조금 덜 만족스럽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6. 기회가 되면 유학을 다시 가고 싶습니까?

- ①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
- ② 가고 싶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가고 싶다.
- ⑤ 너무 가고 싶다.

7. 주변 사람들(친구)에게 유학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 ① 절대 추천 하고 싶지 않다.
- ② 추천 하고 싶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추천 하고 싶다.
- ⑤ 매우 추천 하고 싶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일반청소년 대상 설문지(중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삶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는 데 있습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의 대답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학생이 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지에 쓰여 있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자 문경숙
(문의처 02-2188-8837)

2010년 6월



학생 인적 사항	
학교이름	_____ 학교 _____ 학년
생일	_____ 년 _____ 월
성별	① 남 ② 여
현재 거주지	(_____)구 (_____)동

4.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Ⅱ. 부모-자녀관계

* 다음의 질문을 읽고 해당 사항에 ○표 하세요.

1. 다음은 부모님과 본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아버지/어머니에게 느꼈던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아래의 보기를 보고 해당되는 번호를 네모 칸 안에(아버지/어머니) 각각 답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아버지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힘들 때에 나로 인해 힘을 얻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나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나를 위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잘되는 것이라면 어떤 고생도 참아내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성공하는 것이 곧 당신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공부를 못하면 당신이 창피하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자식이 잘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말씀하시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아버지/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나의 장래목표로 삼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Ⅲ. 학교생활

* 다음의 질문을 읽고 해당 사항에 ○표 하세요.

1. 현재 학생은 학교 수업에 얼마나 흥미를 갖고 있는지 과목별로 해당하는 번호에 답해 주세요.

수업 흥 미 도		흥미가 전혀 없다.	흥미가 없다.	보통이다.	흥미가 있다.	흥미가 매우 많다.
	국어	①	②	③	④	⑤
	수학	①	②	③	④	⑤
	사회	①	②	③	④	⑤
	영어	①	②	③	④	⑤
	과학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학생은 학교 수업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과목별로 해당하는 번호에 답해 주세요.

수업 이 해 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이해한다	거의 다 이해한다
	국어	①	②	③	④	⑤
	수학	①	②	③	④	⑤
	사회	①	②	③	④	⑤
	영어	①	②	③	④	⑤
	과학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학교선생님 이외에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요?

- ① 예 ('① 예'라고 대답한 사람만 3-1), 3-2)에 답하세요)
 ② 아니오 (4번 문항으로 가시오)

3-1) 있을 경우,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해당 번호를 모두 고르세요)

- ① 학원교사 ② 개인 과외교사 ③ 학습지 교사 ④ 부모님
 ⑤ 형제자매 ⑥ 친척 ⑦ 친구 ⑧ 기타()

3-2) 도움을 받는다면 주로 어떤 과목에 도움을 받나요? (해당 번호를 모두 고르세요)◀

- ① 외국어 (영어, 중국어 등) ② 한국어 (국어, 논술 등)
 ③ TOEFL이나 SAT 준비 ④ 사회(국사)관련 교과목
 ⑤ 수학 ⑥ 과학(자연)관련 교과목
 ⑦ 악기(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등) ⑧ 스포츠(수영, 발레 등)
 ⑨ 학교 숙제나 과제물 해결 ⑩ 한자
 ⑪ 기타 ()

4. 다음은 현재 학교생활이나 학업성적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부(성적)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를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이 바라는 대학에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공부가 따라가기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시험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원에 다니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여러분이 현재 학교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외국에서 살다온 친구들과 말이 더 잘 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친구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가진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와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담임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은 나에게 칭찬을 잘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은 나를 존중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른 문화경험

1. 다음은 본인이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인은 탁월한 민족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의 전통문화는 세계 어느 민족의 문화와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진정한 세계화란 우리 전통을 굳건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본인의 평상시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타인 앞에서는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기 보다는 겸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른과 같이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렸다 먹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타인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부모님과 의논하고 처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도리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본인이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국인이라도 내 마음에 들면 결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문화도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V. 마음 상태

* 다음의 질문을 읽고 해당 사항에 ○표 하세요.

1. 다음 내용을 잘 읽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의 흉을 볼까 봐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모든 일에 운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누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 기분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만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내용을 잘 읽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고민이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무엇을 할까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6	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울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내용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때때로 나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 내용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⑤
2	싸움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핀다.	①	②	③	④	⑤
5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0호, 2010. 2. 18,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02-2100-6796

제 2장 자비유학

제5조(자비유학자격) ①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2.4.24, 1994.7.23, 1997.3.27, 1997.9.30, 1998.12.31, 2000.11.17, 2001.1.29, 2004.1.29, 2008.7.3>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1994.7.23>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1.29>

제14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 등)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홍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홍식
- 10-R03 위기가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같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상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유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윤정·안소연·윤소운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해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운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박영균 · 이상훈 · 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 · 이승현 · 권수진 · 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 · 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 · 유영준 · 이명희 · 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 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지적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 · 최수정 · 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 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 · 조아미 · 정경은 · 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 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Hernan Cuervo · 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 · 장지연 · 윤자영 · 성재민 · 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수시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 · 김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욱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 · 김성경 · 남미애 · 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분용 · 박제일 · 이은경 · 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 · 권해수

■ 용역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윤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란·김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운숙·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I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II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형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V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타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지울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 · 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연구보고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연구 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인 쇄 2010년 12월 22일

발 행 2010년 12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예림피앤디 전화 02)2263-0483 대표 한필연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892-2(93330)
ISBN 978-89-7816-891-5(세트)

